

KREI

World · Grain · Market · Trends



2025 제14권 제3호

World · Grain · Market · Trends

해외곡물시장 동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 14-2025-03

2025 제14권 제3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Trend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 담당〉

박준기 선 임 연 구 위 원 jkpark@krei.re.kr (061-820-2173)

박도연 연 구 원 dypark@krei.re.kr (061-820-2055)

◆ 그동안 월간으로 발간되었던 해외곡물시장동향 보고서가 2019년도부터는 격월간으로 바뀌었습니다.

CONTENTS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0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30
곡물 시장의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44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Issue Box〉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산업 실태와 시사점	73
---------------------------------	----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뉴스 - 로이터	129
-----------------	-----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4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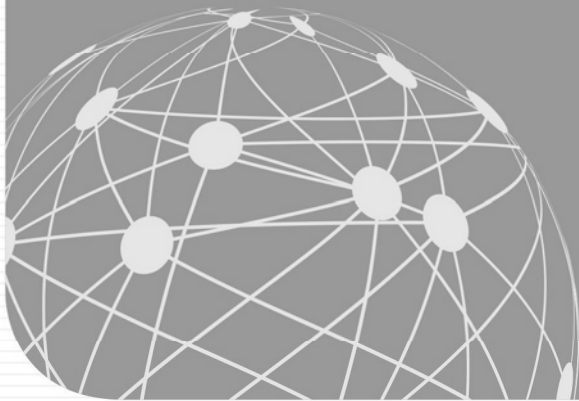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177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181



Part 1.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0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30
곡물 시장의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44



세계 곡물시장 동향

박도연(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1.1. 곡물 전체¹⁾

2025년 6월 기준 2025/26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9억 86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며, 소비량은 28억 9,719만 톤으로 이전 2024/25년 대비 1.4% 증가할 전망이다. 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년보다 0.8%p 감소한 26.0%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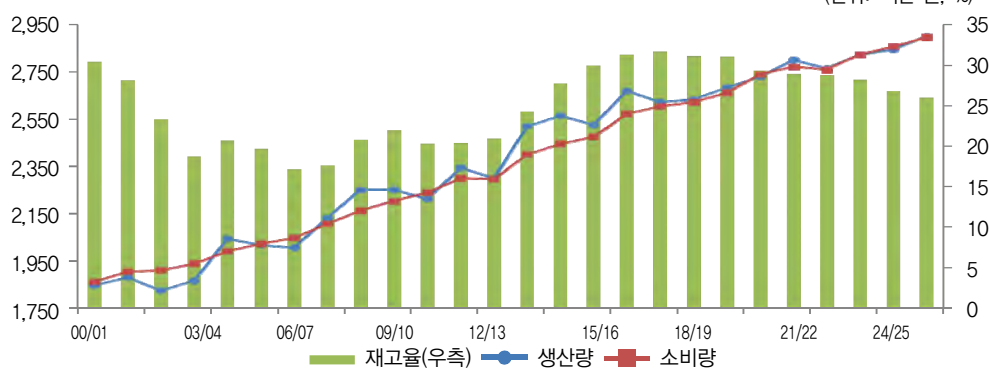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

구분	2000/01	2010/11	2015/16	2020/21	2023/24	2024/25	2025/26 (6월 전망)
생산량	1,846	2,212	2,525	2729	2823	2845	2901
소비량	1,861	2,239	2,474	2739	2823	2857	2897
재고율	30.4	20.3	29.9	29.3	28.2	26.8	26.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그림 1〉 세계 곡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톤, %)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dypark@krei.re.kr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1.2. 품목별 수급 동향

품목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쌀은 2025년 6월 기준 생산량,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5억 4,15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2만 톤(0.1%) 늘겠으며, 소비량은 같은 기간 836만 톤(1.6%)이 증가한 5억 3,823만 톤으로 전망된다. 쌀 재고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4.9%이다.

다음으로 밀의 경우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전년 대비 868만 톤(1.1%) 증가한 8억 859만 톤이며, 소비량은 951만 톤(1.2%) 증가한 8억 641만 톤으로 전망된다. 밀 재고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2.6%로 전망된다.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은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12억 6,5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4,266만 톤(3.5%) 증가하겠으며, 소비량은 12억 6,745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17만 톤(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재고율은 21.7%로 전년 대비 1.2%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는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5/26년 대두 생산량은 4억 2,682만 톤으로 2024/25년보다 604만 톤(1.4%) 증가하겠으며, 소비량은 4억 2,415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492만 톤(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재고율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29.5%이다.

〈표 2〉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구분	2000/01	2010/11	2015/16	2020/21	2023/24	2024/25	2025/26 (6월 전망)
쌀	생산량	399	451	477	509	524	541	542
	소비량	394	444	468	498	521	530	538
	재고율	37.3	23.2	30.6	37.9	34.5	35.4	34.9
밀	생산량	583	650	739	773	792	800	809
	소비량	584	653	714	777	798	797	806
	재고율	35.3	30.6	34.7	36.7	33.7	33.1	32.6
옥수수	생산량	592	849	1021	1134	1231	1223	1266
	소비량	609	868	1007	1154	1225	1247	1267
	재고율	28.7	13.2	31.1	25.8	25.8	22.9	21.7
대두	생산량	176	265	316	370	397	421	427
	소비량	171	253	317	367	384	409	424
	재고율	20.0	29.1	25.1	26.9	30.0	30.4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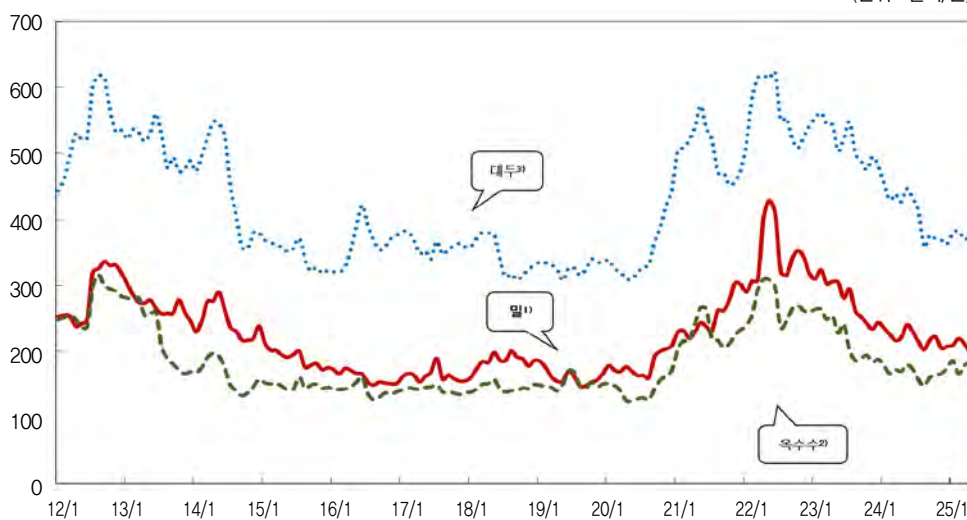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2. 세계 곡물 선물/현물(FOB)가격 동향

2025년 5월과 6월 주요 곡물 선물시장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진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심화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5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145%의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125%의 관세를 10%로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고관세로 위축되었던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6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무인기를 활용하여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하면서 러·우 전쟁이 다시 격화되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갈등을 재점화하였다. 이후 양국은 2차 무역 협상을 통해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상호 확인하며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곡물 시장은 일시적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12.01~2025.6)

(단위: 달러/톤)



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June and ERS June

5월과 6월 밀 선물가격은 각각 193달러/톤, 198달러/톤으로 평균 196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3~4월 평균 198달러/톤보다 1.3% 하락했다(그림 3, 표 3). 옥수수 선물가격은 5월과 6월 각각 177달러/톤, 173달러/톤으로 평균 175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2개월 평균 가격(183달러/톤)보다 4.2% 하락했다(그림 4, 표 3). 대두 선물가격은 5월과 6월 톤당 386달러로 평균 386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앞선 2개월 평균(374달러/톤)과 비교하여 3.3% 상승했다(그림5, 표 3).

2025년 5월과 6월 현물가격은 이전 2개월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밀과 옥수수는 하락한 반면, 대두와 쌀은 상승하였다. 품목별 톤당 평균 가격은 밀 238달러, 옥수수 206달러, 대두 415달러였으며, 쌀의 경우, 태국 장립종은 418달러, 캘리포니아 중립종은 777달러였다(표 4).

〈표 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22/23	2023/24	2024.6	2025.5	2025.6	변동률(%)		
						22/23 대비 23/24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 ¹⁾	287	222	220	193	198	-22.8	-9.7	2.9
옥수수 ²⁾	248	174	173	177	173	-29.8	-0.1	-2.3
대두 ²⁾	535	444	431	386	386	-17.1	-10.4	-0.1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임.

자료: USDA AMS June and ERS June

〈표 4〉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22/23	2023/24	2024.6	2025.5	2025.6	변동률(%)		
							22/23 대비 23/24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 ¹⁾		398	299	266	237	239	-24.9	-10.0	0.7
옥수수 ²⁾		293	203	197	209	202	-30.7	2.7	-3.0
대두 ²⁾		585	473	456	416	414	-19.2	-9.1	-0.5
쌀 ³⁾	태국	480	624	630	421	414	30.1	-34.3	-1.7
	캘리포니아	1633	1011	835	753	800	-38.1	-4.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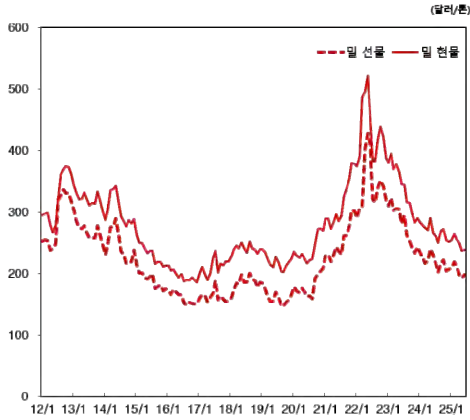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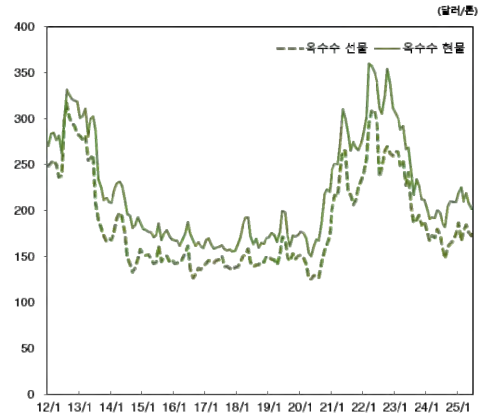
자료: IGC Market Data June 2025, USDA Rice Outlook June 2025.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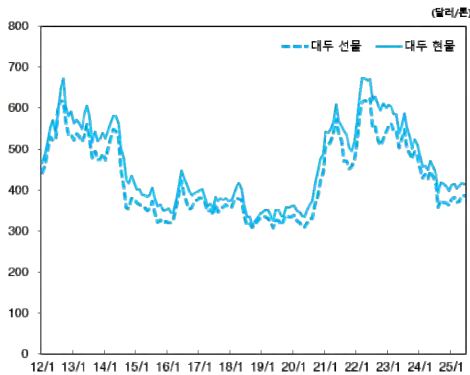
주: 1) 밀 선물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June and ERS June IGC Market Data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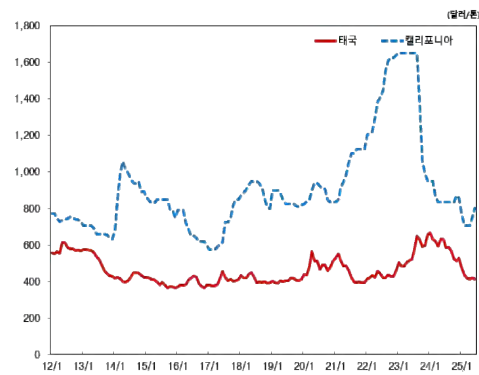
주: 1) 옥수수 선물은 Chicago Yellow Corn 2등급
2) 옥수수 현물은 US 3YC Gulf
자료: USDA AMS June and ERS June IGC Market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5.6)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자료: USDA AMS June and ERS June IGC Market Data

〈그림 6〉 쌀 월별 현물가격 동향
(2012.1~2025.6)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AMS June and ERS June IGC Market Data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2025/26년 세계 쌀 수급에 대한 6월 전망은 5월 전망보다 좋았다.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공급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5월 전망 대비 미국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이 감소하고 인도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했다. 5월 전망 대비 미국, 인도의 쌀 수출량이 증가했으나 파키스탄의 쌀 수출량이 감소했다. 중국의 쌀 수입량은 증가했다.

2025/26년 세계 밀 수급에 대한 6월 전망은 5월 전망보다 좋지 못했다. 공급 측면에서 생산량은 거의 변동 없었으나 기초재고량이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교역량이 증가했으며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증가했으며 기말재고량은 약간 하향 조정됐다. 5월 전망 대비 인도, 유럽연합, 북아프리카의 밀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서남아시아의 밀 생산량은 감소했다. 인도, 러시아, 서남아시아의 밀 소비량이 증가했으나 동남아시아의 밀 소비량은 감소했다. 5월 전망 대비 미국, 유럽연합의 밀 수출량이 증가했다.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에 대한 6월 전망은 5월 전망보다 좋지 못했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고 기초재고량이 감소했으며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5월 전망 대비 주요 국가의 수급은 변동 없었다.

2025/26년 세계 대두 수급에 대한 6월 전망은 5월 전망 대비 좋았다. 공급량과 수요량은 변동 없었으며 이월 재고량이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5월 전망 대비 주요 국가의 수급은 변동 없었다.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2025/26년 주요 품목의 세계 수급 전망을 다룬다. 주요 국가의 품목별 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가 6월 12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WASDE)'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agscouter@naver.com

1. 곡물 전체¹⁾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9억 100만 톤으로 2.0%, IGC는 29억 1,600만 톤으로 2.4%, FAO는 29억 1,100만 톤으로 2.0%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36억 6,600만 톤으로 0.7%, IGC는 36억 7,500만 톤으로 1.3%, FAO는 37억 7,700만 톤으로 1.1%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9억 1,300만 톤으로 1.3%, IGC는 29억 1,200만 톤으로 1.5%, FAO는 28억 9,800만 톤으로 0.8%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5억 1,300만 톤으로 3.6%, IGC는 4억 8,800만 톤으로 2.3%, FAO는 4억 8,700만 톤으로 1.9%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7억 5,600만 톤으로 1.2% 감소를 전망한 반면, IGC는 7억 6,400만 톤으로 0.7%, FAO는 8억 7,400만 톤으로 1.0%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과 관련해서 2024/25년 대비 USDA는 26.0%로 0.6%포인트, IGC는 26.2%로 0.3%포인트 하락을 전망한 반면, FAO는 30.2%로 0.1%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6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5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6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845	2,901	2.0	2,849	2,916	2.4	2,853	2,911	2.0
공급량	3,641	3,666	0.7	3,627	3,675	1.3	3,736	3,777	1.1
소비량	2,876	2,913	1.3	2,868	2,912	1.5	2,876	2,898	0.8
교역량	495	513	3.6	477	488	2.3	478	487	1.9
기말재고량	765	756	-1.2	759	764	0.7	865	874	1.0
기말재고율	26.6	26.0		26.5	26.2		30.1	30.2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2. 쌀

2.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5억 4,200만 톤으로 0.2%, IGC는 5억 4,100만 톤으로 0.4%, FAO는 5억 5,100만 톤으로 0.7%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 역시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7억 2,900만 톤으로 1.1%, IGC는 7억 1,900만 톤으로 1.0%, FAO는 7억 6,000만 톤으로 1.9%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5억 4,100만 톤으로 1.3%, IGC는 5억 4,000만 톤으로 1.1%, FAO는 5억 4,900만 톤으로 1.7%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6,200만 톤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IGC는 6,000만 톤으로 1.7% 증가를 전망한 반면, FAO는 6,000만 톤으로 1.6% 감소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8,800만 톤으로 0.5%, IGC는 1억 7,900만 톤으로 0.6%, FAO는 2억 900만 톤으로 0.5%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과 관련해서 2024/25년 대비 USDA는 34.8%로 0.2%포인트, IGC는 33.1%로 0.2%포인트, FAO는 38.1%로 0.4%포인트 하락을 전망했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6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5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6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541	542	0.2	539	541	0.4	547	551	0.7
공급량	721	729	1.1	712	719	1.0	746	760	1.9
소비량	534	541	1.3	534	540	1.1	540	549	1.7
교역량	62	62	0.0	59	60	1.7	61	60	-1.6
기말재고량	187	188	0.5	178	179	0.6	208	209	0.5
기말재고율	35.0	34.8		33.3	33.1		38.5	38.1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2.2 국가별 수급²⁾

2.2.1 수출 시장

인도의 쌀 생산량은 1억 5,100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30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100만 톤, 2023/24년 대비 1,31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5,100만 ha로 2024/25년과 동일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4.44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2,650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15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450만 톤, 2023/24년 대비 1,0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00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과 동일함에 반해, 2023/24년 대비 1,05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450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20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의 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04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80만 ha로 2024/25년 대비 8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86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26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6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9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0만 톤, 2023/24년 대비 17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6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5만 톤, 2023/24년 대비 9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90만 ha로 2024/25년 대비 10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6.1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6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2,27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9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하겠으며, 2023/24년 대비 11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1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5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2) 국가별 쌀 생산량은 백미(milled rice) 기준이므로 도정 전의 쌀 생산량 즉 생산 면적과 단위당 수확량을 고려한 수확량(rough production)과는 차이를 보임

파키스탄의 쌀 수급은 이월 재고량과 수출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9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70만 ha로 2024/25년과 동일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97톤으로 2023/24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530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20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50만 톤, 2023/24년 대비 12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56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34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31만 톤, 2023/24년 대비 1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미얀마의 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80만 ha로 2024/25년 대비 6만 톤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76톤으로 2024/25년 대비 0.05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0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5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하겠으나, 2023/24년 대비 1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2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6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3〉 주요 수출국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151.00 (▲1.00/▲13.17)	126.50 (▲4.50/▲10.10)	25.00 (0.00/▲10.57)	44.50 (▼0.50/▲2.50)
태국	20.40 (▼0.15/▲0.40)	12.65 (▲0.15/▲0.35)	7.20 (▲0.20/▼2.69)	3.91 (▲0.60/▲1.70)
베트남	26.30 (▼0.65/▼0.90)	22.75 (▲0.10/▲0.25)	7.90 (0.00/▼1.14)	3.14 (▼0.25/▲0.15)
파키스탄	9.80 (▲0.05/▼0.07)	4.20 (▲0.10/▲0.20)	5.30 (▼0.50/▼1.23)	1.56 (▲0.31/▲0.17)
미얀마	12.00 (▲0.10/▼0.30)	10.20 (▲0.10/▲0.20)	1.50 (0.00/▼1.30)	1.23 (▲0.30/▲0.61)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1 Jun. 12, 2025

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쌀 수급은 소비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2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25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5만 톤 상향 조정됐

으며,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50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2023/24년 대비 4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나이지리아의 쌀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52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4만 톤, 2023/24년 대비 3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50만 ha로 2024/25년 대비 10만 헥타르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2.37톤으로 2024/25년 대비 0.17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1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4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1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12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77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7만 톤,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5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9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3,3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120만 ha로 2024/25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4.72톤으로 2024/25년 대비 0.06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2023/24년 대비 7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8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필리핀의 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2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470만 ha로 2023/24년 대비 1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4.15톤으로 2024/25년 대비 0.0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7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2023/24년 대비 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54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9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1억 4,600만 톤으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72만 톤, 2023/24년 대비 13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900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19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4,605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5

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0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45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92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024/25년과 동일한 17만 톤이며 2023/24년 대비 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02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9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72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45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88톤으로 2023/24년 대비 0.0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8만 톤, 2023/24년 대비 1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6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9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의 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35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2023/24년 대비 1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8만 ha로 2024/25년 대비 2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9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5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8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만 톤, 2023/24 대비 3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41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하겠으며, 2023/24년 대비 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4〉 주요 수입국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3 (▼0.05/▲0.21)	7.25 (▲0.30/▲0.67)	5.05 (▲0.05/▲0.41)	1.65 (▲0.03/▲0.35)
나이지리아	5.23 (▼0.54/▼0.38)	8.10 (▲0.20/▲0.45)	3.10 (▲0.20/▲1.21)	3.06 (▲0.22/▲0.99)
유럽연합	1.77 (▲0.17/▲0.40)	3.55 (▲0.15/▲0.30)	2.20 (▼0.15/▲0.09)	0.84 (0.00/▲0.14)
인도네시아	33.60 (▼1.00/▲0.58)	35.50 (▼0.40/▼0.70)	0.80 (▲0.20/▼3.85)	4.37 (▼1.10/▼1.80)
필리핀	12.30 (▲0.30/▼0.03)	17.70 (▲0.40/▲0.90)	5.40 (▼0.15/▲0.90)	3.65 (0.00/▲0.25)
중국	146.00 (▲0.72/▲1.38)	146.05 (▲0.02/▼2.07)	2.45 (▲0.20/▲0.92)	105.00 (▲1.50/▲2.00)
멕시코	0.17 (0.00/▲0.01)	1.02 (▲0.01/▲0.03)	0.90 (▲0.02/▲0.05)	0.18 (▲0.04/▲0.06)
일본	7.28 (▼0.01/▼0.02)	8.00 (▼0.18/▼0.15)	0.69 (▼0.09/▼0.03)	1.27 (▼0.13/▼0.33)
한국	3.54 (▼0.05/▼0.16)	3.81 (▼0.07/▼0.38)	0.41 (0.00/▲0.01)	1.09 (▼0.06/▼0.12)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1 Jun. 12, 2025

3. 밀

3.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8억 600만 톤으로 9.4% 감소를 전망한 반면, IGC는 8억 600만 톤으로 0.9%, FAO는 8억 톤으로 0.3%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0억 7,300만 톤으로 0.4%, IGC는 10억 7,500만 톤으로 0.4%, FAO는 11억 1,700만 톤으로 0.4%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8억 1,000만 톤으로 0.6%, IGC는 8억 1,300만 톤으로 1.4%, FAO는 8억 500만 톤으로 1.3%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억 1,300만 톤으로 3.4%, IGC는 2억 300만 톤으로 5.2%, FAO는 2억 100만 톤으로 4.1%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억 6,600만 톤으로 0.8% 증가를 전망한 반면, IGC는 2억 6,200만 톤으로 2.6%, FAO는 3억 1,000만 톤으로 2.2% 감소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32.8%로 동일하겠으나, IGC는 32.2%로 1.3%포인트, FAO는 38.5%로 1.4%포인트 하락을 전망했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6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5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6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890	806	-9.4	799	806	0.9	798	800	0.3
공급량	1,069	1,073	0.4	1,071	1,075	0.4	1,113	1,117	0.4
소비량	805	810	0.6	802	813	1.4	795	805	1.3
교역량	206	213	3.4	193	203	5.2	193	201	4.1
기말재고량	264	266	0.8	269	262	-2.6	317	310	-2.2
기말재고율	32.8	32.8		33.5	32.2		39.9	38.5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은 1억 3,655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55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1,443만 톤, 2023/24년 대비 11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40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5.69톤으로 2024/25년 대비 0.3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1,100만 톤으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125만 톤, 2023/24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450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5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8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5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291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5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5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88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은 8,300만 톤으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1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8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720만 ha로 2024/25년 대비 6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05톤으로 2024/25년 대비 0.1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900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5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하겠으나, 2023/24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500만 톤으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0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939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200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70만 톤, 2023/24년 대비 230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500만 ha로 2024/25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4.6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0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60만 톤으로 2024/25년과 2023/24년 대비 10만 톤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6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0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49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하겠으며, 2023/24년 대비 7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밀 수급은 수출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5,22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3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507만 ha로 2024/25년 대비 5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47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15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만 톤, 2023/24년 대비 13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245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68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13만 톤, 2023/24년 대비 32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445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67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155만 톤, 2023/24년 대비 5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3,6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4만 톤, 2023/24년 대비 30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90만 ha로 2024/25년 대비 2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3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92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1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70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했으며, 2023/24년 대비 15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3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9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호주의 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3,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1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0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250만 ha로 2024/25년 대비 56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2.48톤으로 2024/25년 대비 0.13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1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32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14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밀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0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46만 톤, 2023/24년 대비 41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50만 ha로 2024/25년 대비 1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08톤으로 2024/25년 대비 0.16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2023/24년 대비 47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

재고량은 46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의 밀 생산량은 1억 1,751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51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422만 톤, 2023/24년 대비 69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290만 ha로 2024/25년 대비 107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57톤으로 2024/25년 대비 0.0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1,300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5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424만 톤, 2023/24년 대비 6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만 톤으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651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451만 톤, 2023/24년 대비 90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6〉 주요 수출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36.55 (▲14.43/▲1.17)	111.00 (▲1.25/▲0.50)	34.50 (▲8.00/▼3.51)	12.91 (▲0.55/▼2.88)
러시아	83.00 (▲1.40/▼8.50)	39.00 (▼1.00/0.00)	45.00 (▲1.50/▼10.50)	9.39 (▼0.70/▼2.30)
우크라이나	23.00 (▼0.40/0.00)	6.60 (▼0.10/▼0.10)	16.50 (▲0.50/▼2.08)	1.49 (0.00/▲0.78)
미국	52.28 (▼1.37/▲3.18)	31.54 (▲0.06/▲1.38)	22.45 (▲0.13/▲3.21)	24.45 (▲1.55/▲5.50)
캐나다	36.00 (▲1.04/▲3.05)	9.25 (▲0.25/▲0.14)	27.00 (0.00/▲1.56)	4.39 (▲0.30/▼0.19)
호주	31.00 (▼3.11/▲5.04)	8.10 (▲0.10/▲0.30)	23.00 (▼2.00/▲3.16)	4.32 (▲0.10/▲1.41)
아르헨티나	20.00 (▲1.46/▲4.15)	7.30 (▲0.15/▲0.25)	13.00 (▲2.00/▲4.77)	4.65 (▼0.29/▲0.11)
인도	117.51 (▲4.22/▲6.96)	113.00 (▲4.24/▲0.66)	0.25 (▲0.06/▼0.09)	16.51 (▲4.51/▲9.01)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1 Jun. 12, 2025

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밀 수급은 이월 재고량과 생산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028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20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328만 톤, 2023/24년 대비 4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021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33만 톤, 2023/24년 대비 4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96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6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북아프리카의 밀 생산량은 1,755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4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151만 톤, 2023/24년 대비 1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665만 톤으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45만 톤, 2023/24년 대비 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225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20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35만 톤, 2023/24년 대비 8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해서 소비량은 2,925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15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122만 톤, 2023/24년 대비 1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060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20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14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동일할 전망이다.

중국의 밀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억 4,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90만 톤, 2023/24년 대비 54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360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6.02톤으로 2024/25년 대비 0.08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5,00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6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64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표 7〉 주요 수입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0.28 (▼3.28/▼0.49)	40.21 (▲0.33/▲0.45)	19.68 (▲2.03/▼0.65)	11.88 (▼1.26/▼0.65)
북아프리카	17.55 (▲1.51/▲1.18)	46.65 (▲0.45/▲0.07)	32.25 (▲0.35/▲0.87)	11.78 (▲1.13/▲0.43)
동남아시아	0.00 (0.00/0.00)	29.25 (▲1.22/▲1.29)	30.60 (▲1.42/0.00)	4.34 (▲0.01/▼0.13)
중국	142.00 (▲1.90/▲5.41)	150.00 (0.00/▼3.50)	6.00 (▲2.00/▼7.64)	124.60 (▼3.00/▼9.90)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1 Jun. 12, 2025

4. 옥수수

4.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2억 6,600만 톤으로 3.5%, IGC는 12억 7,700만 톤으로 4.4%, FAO는 12억 5,800만 톤으로 3.8%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 역시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5억 5,100만 톤으로 0.8%, IGC는 15억 5,200만 톤으로 2.3%, FAO는 15억 3,900만 톤으로 1.4%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2억 7,600만 톤으로 1.8%, IGC는 12억 6,800만 톤으로 2.1%, FAO는 12억 4,400만 톤으로 0.5%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USDA는 1억 9,600만 톤으로 3.2%, IGC는 1억 8,600만 톤으로 0.5% 증가를 전망한 반면, FAO는 1억 8,200만 톤으로 0.5% 감소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억 7,500만 톤으로 3.5% 감소를 전망함에 반해, IGC는 2억 8,400만 톤으로 3.3%, FAO는 2억 9,400만 톤으로 4.6%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1.6%로 1.1%포인트 하락을 전망한 반면, IGC는 22.4%로 0.3%포인트, FAO는 23.6%로 0.9%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6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5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6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223	1,266	3.5	1,223	1,277	4.4	1,212	1,258	3.8
공급량	1,539	1,551	0.8	1,517	1,552	2.3	1,518	1,539	1.4
소비량	1,254	1,276	1.8	1,242	1,268	2.1	1,238	1,244	0.5
교역량	190	196	3.2	185	186	0.5	183	182	-0.5
기말재고량	285	275	-3.5	275	284	3.3	281	294	4.6
기말재고율	22.7	21.6		22.1	22.4		22.7	23.6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4.2 국가별 수급

4.2.1 수출 시장

미국의 옥수수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4억 18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422만 톤, 2023/24년 대비 1,2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3,537만 ha로 2024/25년 대비 182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11.36톤으로 2024/25년 대비 0.10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억 2,47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68만 톤, 2023/24년 대비 2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6,79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4만 톤, 20223/24년 대비 97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446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127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97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옥수수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억 3,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2023/24년 대비 1,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2,26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5.8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9,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2023/24년 대비 9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30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7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59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1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340만 톤, 2023/24년 대비 590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5,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0만 톤, 2023/24년 대비 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750만 ha로 2024/25년 대비 11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07톤으로 2024/25년 대비 0.74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5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7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0만 톤, 2023/24년 대비 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19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4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41만 톤, 2023/24년 대비 7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3,0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420만 ha로 2024/25년 대비 1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

당 수확량도 ha당 7.26톤으로 2024/25년 대비 0.7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2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8만 톤, 2023/24년 대비 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4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4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옥수수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6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250만 ha로 2024/25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00톤으로 2024/25년 대비 0.8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1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16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6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5만 톤, 2023/24년 대비 30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00만 ha로 2024/25년 대비 4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5.5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4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3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9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66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33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4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9〉 주요 수출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미국	401.85 (▲24.22/▲12.18)	324.75 (▲3.68/▲2.83)	67.95 (▲0.64/▲9.72)	44.46 (▲9.78/▼0.33)
브라질	131.00 (▲1.00/▲12.00)	93.00 (▲2.00/▲9.00)	43.00 (0.00/▲4.73)	2.59 (▼3.40/▼5.90)
아르헨티나	53.00 (▲3.00/▲2.00)	15.60 (▲0.40/▲1.00)	37.00 (▲2.50/▲0.74)	3.19 (▲0.41/▲0.71)
우크라이나	30.50 (▲3.70/▼2.00)	6.23 (▲1.08/▲0.85)	24.00 (▲2.00/▼5.49)	0.60 (▲0.29/▼0.04)
러시아	15.00 (▲1.00/▼1.60)	11.20 (▲0.60/▲1.00)	3.60 (▲0.30/▼3.00)	1.16 (▲0.25/▲0.40)
남아공	16.50 (▲0.75/▲3.07)	14.20 (▲0.30/▲0.37)	1.90 (▲0.30/▼0.37)	1.66 (▲0.40/▲1.00)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1 Jun. 12, 2025

4.2.2 수입 시장

유럽연합의 옥수수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6,0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9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825만 ha로 2024/25년 대비 45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27톤으로 2024/25년 대비 0.46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7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0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2023/24년 대비 6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옥수수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4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2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640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83톤으로 2024/25년 대비 0.16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9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2023/24년 대비 2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50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옥수수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소비량은 1,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2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이집트의 옥수수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72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95만 ha로 2024/25년 대비 3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7.63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5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87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5만 톤, 2023/24년 대비 73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옥수수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소비량은 1,1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2023/24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15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의 옥수수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3,126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0만 톤, 2023/24년 대비 6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5,1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4만 톤, 2023/24년 대비 2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1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5만 톤, 2023/24년 대비 22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옥수수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억 9,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만 톤, 2023/24년 대비 6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4,430만 ha로 2024/25년 대비 44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66톤으로 2024/25년 대비 0.0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억 2,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0만 톤, 2023/24년 대비 1,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0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341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표 10〉 주요 수입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60.00 (▲0.69/▼1.95)	77.80 (▼0.10/▼0.30)	20.50 (▲0.50/▲0.67)	6.03 (▼0.30/▼1.28)
멕시코	24.50 (▲1.20/▲1.00)	49.50 (▲1.00/▲2.30)	25.00 (0.00/▲0.24)	5.71 (▼0.03/▼0.26)
일본	0.02 (0.00/▲0.01)	15.50 (▲0.25/▲0.20)	15.50 (▲0.20/▲0.21)	1.29 (▲0.02/▼0.01)
이집트	7.25 (▲0.25/▲0.05)	15.80 (▲0.30/▲0.50)	8.75 (▲0.35/▲0.73)	1.53 (▲0.20/▲0.10)
한국	0.10 (▲0.01/▲0.01)	11.60 (▲0.05/▲0.10)	11.50 (0.00/▼0.05)	2.08 (▼0.01/▲0.04)
동남아시아	31.26 (▲0.60/▲0.66)	51.80 (▲0.84/▲2.80)	21.50 (▲1.05/▲2.21)	3.11 (▲0.35/▼0.06)
중국	295.00 (▲0.08/▲6.16)	321.00 (▲5.00/▲14.00)	10.00 (▲3.00/▼13.41)	181.16 (▼16.02/▼30.13)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1 Jun. 12, 2025

5. 대두

5.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4억 2,700만 톤으로 1.4%, IGC는 4억 2,800만 톤으로 1.9%, FAO는 4억 3,000만 톤으로 1.9%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 역시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5억 5,100만 톤으로 2.8%, IGC는 5억 1,000만 톤으로 3.7%, FAO는 5억 톤으로 2.9%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도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4억 2,400만 톤으로 3.7%, IGC는 4억 2,900만 톤으로 4.6%, FAO는 4억 2,800만 톤으로 3.6%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8,800만 톤으로 3.9%, IGC

는 1억 8,300만 톤으로 1.1%, FAO는 1억 8,400만 톤으로 2.2%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2,500만 톤으로 0.8% 증가를 전망했으나, IGC는 8,100만 톤으로 1.2% 감소를 전망했다. FAO는 7,00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9.5%로 0.8%포인트, IGC는 18.9%로 1.1%포인트, FAO는 16.4%로 0.5%포인트 하락을 전망했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6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5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6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21	427	1.4	420	428	1.9	422	430	1.9
공급량	536	551	2.8	492	510	3.7	486	500	2.9
소비량	409	424	3.7	410	429	4.6	413	428	3.6
교역량	181	188	3.9	181	183	1.1	180	184	2.2
기말재고량	124	125	0.8	82	81	-1.2	70	70	0.0
기말재고율	30.3	29.5		20.0	18.9		16.9	16.4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억 1,812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347만 ha로 2024/25년 대비 135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53톤으로 2024/25년 대비 0.1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076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80만 톤, 2023/24년 대비 5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94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9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2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80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0만 톤, 2023/24년 대비 129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대두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억 7,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00만 톤, 2023/24년 대비 2,0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4,880만 ha로 2024/25년 대비 14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59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2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20만 톤, 2023/24년 대비 40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억 1,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50만 톤, 2023/24년 대비 7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429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13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85만 톤, 2023/24년 대비 453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4,8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650만 ha로 2024/25년 대비 8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94톤으로 2024/25년 대비 0.1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5,0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2023/24년 대비 6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6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54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0만 톤, 2023/24년 대비 14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파라과이의 대두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과는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80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2.9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8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16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12〉 주요 수출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118.12 (▼0.72/▲4.85)	70.76 (▲1.80/▲5.18)	49.40 (▼0.95/▲3.27)	8.03 (▼1.50/▼1.29)
브라질	175.00 (▲6.00/▲20.50)	62.30 (▲1.20/▲4.04)	112.00 (▲7.50/▲7.83)	34.29 (▲0.85/▲4.53)
아르헨티나	48.50 (▼0.50/▲0.29)	50.50 (▲0.40/▲6.67)	4.50 (▲0.30/▼0.61)	25.45 (▲0.70/▲1.40)
파라과이	11.00 (▲0.80/0.00)	3.30 (▲0.02/▲0.20)	7.70 (▲0.90/▼0.29)	0.45 (▲0.02/▲0.16)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1 Jun. 12, 2025

5.2.2 수입 시장

중국의 대두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5만 톤, 2023/24년 대비 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50만 ha로 2024/25년 대비 17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00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인해 전체 소비량은 1억 3,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10만 톤, 2023/24년 대비 1,1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억 1,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과는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488만 톤으로 5월 전망 대비 102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2024/25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5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대두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9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만 톤, 2023/24년 대비 1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10만 ha로 2024/25년 대비 14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2.6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6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682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8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4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8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대두 수급은 5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7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70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5만 톤, 2023/24년 대비 4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7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5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13〉 주요 수입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중국	21.00 (▲0.35/▲0.16)	133.00 (▲6.10/▲11.20)	112.00 (▲4.00/0.00)	44.88 (▼0.10/▲1.57)
유럽연합	2.95 (▲0.03/▲0.14)	16.82 (▲0.30/▲0.82)	14.30 (▼0.30/▲0.84)	2.01 (▲0.13/▲0.73)
멕시코	0.27 (0.00/▲0.07)	7.09 (▲0.35/▲0.49)	7.00 (▲0.30/▲0.54)	1.01 (▲0.17/▲0.40)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1 Jun. 12, 2025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 (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

투자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뉴욕 금융시장 동향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SNS부터 확인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틀과 상식을 깨는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에 적응하느라 세계적으로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폭발하고 있습니다. 원고에서 다룬 내용들은 관세나 전쟁 할 것 없이 모두 여전히 불확실성과 가변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내일은 고사하고 반나절 후의 가격 흐름조차 내다보기 힘든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하는 비겁한 얘기가지만, 전망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시절입니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관세?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혼돈의 2025년

미국의 보수정당 공화당이 추구해 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가치 내지 정책 목표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대선(大選)에 이어 2024년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둔 이후로는 모든 국제뉴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미국 내 소식이나 국제정세와 관련한 뉴스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종사자들조차 ‘트럼프 리딩방’이라 부르면서 그가 트위터에 대항하여 만든 SNS인 Truth Social에 올리는 술한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MAGA 캐치프레이즈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MASA),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RA 혹은 MAWA),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등의 세부적인 구호로 진화하는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고작 5개월 정도 지나면서 MAGA의 G는 ‘Great’가 아닌 ‘Greedy’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자료 1] 참조).

* gfm5298@gmail.com

[자료 1] 트럼프의 'MAGA'는 “Make America Greedy Again”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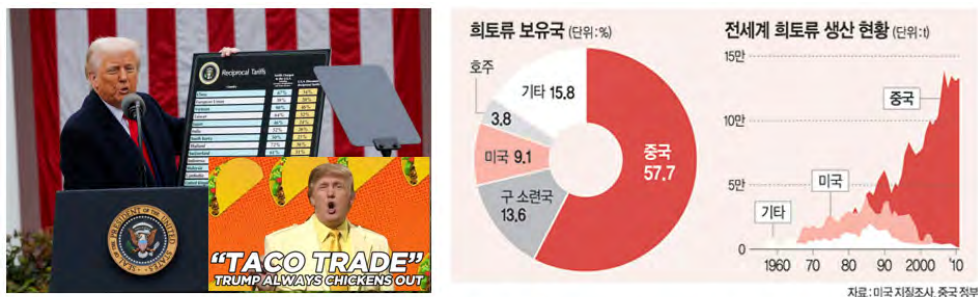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재등장 이후 세상이 시끄러워진 데에는 트럼프와 그의 주요 참모들이(모든 참모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국 사회와 세계 질서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기득권 세력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인 데에다 기존 체제와 시스템에 익숙해진 일반 대중들에게도 혁명적 내지 독재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속(光束) 질주에 마냥 박수갈채만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확산되어 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만들어 선출직도 아니고 관료로서의 경험도 없는(‘늘공’이 아닌)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혀(‘어공’을 내세워) 해외원조라는 명분하에 엄한 곳에 눈 먼 돈을 펄펄 쏟아부어왔던 USAID(국제개발처)에 메스를 들이대니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다. 2022년 트위터 인수 후 약 7,500명에 달하던 직원을 1,000명 정도로 감축하기도 한 머스크는 연방정부 부처의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갔다. 다소 애매한 지위에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듯한 머스크에 대한 반감은 그의 분신이라 할 테슬라까지 미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술한 방화와 테러도 일어났다([자료 2] 참조).

[자료 2] 비정상의 정상화가 야기하는 갈등과 혼란



미국 LA에서 시작된 ‘이민자(정확하게는 불법 입국자) 추방 반대 시위’의 경우에서도 비정상(非正常)의 정상화(正常化)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이든 정부에서 활짝 열어준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은 불법 입국이며 범죄가 맞다.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그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과 비극이 미국 내에서 펼쳐졌고,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입국자 추방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엄중하게 수행하면서 이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아름답고 살기 좋기로 유명했던 캘리포니아 주(州)를 영망으로 만든 개빈 뉴섬 주지사는(첫 임기 2019년 1월 7일 ~ 임기 종료 예정 2027년 1월 4일) 시위를 진정시키기보다는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고, 약탈, 방화 등이 심화되면서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다. 언제부터인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지기에 앞서 진영논리가 우선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른바 주류 언론들의 보도만으로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일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다. 심지어 경제지표와 시장 가격 변수에도 진영논리가 녹아들어 있는 시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료 3] 동시다발적 전쟁 수행 중인 미국 수습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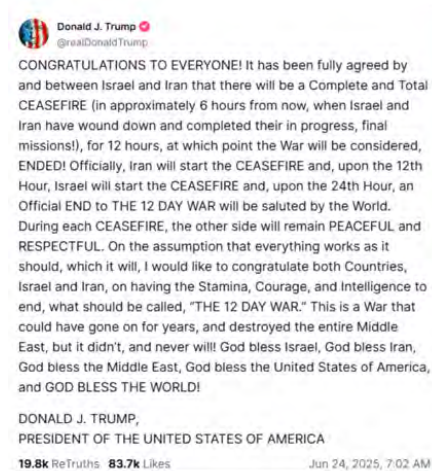
2주 예고하더니 전격 공습...백악관, '위험' 상황실 공개 2025.06.22 20:24 SBS NEWS



이미 집권 1기 때에도 ‘관세 맨(Tariff man)’의 DNA가 충만함을 과시했던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희한한 계산 방식으로 산출한 상호관세를 57개국에 부과하며 2차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예외주의’ 운운하며 상승 랠리를 펼쳐왔던 미국 주가나 국채가격, 달러가치 등이 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던 차에 전후(戰後) 세계 질서로 자리 잡은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식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나서니 금융시장은 아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가는 급락하고 국채수익률은 급등(국채가격 급락)하면서 달러도 약세를 연출, 이른바 ‘Sell America’ 장세가 전개되었다. 스티브 미란(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등 대중(對中) 강경파가 주도한 관세전쟁에 월가는 자해(自害)에 가까운 對트럼프 경고를 발했고, 이때부터 월가 출신의 스콧 베센트 美 재무장관이 정국(政局)의 전면에 나서면서 상호관세 부과가 90일 간(7월 9일까지) 유예되자 시장은 그때부터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였다(자료 7~8 참조). 일단 세계 밀어붙여 상대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끔 한다는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중국에는 지금까지 잘 통하지 않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늘 예상되던 중국의 반격 카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또 다시 대중 강경 정책을 느슨하게 하는 등 트럼프의 말 바꾸기와 입장 선회가 잦아지면서 ‘TACO: Trump Always Chinkens Out’이라는 조롱도 시장

에 등장하였다(자료 2 참조). 거기에 더하여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이래 계속 갈등을 빚으며 긴장을 고조시켜 왔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6월 13일(금요일)에 발발하였다.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수많은 이란 장성들과 핵(核) 과학자들이 사망하고 이란의 보복 공격에 텔아비브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등 수위를 높여가던 전쟁 상황은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6월 21일 밤 11시 경(이란 표준시로는 6월 22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경)에 전략폭격기 B2 7대와 벙커 버스터(GBU-57)가 동원된 이란 내 주요 핵 시설 폭격으로(이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는 듯했다. 그러나 이를 만에 트럼프는 전격적으로 ‘휴전 합의’를 선언하며 이번 전쟁을 아예 ‘12일 전쟁’으로 명명했는데(자료 4 참조), 필자 또한 CNBC 기사 제목처럼 이번 휴전 결의와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취약해(fragile)보인다.

[자료 4] 불쑥 튀어나온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



-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
- "공식적으로는 이란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12시간 후에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하고, **24시간 후에는 '12일간의 전쟁'의 공식 종식을 전 세계가 축하할 것**"
-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된다 가정하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이 '12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끈기와 용기, 지성을 가진 것을 축하하고 싶다"
- "**전쟁은 수년간 지속돼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Was it all 'just a big show?' Anxiety, frustration and hope for Middle East residents as Trump brokers fragile ceasefire TUE, JUN 24 2025 • CNBC

관세 정책이 감세(減稅)로 인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는 트럼프의 기대와 주장에 대해 학계와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美 연준(Fed)이 지난 6월 FOMC에서 제시한 업데이트된 경제전망은 3개월 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자료 5 참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무서운 용어를 함부로 가져다 붙일 정도는 아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상당수 연준 위원들

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세우며 트럼프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고 있는데, 트럼프의 지명으로 연준 이사가 된 두 사람(크리스토퍼 월러 & 미셸 바우먼)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료 5]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장) 간의 불협화음

Variable	Median ¹			
	2025	2026	2027	Longer run
Change in real GDP	1.4	1.6	1.8	1.8
March projection	1.7	1.8	1.8	1.8
Unemployment rate	4.5	4.5	4.4	4.2
March projection	4.4	4.3	4.3	4.2
PCE inflation	3.0	2.4	2.1	2.0
March projection	2.7	2.2	2.0	2.0
Core PCE inflation ⁴	3.1	2.4	2.1	
March projection	2.8	2.2	2.0	
Memo: Projected appropriate policy path				
Federal funds rate	3.9	3.6	3.4	3.0
March projection	3.9	3.4	3.1	3.0

2025년 6월 FOMC 경제전망(SEP)

- 금년 실질 GDP 성장률 하향 (1.7% → 1.4%)
- 금년 실업률 상향 (4.4% → 4.5%)
- PCE 인플레이션 상향 (2.7% → 3.0%)
- 근원 PCE 인플레이션 상향 (2.8% → 3.1%)
- 물가와 실업률은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보는 'stagflationary' 전망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Too Late" Jerome Powell is costing our Countr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He is truly one of the dumbest, and most destructive, people in Government, and the Fed Board is complicit. Europe has had 10 cuts, we have had none. We should be 2.5 Points lower, and save \$BILLIONS on all of Biden's Short Term Debt. We have LOW inflation! TOO LATE's an American Disgrace!

11.5k ReTruths 46.8k Likes

Jun 19, 2025, 11:04 PM



[자료 6] 미국의 경제지표 추이



[자료 6]에서 보듯이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는 역사적 고점 경신을 넘보는 증시를 정당화하기에 미흡하다. 경기선행지수는 우하향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최근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거기에다 고용지표 등에서 고질적으로 관찰되는 이전 통계치 하향 수정은 경기선행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보다 더 미국 제조업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필라델피아 제조업활동지수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돈 놓고 돈 먹기 성격이 강한 증시는 장기적으로는 외면하기 힘들지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지표의 부진과 상관없이 랠리를 펼쳐나가기도 한다. AI(인공지능) 열풍과 로봇 산업의 발전은 점점 사람들의 설 자리를 빼앗아가면서 기업들의 감원(減員)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출근할 곳 없어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식투자나 하자고 덤빈다면 증시는 호황을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 변동성 장세 이후 금융시장, 하반기에는 어디로?

2022년 4분기 이후 2년여의 기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자금이 물밀듯이 유입되면서 강세장을 이어오던 뉴욕증시는 기술적 과매수 부담이 가중되던 차에 ‘관세 충격’으로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에 이르는 급락세를 맞았다(자료 기 참조). 그러나 상호관세 부과 일주일 만에 90일 유예 조치가 발표되자 탄력적으로 반등에 나선 증시는 어느덧 ‘정배열’을 넘어 역사적 고점 경신도 노려볼 만한 위치에 이르렀다. 아직 해결 조짐이 안 보이는 관세문제, 개선보다는 악화의 양상을 보이는 경제지표,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출현 등에도 곳곳한 미국 증시는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쯤에는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강세장으로 진입할지 결국 ‘이중 천정(double-top)’에 막히면서 조정 장세를 좀 더 이어가야 할지가 결정될 듯하다.

[자료 기] 美 나스닥 종합지수 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6/20 장 마감 후)

[자료 8]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6/24일 현재, 이하 같음)

[자료 9]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주간차트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부과’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던 트럼프의 기세를 꺾은 것은 증시 급락이나 달러 약세보다도 미국 국채가격의 급락세(국채수익률의 급등세)였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자료 8) 참조).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준의 통화정책보다 10년물 국채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자료 9]의 미국채 만기 도래 현황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단 저지르고 본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재정 확대(돈 찍어서 돈 풀기)의 후과(後果)가 가까운 미래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다가온 것이다. 올 여름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권의 장기 국채 매입 여력을 키우고,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제도화하면서 그 담보로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는 이미 시장에서 간파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미국의 개입 과정에서 특별히 미국 국채가격이 오르지 않은 점은 “미국 국채는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통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달러 약세와 더불어 ‘미국의 신뢰도 저하’를 웅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료 10] KOSPI 월간차트



관세 충격이 몰아친 4월만 하더라도 2,300p를 하회했던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6월 24일 현재 3,103.64p로 마감하며 6월 들어서만 15%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아직 4거래일이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증시 역사상 최고의 월간 상승률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국내외적 인식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정책 수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역대급 강세장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자료 11]을 보면 이렇게까지 빨리 내달리는 것은 과열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2021년 6월 25일 이후를 비교한 [자료 12]나 순환매 성격의 매수세 유입 순서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여전히 눌리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의 위치를 지수와 비교한 [자료 13]을 보노라면 기술적 과매수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좀 더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월간차트에서 지수가 우상향 채널의 상단을 두 번째로 올라서고 있는데, 우리 증시를 달구고 있는 이런저런 기대감이 기대에 그치면서도 한 번의 버블 붕괴로 이어지기보다 기대를 현실로 바꿔 증시의 체질과 체력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자료 11] '해방의 날(4월 2일)' 이후 글로벌 증시 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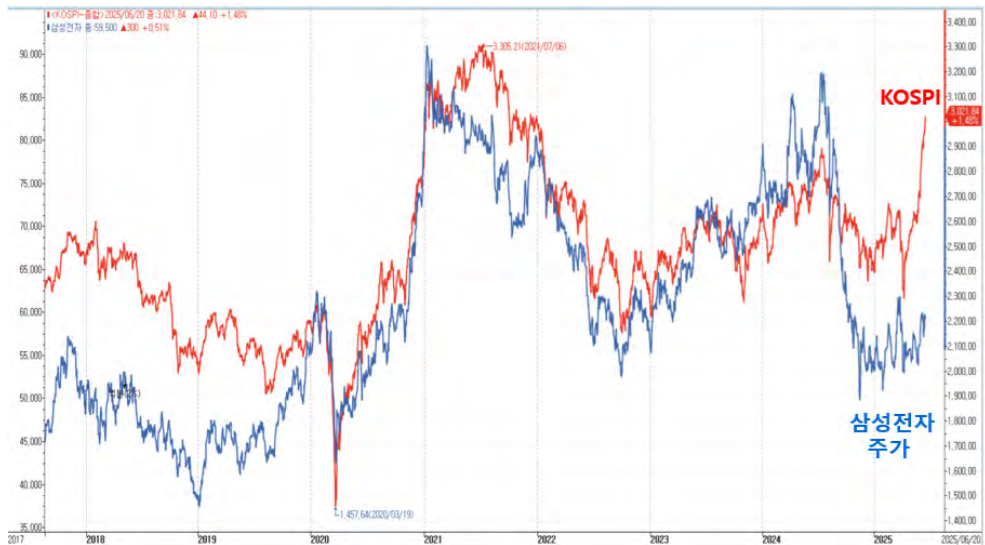
국가대표지수	기간설정	2025/04/03	2025/06/21	전일대비	등락률
국가	기준지수	기준말지수			
미국(PHLX)	4,320.75	5,211.48▲	890.73	20.62	
한국(KOSPI)	2,505.86	3,021.84▲	515.98	20.59	
한국(KOSDAQ)	684.85	791.53▲	106.68	15.58	
미국(NASDAQ)	17,601.05	19,447.41▲	1,846.36	10.49	
노르웨이	1,732.04	1,898.50▲	166.46	9.61	
인도	76,617.44	82,408.17▲	5,790.73	7.56	
일본	35,725.87	38,403.23▲	2,677.36	7.49	
호주	8,133.14	8,723.50▲	590.36	7.26	
포르투갈	6,958.00	7,444.96▲	486.96	7.00	
인도네시아	6,510.62	6,907.14▲	396.52	6.09	
그리스	1,708.89	1,802.06▲	93.17	5.45	
미국(S&P)	5,670.97	5,967.84▲	296.87	5.23	
오스트리아	4,126.97	4,334.65▲	207.68	5.03	
캐나다	25,307.18	26,497.57▲	1,190.39	4.70	

국가대표지수	기간설정	2025/04/03	2025/06/21	전일대비	등락률
국가	기준지수	기준말지수			
아르헨티나	2,356,530.75	2,064,099.00▼	292,431.70	-12.41	
태국	1,172.69	1,067.63▼	105.06	-8.96	
스위스	12,588.31	11,871.32▼	716.99	-5.70	
프랑스	7,858.83	7,589.66▼	269.17	-3.43	
튀르키예	9,523.31	9,203.37▼	319.94	-3.36	
중국(상해종합)	2,014.59	1,969.04▼	45.55	-2.26	
스웨덴	945.47	929.61▼	15.86	-1.68	
유로스톡스50	5,303.95	5,233.58▼	70.37	-1.33	
홍콩(항셍 H)	8,531.51	8,527.07▼	4.44	-0.05	
미국(DJI)	42,225.32	42,206.82▼	18.50	-0.04	
중국(상해종합)	3,350.13	3,359.90▲	9.77	0.29	
네덜란드	901.52	908.52▲	7.00	0.78	
홍콩(항셍)	23,202.53	23,530.48▲	327.95	1.41	
필리핀	6,247.68	6,339.77▲	92.09	1.47	

[자료 12] 지난 4년 동안의 글로벌 증시 성적표

국가대표지수	기간설정	2021/06/26	2025/06/21	전일대비	등락률
국가	기준지수	기준말지수	전일대비	등락률	
아르헨티나	65,133.47	2,064,099.00	▲ 1998965.50	3,069.03	
튀르키예	1,413.99	9,203.37	▲ 7789.38	550.88	
그리스	907.76	1,802.06	▲ 894.30	98.52	
미국(PHLX)	3,241.48	5,211.48	▲ 1970.00	60.77	
인도	52,925.04	82,408.17	▲ 29483.13	55.71	
노르웨이	1,223.57	1,898.50	▲ 674.93	55.16	
이탈리아	25,510.50	39,231.35	▲ 13720.85	53.79	
스페인	9,095.00	13,850.30	▲ 4755.30	52.28	
독일	15,607.97	23,350.55	▲ 7742.58	49.61	
폴란드	67,947.66	100,405.88	▲ 32458.22	47.77	
포르투갈	5,087.01	7,444.95	▲ 2357.95	46.35	
미국(S&P)	4,280.70	5,957.84	▲ 1687.14	39.41	
미국(NASDAQ)	14,360.39	19,447.41	▲ 5087.02	35.42	
일본	29,066.18	38,403.23	▲ 9337.05	32.12	
캐나다	20,230.26	26,497.57	▲ 6267.31	30.98	
유로스톡스50	4,120.66	5,233.58	▲ 1112.92	27.01	
대만	17,502.99	22,045.74	▲ 4542.75	25.95	
러시아	1,672.08	1,117.38	▼ 554.70	-33.17	
태국	1,582.67	1,067.63	▼ 515.04	-32.54	
한국(KOSDAQ)	1,012.13	791.53	▼ 220.60	-21.80	
홍콩(항셍 H)	10,878.45	8,527.07	▼ 2351.38	-21.62	
홍콩(항셍)	29,288.22	23,530.48	▼ 5757.74	-19.66	
중국(상해종합)	2,442.08	1,969.04	▼ 473.04	-19.37	
필리핀	6,950.51	6,339.77	▼ 610.74	-8.79	
한국(KOSPI)	3,302.84	3,021.84	▼ 281.00	-8.51	
중국(상해종합)	3,607.56	3,359.90	▼ 247.66	-6.87	
베트남	1,390.12	1,349.35	▼ 40.77	-2.93	
스위스	11,999.70	11,871.32	▼ 128.38	-1.07	
뉴질랜드	12,626.09	12,569.06	▼ 57.03	-0.45	
스웨덴	916.66	929.61	▲ 12.95	1.41	
벨기에	4,179.93	4,439.53	▲ 259.60	6.21	
브라질	127,255.61	137,115.83	▲ 9860.22	7.75	
덴마크	1,636.03	1,820.57	▲ 184.54	11.28	
프랑스	6,622.87	7,589.66	▲ 966.79	14.60	

[자료 13] 우리에게는 아직 삼성전자가 있다(尙有三電)



2. 환율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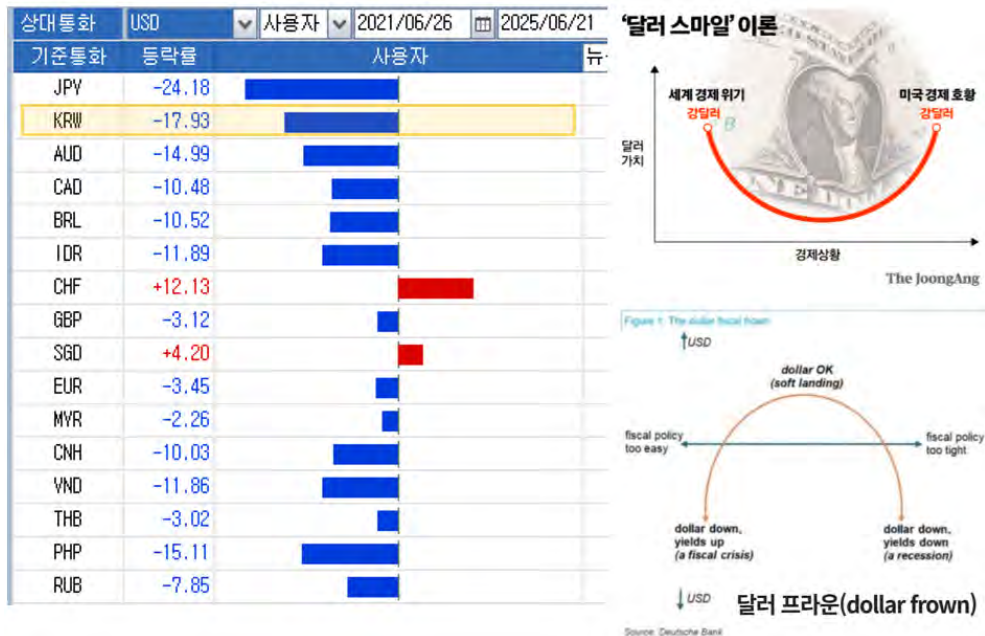
■ 달러 약세, 추세로 굳어질 것인가?

미국이(혹은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지만 아마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원하는 바는 모든 나라와 경제주체들이 달러(혹은 달러 표시 자산)를 함부로 내다 팔거나 달러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Strong Dollar’일 것이다. [자료 14]는 최근의 달러 약세가 더욱 심화될 것인지 이 정도에서 달러 가치가 반등할 것인지의 승부가 하반기 접어들면서 곧 결정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후행스팬이 가격대를 하향 관통했고 MACD 오실레이터도 양(+)에서 음(-)으로 전환해 이미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상향 점선으로 그려진 장기 추세선마저 무너지면 그 충격은 상당할 수 있다. 연준도 애초 약속해 온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하반기 중에는 단행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달러가 반등하려면 미국 이외 지역에서 큰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해야 할 듯하다.

[자료 14] 달러인덱스 월간 일목균형표



[자료 15] 지난 4년 동안 주요 통화별 달러 대비 절하율 및 절상률



코스피가 바닥을 치던 4월 9일에 1,487.60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대 진입을 걱정하게 했던 환율이 원고를 마무리하는 6월 24일에는 1,360원까지 내려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원화의 절상률은 러시아 루블화 다음으로 높는데, 같은 시기에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아웃퍼폼 한 것과 어우러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환율 측면에서도 지난 4년간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우리 원화는 일본 엔화 다음으로 약세를 보여 온 터라 하반기 들어 글로벌 달러 시세가 더욱 약해진다면 달러/원 환율의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트는 생략하지만 기술적으로 전망해 볼 때 이제 1,400 ~ 1,420원 구간은 제법 무거운 저항 구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아래쪽으로는 1,300 ~ 1,320원 구간에서 지지대가 형성될 듯하다.

곡물 시장의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김민수(에그스카우터 대표)*

5월 이후의 시카고 상품거래소 곡물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밀 가격은 5월 초반의 저점에서 오르는 장이 형성됐으며 6월 초반에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흑해를 비롯한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감이 밀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됐다. 옥수수 가격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펼쳤다. 미국 내 작황 상태와 기상 여건 변화에 주목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가격을 올렸다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밀, 옥수수와 달리 대두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형성됐다. 미중 양국의 무역 관계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의무적 혼입량 확대 이슈 등이 대두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다.

수급 측면에서 2025/26년 세계 밀, 옥수수 수급은 2024/25년 대비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감소하겠다. 대두의 경우 공급량과 수요량 모두 증가하겠으나 공급량 확대로 기말재고량은 약간 증가해 밀, 옥수수보다 수급 전망은 양호한 편이다.

외부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미중 무역 관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문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난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등이 주요 이슈로 시장에 영향을 줬다. 특히 중동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은 유가를 폭등시켰을 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로도 작용했다.

1. 시카고 상품거래소 곡물 선물가격 동향¹⁾

1.1 밀

2025년 5월 이후의 밀(연질 적색 겨울밀)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5년 7월물이 기준이 되는 5월 1주 차(5/1~5/8) 평균 가격은 5.34달러, 최고가는 5.43달러, 최저가는 5.29달러이다. 가격은 5.31달러에서 개시되어 5.29달러로 거래를 마쳤으

* agscouter@naver.com

1)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부셸당 가격임

며 주간 가격은 0.02달러 하락했다. 달러 약세, 기술적인 매수세, 공매도 청산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으나,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고 미국 대평원 일대 비 소식과 겨울밀 작황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됐다.

5월 2주 차(5/9~5/15) 평균 가격은 5.22달러, 최고가는 5.33달러, 최저가는 5.15달러이다. 가격은 5.22달러에서 개시되어 5.33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1달러 상승했다.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기술적인 매수세가 가격을 상승세로 이끌었으며, 미국의 양호한 수출 판매 실적 역시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줬다.

5월 3주 차(5/16~5/23) 평균 가격은 5.39달러, 최고가는 5.49달러, 최저가는 5.25달러이다. 가격은 5.25달러에서 개시되어 5.43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8달러 상승했다. 미국 내 겨울밀 생육 상태 악화와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 강한 상승압력을 받았으며,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기상 여건 악화 역시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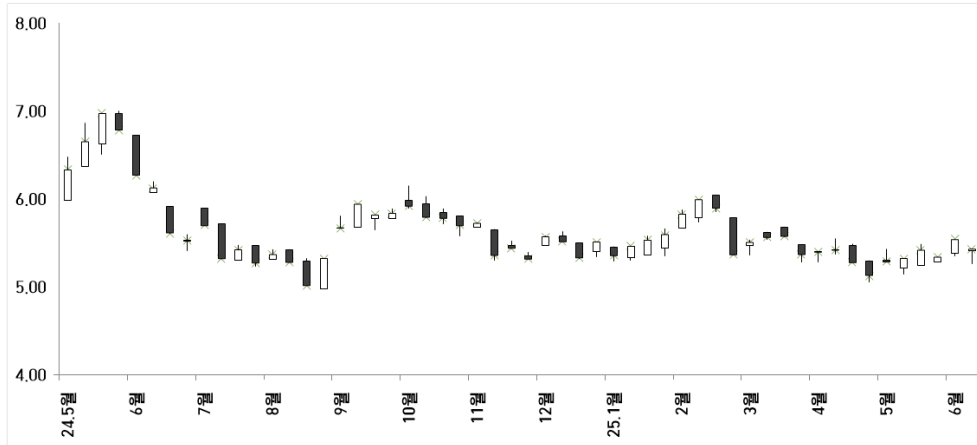
5월 4주 차(5/24~5/31) 평균 가격은 5.32달러, 최고가는 5.34달러, 최저가는 5.29달러이다. 가격은 5.29달러에서 개시되어 5.34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5달러 상승했다.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미국 내 겨울밀과 봄밀의 생육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자 낙폭을 대거 줄였다.

6월 1주 차(6/1~6/8) 평균 가격은 5.44달러, 최고가는 5.55달러, 최저가는 5.36달러이다. 가격은 5.39달러에서 개시되어 5.55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6달러 상승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평화 협상 난항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습으로 인한 긴장감 고조에 가격은 상승세로 나아갔다. 미국 대평원 일대 폭우로 인한 겨울밀 수확 지연 가능성 역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6월 2주 차(6/9~6/15) 평균 가격은 5.36달러, 최고가는 5.44달러, 최저가는 5.27달러이다. 가격은 5.42달러에서 개시되어 5.44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2달러 상승했다. 미국의 양호한 작황 상태와 달러 강세로 인해 가격은 내려갔으나,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그림 1〉 CME 밀(SRW)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셀)



자료: CME

1.2 옥수수

2025년 5월 이후의 옥수수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5년 7월물이 기준이 되는 5월 1주 차(5/1~5/8) 평균 가격은 4.59달러, 최고가는 4.72달러, 최저가는 4.48달러이다. 가격은 4.72달러에서 개시되어 4.4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24달러 하락했다. 미국의 에탄올 착유 실적 부진과 유가 하락 등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가격은 큰 폭으로 내려갔다.

5월 2주 차(5/9~5/15) 평균 가격은 4.47달러, 최고가는 4.50달러, 최저가는 4.43달러이다. 가격은 4.50달러에서 개시되어 4.49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1달러 하락했다.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은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으나 미국 내 파종 속개 소식으로 인해 상승분은 반납됐다. 브라질의 생산 확대 전망으로 인해 약보합으로 마무리됐다.

5월 3주 차(5/16~5/23) 평균 가격은 4.55달러, 최고가는 4.63달러, 최저가는 4.44달러이다. 가격은 4.44달러에서 개시되어 4.6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6달러 상승했다. 미국 주요 산지 홍수 피해 우려로 시장 참가자들은 가격을 끌어올렸으며 에탄올용 옥수수 공급 실적 증가 역시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다.

5월 4주 차(5/24~5/31) 평균 가격은 4.50달러, 최고가는 4.60달러, 최저가는 4.44달러이다. 가격은 4.60달러에서 개시되어 4.44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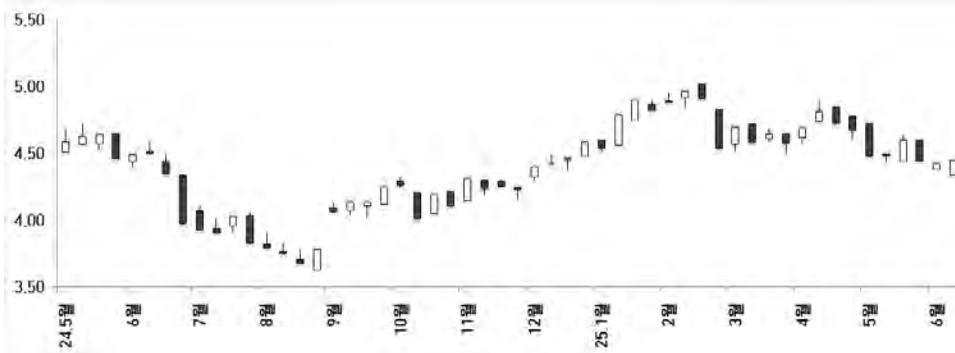
달러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과 미국의 수출 판매 실적 부진, 양호한 작황 상태로 인해 약세를 나타냈다.

6월 1주 차(6/1~6/8) 평균 가격은 4.40달러, 최고가는 4.43달러, 최저가는 4.38달러이다. 가격은 4.38달러에서 개시되어 4.43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5달러 상승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과 반발 매수세로 인해 가격의 하락세는 꺾였으며 소폭 반등하는 장이 형성됐다. 미국 중서부 산지 폭우로 인해 파종 면적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 역시 가격 하락세를 제어했다.

6월 2주 차(6/9~6/15) 평균 가격은 4.38달러, 최고가는 4.45달러, 최저가는 4.34달러이다. 가격은 4.34달러에서 개시되어 4.45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1달러 상승했다. 미국 중서부 양호한 날씨와 작황 개선 기대감에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 감소 전망으로 인해 상승세로 전환됐다.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유가 폭등 역시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다.

〈그림 2〉 CME 옥수수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셀)



자료: CME

1.3 대두

2025년 5월 이후의 대두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5년 7월물이 기준이 되는 5월 1주 차(5/1~5/8) 평균 가격은 10.45달러, 최고가는 10.50달러, 최저가는 10.39달러이다. 가격은 10.50달러에서 개시되어 10.45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5달러 하락했다. 미국의 수출 판매 실적 증가,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인해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과 파종 진척으로 인해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5월 2주 차(5/9~5/15) 평균 가격은 10.65달러, 최고가는 10.78달러, 최저가는 10.51달러이다. 가격은 10.52달러에서 개시되어 10.51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1달러 하락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 상호관세 인하에 주목하면서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약보합세로 마무리됐다.

5월 3주 차(5/16~5/23) 평균 가격은 10.57달러, 최고가는 10.68달러, 최저가는 10.50달러이다. 가격은 10.50달러에서 개시되어 10.6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0달러 상승했다. 브라질의 기록적인 생산 전망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가격은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미국 중부 지역 기상 악화로 인한 파종 지연 우려로 인해 상승세로 전환됐다.

5월 4주 차(5/24~5/31) 평균 가격은 10.51달러, 최고가는 10.63달러, 최저가는 10.42달러이다. 가격은 10.63달러에서 개시되어 10.42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21달러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소규모 정유업체에 대한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 면제 건을 처리할 것이란 소식에 가격은 내려갔으며 수출 판매 실적 부진과 브라질의 기록적인 생산 전망 역시 가격 하락을 견인했다.

6월 1주 차(6/1~6/8) 평균 가격은 10.46달러, 최고가는 10.57달러, 최저가는 10.34달러이다. 가격은 10.34달러에서 개시되어 10.57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23달러 상승했다. 미국 내 기상 여건 양호와 파종 속개 기대감, 브라질의 생산량 확대 전망 등으로 인해 가격은 일시 내려갔으나 중서부 및 대평원 일대에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에 반등했으며 미중 양국의 무역 관계 개선 기대감 역시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다.

6월 2주 차(6/9~6/15) 평균 가격은 10.55달러, 최고가는 10.70달러, 최저가는 10.42달러이다. 가격은 10.56달러에서 개시되어 10.7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4달러 상승했다. 미중 2차 무역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가격은 내려갔으나, 미 환경보호청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혼입량 제안과 유가 폭등으로 인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림 3〉 CME 대두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셀)



자료: CME

2. 수급 지표와 곡물 선물가격 변동 요인

2.1 밀

2.1.1 세계 밀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밀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6월 전망은 5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5% 감소했으나 수입량이 0.6%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수출량이 각각 0.2%, 0.6%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1.1%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은 25.7%로 5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2024/25년 대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1.9% 감소했으나 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1.1%, 6.6%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수출량이 각각 0.6%, 4.1%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0.5%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2024/25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표 1〉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6(A)	263.98	808.59	210.93	809.80	214.33	262.76	25.7
25/26.5(B)	265.21	808.52	209.65	808.00	212.99	265.73	26.0
24/25(C)	268.96	799.91	197.91	804.90	205.91	263.98	26.1
증감률(A/B)	-0.5	0.0	0.6	0.2	0.6	-1.1	
증감률(A/C)	-1.9	1.1	6.6	0.6	4.1	-0.5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1.2 밀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미국 시장의 겨울밀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6월 초반 출수 단계 진입률이 90%에 가까워졌으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초부터 수확이 시작됐으며 수확 속도는 최근 5년 평균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Good-To-Excellent, GTE)은 작년보다 양호한 편이며 6월 8일 기준 54%로 작년 동기 대비 7%포인트 올랐다.

〈표 2〉 미국 농무부의 겨울밀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5/4	5/11	5/18	5/25	6/1	6/8
출수율	39(33)	53(45)	64(58)	75(70)	83(79)	88(86)
수확률					3(3)	4(7)
GTE	51(50)	54(50)	52(49)	50(48)	52(49)	54(47)

※ 출수율, 수확률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봄밀은 6월 초에 파종이 마무리되고 발아 단계 진입률도 80%를 넘어섰다. 최근 5년 평균보다 파종 및 발아 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Good-To-Excellent, GTE)은 좋지 못한 편이며 6월 8일 기준 53%로 작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내렸다.

〈표 3〉 미국 농무부의 봄밀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5/4	5/11	5/18	5/25	6/1	6/8
파종률	44(34)	66(49)	82(65)	87(80)	95(90)	
발아율	13(9)	27(19)	45(34)	60(53)	73(69)	82(81)
GTE				45	50(74)	53(72)

※ 파종률, 발아율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2025/26년 미국의 밀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6월 전망은 5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변동 없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량이 3.1%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2.7%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45.3%로 5월 전망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2024/25년 대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20.8% 증가했으나 생산량과 수입량이 각각 2.6%, 19.9%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수출량이 각각 0.2%, 0.6%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6.8% 증가했으며 재고 비율도 2024/25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표 4〉 미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6(A)	22.90	52.28	3.27	31.54	22.45	24.45	45.3
25/26.5(B)	22.90	52.28	3.27	31.54	21.77	25.12	47.1
24/25(C)	18.95	53.65	4.08	31.48	22.32	22.90	42.6
증감률(A/B)	0.0	0.0	0.0	0.0	3.1	-2.7	
증감률(A/C)	20.8	-2.6	-19.9	0.2	0.6	6.8	

※ 재고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밀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6월 12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4,540만 에이커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해서는 70만 에이커 감소했다. 생산 면적은 3,720만 에이커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130만 에이커 감소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6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51.6부셸로 제시되어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0.4부셸 증가했다.

〈표 5〉 미국의 밀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5월 전망	6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46.1	45.4	45.4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38.5	37.2	37.2
단위당 수확량(부셀/에이커)	51.2	51.6	51.6

자료: USDA WASDE, Acreage

나. 유럽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을 2,300만 톤, 수출량을 1,65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7% 감소함에 반해 수출량은 3.1%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러시아의 밀 생산량을 8,300만 톤, 수출량을 4,5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7%, 수출량은 3.4%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을 1억 3,655만 톤, 수출량을 3,45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1.8%, 수출량은 30.2% 증가할 전망이다.

다. 기타

호주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호주의 밀 생산량을 3,100만 톤, 수출량을 2,3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9.1%, 수출량은 8.0% 감소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캐나다의 밀 생산량을 3,600만 톤, 수출량을 2,7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3.0% 감소함에 반해 수출량은 변동 없을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을 1,450만 톤, 수출량을 8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22.0%, 수출량은 20.0% 감소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을 2,000만 톤, 수출량을

1,3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7.9%, 수출량은 18.2%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인도의 밀 생산량을 1억 1,751만 톤으로 제시했으며 수출 통제로 인해 밀 수출량은 2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3.7%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밀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밀 생산량을 1억 4,200만 톤, 수입량을 6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4%, 수입량은 2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2.2 옥수수

2.2.1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6월 전망은 5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8% 감소했으나 생산량이 0.1%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1%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0.9%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은 18.7%로 5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2024/25년 대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9.8% 감소했으나 생산량과 수입량이 각각 3.5%, 2.4%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수출량이 각각 1.7%, 3.1%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3.4%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2024/25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표 6〉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6(A)	285.04	1265.98	187.48	1275.79	195.82	275.24	18.7
25/26.5(B)	287.29	1264.98	187.48	1274.43	195.81	277.84	18.9
24/25(C)	315.90	1223.33	183.04	1254.18	189.94	285.04	19.7
증감률(A/B)	-0.8	0.1	0.0	0.1	0.0	-0.9	
증감률(A/C)	-9.8	3.5	2.4	1.7	3.1	-3.4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2.2 옥수수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미국 시장의 옥수수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6월 초반 파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발아 단계 진입률도 90%에 가까워졌다. 5월 말까지 파종 및 발아 속도는 최근 5년 평균보다 앞섰으나 이후로는 거의 같아졌다.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Good-To-Excellent, GTE)은 작년 대비 좋지 못한 편이다. 6월 8일 기준 옥수수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은 71%로 작년 동기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표 7〉 미국 농무부의 옥수수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5/4	5/11	5/18	5/25	6/1	6/8
파종률	40(39)	62(56)	78(73)	87(85)	93(93)	97(97)
발아율	11(9)	28(21)	50(40)	67(60)	78(77)	87(87)
GTE				68	69(75)	71(74)

※ 파종률, 발아율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2025/26년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6월 전망은 5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3.5%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변동 없었으며 기말재고량은 2.8% 감소했다. 재고 비율은 11.3%로 5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2024/25년 대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22.6% 감소했으나 생산량이 6.4%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수출량이 각각 1.1%, 1.0% 증가했다. 재고 비율은 2024/25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표 8〉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6(A)	34.68	401.85	0.64	324.75	67.95	44.46	11.3
25/26.5(B)	35.95	401.85	0.64	324.75	67.95	45.73	11.6
24/25(C)	44.79	377.63	0.64	321.07	67.31	34.68	8.9
증감률(A/B)	-3.5	0.0	0.0	0.0	0.0	-2.8	
증감률(A/C)	-22.6	6.4	0.0	1.1	1.0	28.2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변화를 살펴보면 6월 12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9,530만 에이커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470만 에이커 증가했다. 생산 면적은 8,740만 에이커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450만 에이커 증가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6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181.0부셸로 제시되어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1.7부셸 증가했다.

〈표 9〉 미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5월 전망	6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90.6	95.3	95.3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82.9	87.4	87.4
단위당 수확량(부셸/에이커)	179.3	181.0	181.0

자료: USDA WASDE, Acreage

나. 남미

브라질 곡물공급공사인 CONAB은 6월 12일 2024/25년 브라질의 옥수수 수급 전망을 발표했으며 전체 생산량은 1억 2,825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11.0% 증가했으나 2022/23년 대비 2.8% 감소했다. 1기작 생산량은 2,482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2022/23년 대비 9.3% 감소했다. 2기작 생산량은 1억 101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12.2% 증가했으나 2022/23년 대비 1.3% 감소했다. 3기작 생산량은 242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2.4% 감소했으나 2022/23년 대비 12.6% 증가했다. 수출량은 3,400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11.7%, 2022/23년 대비 37.8% 감소했다.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을 1억 3,100만 톤, 수출량을 4,3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0.8% 증가함에 반해 수출량은 변동 없을 전망이다.

〈표 10〉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구분	2022/23	2023/24	(단위: 백만 톤)
			2024/25
전체 생산량	131.89	115.50	128.25
1기작 생산량	27.37	22.96	24.82
2기작 생산량	102.37	90.06	101.01
3기작 생산량	2.15	2.48	2.42
수출량	54.63	38.50	34.00

자료: CONAB, SAFRA 2024/25 9th Levantamento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5,300만 톤, 수출량을 3,7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6.0%, 수출량은 7.2% 증가할 전망이다.

다. 유럽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3,050만 톤, 수출량을 2,4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3.8%, 수출량은 9.1%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을 6,000만 톤, 수입량을 2,05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2%, 수입량은 2.5% 증가할 전망이다.

라. 기타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량을 1,650만 톤, 수출량을 19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4.8% 증가하겠으며 수출량도 40만 톤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캐나다의 옥수수 생산량을 1,470만 톤, 수출량을 21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4.2% 감소하겠으며, 수출량도 50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을 2,450만 톤, 수입량을 2,5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5.2% 증가함에 반해 수입량은 변동 없을 전망이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을 2억 9,500만 톤, 수입량을 1,0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변동 없겠으나, 수입량은 3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2.3 대두

2.3.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6월 전망은 5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8%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변동 없었으며 기말재고량은 0.8% 증가했다. 재고 비율은 20.5%로 5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2024/25년 대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 생산량, 수입량이 각각 7.7%, 1.4%, 4.8%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수출량이 각각 3.6%, 4.1%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0.9% 증가했으며 재고 비율은 2024/25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6(A)	124.20	426.82	186.86	424.15	188.43	125.30	20.5
25/26.5(B)	123.18	426.82	186.82	424.05	188.43	124.33	20.3
24/25(C)	115.31	420.78	178.28	409.23	180.93	124.20	21.0
증감률(A/B)	0.8	0.0	0.0	0.0	0.0	0.8	
증감률(A/C)	7.7	1.4	4.8	3.6	4.1	0.9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3.2 대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미국 시장의 대두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6월 초반 파종이 90% 완료됐으며 발아 단계 진입률도 75%까지 도달했다. 전반적으로 파종 및 발아 속도는 최근 5년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Good-To-Excellent, GTE)은 작년 대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8일 기준 대두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은 68%로 작년 동기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표 12〉 미국 농무부의 대두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5/4	5/11	5/18	5/25	6/1	6/8
파종률	30(23)	48(37)	66(53)	76(68)	84(80)	90(88)
발아율	7(5)	17(11)	34(23)	50(40)	63(57)	75(72)
GTE					67	68(72)

※ 파종률, 발아율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2025/26년 미국의 대두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6월 전망은 5월 전망 대비 변동 없었다. 2024/25년 대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2.3% 증가했으나 생산량과 수입량이 각각 0.6%, 20.6%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2.6% 증가했으나 수출량이 1.9% 감소했다. 기말재고량은 15.7%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은 6.7%로 2024/25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표 13〉 미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A)	9.53	118.12	0.54	70.76	49.40	8.03	6.7
25/26.5(B)	9.53	118.12	0.54	70.76	49.40	8.03	6.7
24/25(C)	9.32	118.84	0.68	68.96	50.35	9.53	8.0
증감률(A/B)	0.0	0.0	0.0	0.0	0.0	0.0	
증감률(A/C)	2.3	-0.6	-20.6	2.6	-1.9	-15.7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대두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변화를 살펴보면 6월 12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8,350만 에이커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360만 에이커 감소했다. 생산 면적은 8,270만 에이커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340만 에이커 감소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6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52.5부셸로 5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1.8부셸 증가했다.

〈표 14〉 미국의 대두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5월 전망	6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87.1	83.5	83.5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86.1	82.7	82.7
단위당 수확량(부셀/에이커)	50.7	52.5	52.5

자료: USDA WASDE, Acreage

나. 남미

브라질 곡물공급공사인 CONAB은 2024/25년 브라질의 대두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며 6월 12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은 1억 6,961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14.8%, 2022/23년 대비 9.7% 증가했다. 수출량은 1억 624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7.5%, 2022/23년 대비 4.3% 증가했다.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을 1억 7,500만 톤, 수출량을 1억 1,2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3.6%, 수출량은 7.2% 증가할 전망이다.

〈표 15〉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구분	2022/23	2023/24	(단위: 백만 톤)
			2024/25
생산량	154.61	147.72	169.61
수출량	101.86	98.81	106.24

자료: CONAB, SAFRA 2024/25 9th Levantamento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을 4,850만 톤, 수출량을 45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0% 감소함에 반해 수출량은 7.1% 증가할 전망이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을 1,100만 톤, 수출량을 77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7.8%, 수출량은 13.2% 증가할 전망이다.

다. 기타

중국의 대두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대두 생산량을 2,100만 톤, 수입량을 1억 1,2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7%, 수입량은 3.7%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을 295만 톤, 수입량을 1,43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0% 증가하고 수입량은 2.1% 감소할 전망이다.

3. 외부 시장과 곡물 선물가격 변동 요인

2025년 5월 1주 차(5/1~5/8)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5월 1일 빅테크 기업인 MS 및 메타의 1분기 호실적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달러 가치는 올랐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유가는 상승했다. 외부 시장의 혼조 양상으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가 상승에 힘입어 대두 가격은 올랐다. 5월 2일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와 미중 무역 관계 개선 기대감에 뉴욕 증시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자 달러 가치는 하락한 가운데 OPEC+가 증산을 위한 회의를 앞당겼다는 소식에 유가는 반락했다. 수급적인 영향으로 옥수수 가격은 내려가고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기술적인 매수세와 공매도 청산으로 인해 밀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5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외국 영화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으며 달러 가치도 내려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현재 통화할 계획이 없지만 미중 간 관세 협상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OPEC+의 증산 이슈로 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주요 곡물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5월 6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열렸으며 다음날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시장 참가자들은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뉴욕 증시를 약세로 이끌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달러 가치는 내렸다. 최근 유가가 급락하자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기업들이 생산량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유가는 급등했다. 외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옥수수와

밀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미국 내 파종 진척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하락했다. 5월 7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뉴욕 증시는 상승했으며 미중 긴장 관계 해소 기대감에 달리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주간 휘발유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자 유가는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영향과 미국 내 주간 에탄올용 옥수수 소비 실적 둔화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하락했으며 대두와 밀 가격도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다. 5월 8일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해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으며 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달려 가치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대내외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매도세로 옥수수와 밀 가격은 하락했으나 유가 강세로 인해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표 16〉 5월 1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5/1	5/2	5/5	5/6	5/7	5/8
DOW	40752.96	41317.43	41218.83	40829.00	41113.97	41368.45
Dollar Index	100.248	100.030	99.831	99.238	99.614	100.640
WTI(25.7월물)	58.68	57.83	56.75	58.68	57.70	59.52
옥수수(25.7월물)	472.25	469.00	454.25	455.50	449.25	447.50
밀(SRW,25.7월물)	531.00	543.00	531.25	536.00	534.25	529.25
대두(25.7월물)	1050.25	1058.00	1045.50	1041.25	1039.25	1045.00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5월 2주 차(5/9~5/15)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5월 9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시장 관망 속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으며 유가는 이를 연속 상승했다. 전일 큰 폭으로 올랐던 달러 가치는 조정을 받아 소폭 내려가는 장이 형성됐다.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옥수수 가격은 소폭 반등했으며 대두 가격도 올랐다. 미국 내 작황 개선과 글로벌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해 밀 가격의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5월 12일 미중 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뉴욕 증시는 급등했다. 달러 가치도 큰 폭으로 올랐으며 유가도 상승하는 장이 형성됐다. 미국 농무부의 수급 전망으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내렸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 상호관세 인하에 주목하면서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5월 13일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와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주목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상승했으나 다우지수는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다. 달러 가치는 내려간 가운데 유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압박 발언으로 인해 강세를 이어갔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파종 속개 소식

에 옥수수 가격은 하락했다. 기술적인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대두 및 밀 가격은 상승했다. 5월 14일 특별한 이슈는 나오지 않아 뉴욕 증시는 큰 변동 없었으며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소폭 오르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다. 숏커버링으로 달러 가치는 소폭 오른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해 유가는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밀 가격은 상승했으며 바이오 연료 이슈로 인해 대두 가격도 올랐다. 5월 15일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혼조세로 장을 종료했다. 달러 가치는 내려간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타결 기대감에 유가는 하락했다. 대내외 엇갈린 지표들 속에 옥수수, 밀 가격은 올랐으나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대두 가격은 반락했다.

〈표 17〉 5월 2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셀)

품목	5/9	5/12	5/13	5/14	5/15
DOW	41249.38	42410.10	42140.43	42051.06	42322.75
Dollar Index	100.339	101.788	101.003	101.039	100.879
WTI(25.7월물)	60.58	61.56	63.25	62.68	61.15
옥수수(25.7월물)	449.75	448.00	442.50	445.50	448.50
밀(SRW,25.7월물)	521.75	515.25	517.25	524.75	532.75
대두(25.7월물)	1051.75	1071.25	1072.50	1077.75	1051.2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5월 3주 차(5/16~5/23)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5월 16일 미국의 5월 소비자심리지수 둔화와 기대 인플레이션 급상승에 달러 가치는 오른 가운데 미중 무역 충돌 완화 여파로 인해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유가를 상승세로 이끌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하락했다. 브라질의 기록적인 생산 전망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대두 가격도 내려가는 장세가 형성됐다. 5월 19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한 데 따른 여파로 뉴욕 증시의 상승세는 제한을 받았으며 강보합세로 장을 끝마쳤다. 달러 가치는 내렸으며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순조롭지 않아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미국의 주간 수출 검사 실적 양호와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상승했다. 대두 가격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5월 20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는 나오지 않

은 가운데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아 하락했다. 유가 역시 시장 관망세로 인해 소폭 내려가는 장이 형성됐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여파로 인해 달러 가치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미국의 양호한 파종 및 생육 현황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서부 비 소식과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미국 내 겨울밀 생육 상태 악화와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 밀 시장은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다. 5월 21일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금리가 급등하자 시장은 동요했으며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에 달러 가치는 내려간 가운데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5월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도세로 인해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감소와 S&P 5월 제조업 PMI 상승 등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OPEC+가 추가 증산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기술적인 매수세로 옥수수, 대두 가격은 상승했으나 달러 강세로 인해 밀 가격은 하락했다.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달러 가치도 내려갔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불확실성에 유가는 반등했다. 기술적인 매도세와 차익실현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표 18〉 5월 3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5/16	5/19	5/20	5/21	5/22	5/23
DOW	42654.74	42792.07	42677.24	41860.44	41859.09	41603.07
Dollar Index	101.092	100.426	100.118	99.559	99.960	99.112
WTI(25.7월물)	61.97	62.14	62.03	61.57	61.20	61.53
옥수수(25.7월물)	443.50	447.50	454.50	461.00	463.00	459.50
밀(SRW,25.7월물)	525.00	529.00	546.00	549.25	544.50	542.50
대두(25.7월물)	1050.00	1050.75	1053.00	1062.75	1067.50	1060.2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5월 4주 차(5/24~5/31)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5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의 관세 부과를 한 달 남짓 유예하자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도 올랐다. 익일 OPEC+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증산 가능성에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밀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옥수수는 보합을 나타냈으며 대두 가격은 반발 매수

세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5월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됐으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으로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과 이란과의 핵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는 올랐다. 미국내 작황 상황에 주목하며 옥수수, 대두 가격은 하락하고 밀 가격은 상승하는 장이 형성됐다. 5월 29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 위험 산호 심리가 살아났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해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 성장을 잠정치가 내려가고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자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미국 내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OPEC+의 증산 가능성에 유가는 내려갔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가격은 추가 하락했으나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대두, 밀 가격은 상승했다. 5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으로 양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상태에서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불만이 서로 제기되자 뉴욕 증시는 출렁거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히자 변동성은 축소되는 장이 형성됐다.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경제지표에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OPEC+의 증산 가능성에 주목하며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 실적 부진과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장이 형성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소규모 정유업체에 대한 바이오연료 혼입 의무화 면제 건을 처리할 것이란 소식에 대두 가격도 내려갔으나 밀은 보합을 나타냈다.

〈표 19〉 5월 4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5/27	5/28	5/29	5/30
DOW	42343.65	42098.70	42215.73	42270.07
Dollar Index	99.521	99.875	99.278	99.329
WTI(25.7월물)	60.89	61.84	60.94	60.79
옥수수(25.7월물)	459.50	451.00	447.00	444.00
밀(SRW,25.7월물)	528.50	530.25	534.00	534.00
대두(25.7월물)	1062.50	1048.50	1051.75	1041.7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6월 1주 차(6/1~6/8)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6월 2일 미중 정상 간의 통화화 거는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OPEC+가 증산 속도를 종전과 같이 유지키로 했으며 증산을 늘릴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자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대내외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하락하는 장이 형성됐다. 달러 약세에 따른 외부 시장의 영향과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밀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6월 3일 미중 정상 대화 가능성에 시장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틀째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승률 둔화에 달러 가치는 올랐다. 캐나다 앨버타주 산불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과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해 유가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과 반발 매수세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반등했으나, 달러 강세와 기술적인 매도세로 밀 가격은 반락했다. 6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혀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으며 뉴욕 증시는 큰 변동 없이 혼조세로 장을 끝마쳤다. 경제지표 부진에 달러 가치는 내려갔으며 유가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사우디가 추가 증산을 바라고 있어 이 점이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평화 협상 난항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인한 긴장감 고조에 밀 가격은 상승세로 나아갔다. 6월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듯했으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정부효율부 수장에서 내려온 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이 심화하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증가하자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유가는 상승했다. 미중 양국의 무역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흑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과 미국 대평원 일대 폭우로 인해 밀 가격도 상승했다. 6월 6일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으며 달러도 강세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 긴장 관계 완화와 미국 내 경제지표 개선으로 유가 역시 오르는 장이 형성됐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과 미중 무역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흑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과 곡물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해 밀 가격은 강세를 나타냈다.

〈표 20〉 6월 1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셀)

품목	6/2	6/3	6/4	6/5	6/6
DOW	42305.48	42519.64	42427.74	42319.74	42762.87
Dollar Index	98.706	99.227	98.787	98.741	99.190
WTI(25.7월물)	62.52	63.41	62.85	63.37	64.58
옥수수(25.7월물)	438.25	438.50	438.75	439.50	442.50
밀(SRW,25.7월물)	539.00	536.00	543.25	545.50	554.75
대두(25.7월물)	1033.50	1040.75	1045.00	1051.75	1057.2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6월 2주 차(6/9~6/15)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6월 9일 영국 런던에서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됐으며 별다른 소득 없이 다음날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뉴욕 증시는 보합세로 장을 끝마쳤다. 달러 가치는 소폭 내려갔으며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유가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양호한 날씨와 작황 개선 기대감에 옥수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두 가격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매도세로 밀 가격은 하락했다. 6월 10일 미중 2차 무역협상이 이틀째 이어졌으며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낙관하는 분위기를 보여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도 올랐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유가는 조정을 받아 하락했다.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반등했으며 미중 무역협상에 거는 기대감에 대두 가격도 올랐다. 양호한 작황 상태와 달러 강세로 인해 밀 가격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6월 11일 미중 2차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으며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해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도 내렸다.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 비필수 인력을 대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란은 핵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자 유가는 폭등했다. 시장 관망세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소폭 하락하는 장이 형성됐다. 6월 12일 미국의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전일 급등했던 유가는 조정을 받아 소폭 내려갔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상승했으나 대두 및 밀 가격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져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유가는 폭등했다.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에 밀 가격은 급등했으

며 옥수수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미 환경보호청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혼입량 제안과 유가 폭등으로 인해 대두 가격도 급등했다.

〈표 21〉 6월 2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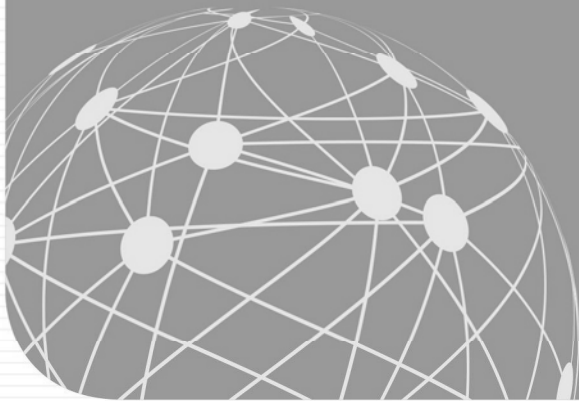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6/9	6/10	6/11	6/12	6/13
DOW	42761.76	42866.87	42865.77	42967.62	42197.79
Dollar Index	98.939	99.098	98.631	97.921	98.184
WTI(25.7월물)	65.29	64.98	68.15	68.04	72.98
옥수수(25.7월물)	433.50	438.75	437.00	438.50	444.50
밀(SRW,25.7월물)	542.00	534.50	534.25	526.50	543.75
대두(25.7월물)	1056.00	1057.75	1050.50	1042.25	1069.7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Issue Box〉 71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Issue Box

<Issue Box> 제1편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산업 실태와 시사점¹⁾

허덕*

1. 서론

러·우 전쟁 발발(2022.2.24.) 이후, 국제 곡물 및 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농축산물 생산 및 수출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러·우 전쟁이 국제 곡물 및 자재 가격과 농축산물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특히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 및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러·우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대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쟁 기간 중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통로가 되었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러·우 전쟁이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2022년 전쟁 발발 전과 후로 나누어 2023/24년도까지의 우크라이나 곡물을 비롯한 농업부문에 발생한 피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4장에서는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곡물 및 농업부문을 전망해 본다. 5장 맺음말에서는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의 피해를 요약해 보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 달러 대 원화 그리고 유로화 대 원화 환율 및 우크라이나 흐리브냐 대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플러스’ 앱의 2025년 3월 말일 기준 환율인 1,470원/달러, 1,593원/유로, 35.82원/우크라이나 흐리브냐를 적용하였다.

*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교수(huhduk@krei.re.kr)

1) 이 글에 앞서 허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2권 6호(2023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먼저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2025년 2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이 결렬되고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곧바로 광물협정²⁾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러시아와 종전협상에 나섰다. 3월 18일 미·러 간 30일간 휴전협상에 합의한 바도 있지만³⁾ 2025년 5월 중순까지 휴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⁴⁾.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우 전쟁이 조만간 휴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⁵⁾

2)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리튬, 티타늄 등 전략 자원에 접근하려는 협상이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군사 장비에 필요한 자원을 중국 의존 없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재건 기금을 얻고,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협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용은 자원 수익의 일부(50%)를 공동 기금으로 만들고, 재건에 사용하는 걸 골자로 한다. 다만, 2025년 3월 현재 미국의 안보 보장이 빠져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Q.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이 내용이 뭔가요??'에 대한 답변, 2025년 2월 27일 게재, <https://kin.naver.com/qna/>)

3) 헤럴드경제, '미국-우크라 "30일 휴전 동의'美 군사지원 재개'...트럼프 "이제 우린 러시아로 간다', 2025년 3월 12일자 게재, <https://v.daum.net/v/20250312100007123>)

4) 연합뉴스, '美, 우크라 휴전 조속타결 가능성 희박 판단, "푸틴에 좌절감"', 2025년 4월 2일자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05313>) 및 서울신문, '러 폭격에 젤렌스키 'SOS' 외쳐...그러나 트럼프의 선택은 '골프'', 2025년 4월 7일자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31253>) 및 연합뉴스, '말뿐인 30시간 휴전 끝나자마자 러, 우크라에 공습 단행' 2025년 4월 21일 게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2892>) 그리고 뉴시스, '푸틴, 우크라와 직접 협상 시사... "키이우도 같은 생각이길 바란다" 2025년 4월 22일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98064>) 그리고 KBS뉴스, '트럼프,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조건 없는 30일 휴전' 촉구', 2025년 5월 9일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47704>)과 노컷뉴스, '러·우 협상에 푸틴 참석하나...'트럼프까지 정말 멋진 만남?' 2025년 5월 14일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24139>)를 참조하기 바란다.

5) 2025년 3월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 보장, 무력 사용 금지, 상업용 선박의 군사적 용도 금지"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에 더 유리한 합의"라는 의견이다. 우크라이나 오데사주(州)에 위치한 항구들은 2025년 1월과 2월에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공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합의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비료 및 농산물 수출을 세계 시장에 복원하고, 해상 보험료를 낮추며, 관련 상품의 항구 접근과 결제 시스템 이용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흑해 관련 합의가 이행되려면 일부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국제 금융 시스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농업 수출 은행과 국제 결제 시스템 SWIFT(1973년 5월 3일에 벨기에에서 은행 간 금융거래와 지불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간 연결이 복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합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출처: 조세일보, "러·우 흑해 휴전 합의서 항구 안보보장 빠져...러에 더 유리한 협상", 2025년 3월 26일 게재,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55649?cde=news_media_pc&type=editn)

2. 러·우 전쟁과 서방국가의 대응 그리고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2.1. 러·우 전쟁의 양상과 서방국가의 대응⁶⁾

2.1.1. 러·우 전쟁의 양상

20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베르단스크,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오데사, 수미,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보고되었다. 이 전쟁은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국내 실향민이 되거나 해외로 피난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2024년 2월 기준 민간인 사망자가 1만 2,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러시아의 절대적 우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러시아의 현역 군인은 우크라이나보다 4배 이상 많으며, 러시아의 항공기 수는 우크라이나의 13배, 장갑차 수는 4배, 해군 함대는 16배 많다. 러시아는 2022년 기준으로 860억 달러(126조 4,200억 원)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군사비 지출은 440억 달러(64조 6,8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서방국가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아왔으며, 그중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다.

EU 회원국인 스위스를 비롯하여 영국, 미국 등 서방국가는 즉각적으로 러시아의 금융 부문, 정부와 연계된 개인, 러시아로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 등에 제재를 가했다. EU도 러시아 항공사의 영공 진입을 금지하였고, 독일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⁷⁾의 인

6) 이 부분은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ow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ggravated the global food crisis', 2025년 1월 31일 최종 게재(<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how-the-russian-invasion-of-ukraine-has-further-aggravated-the-global-food-crisis/>) 및 APK Inform Agri News, 'Over the past six months, Russia attacked the port infrastructure of Ukraine more than 30 times - USPA', 2024년 2월 6일 게재(<https://www.apk-inform.com/en/news/1539506>)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7) 노르트스트림2(Nord stream2)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1,230km 길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말한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에 이 사업을 개시하였다. 공사에는 110억 달러(약 13조 1천억 원)가 소요되었고, 셸과 빈터샬 등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공사비 절반을 냈지만, 소유권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가즈프롬에 있다. 2022년 9월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같은 해 12월 가스관에 천연가스를 채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독일 정부와 EU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까닭에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 인접국들도 노르트스트림2 개설을 격렬히 반대하였지만 공사를 막지는 못하였다. 유럽 에너지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도 더욱 커져 천연가스를 무기로 정치·외교·안보 등 사안에서 유럽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Q. 노르트스트림 우크라이나'에 대한 답변, 2022년 2월 9일 게재,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1&dirlid=>

중을 중단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러시아-독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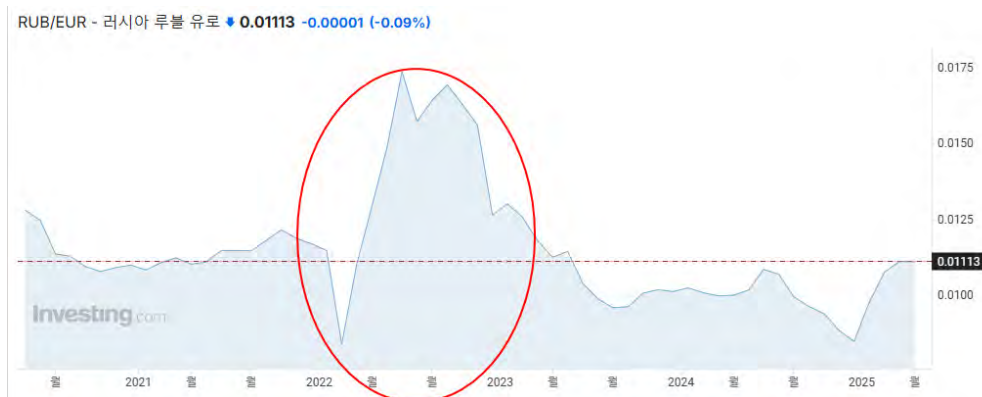


자료: 연합뉴스 2021년 4월 2일자.

한국을 비롯하여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일본,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대만도 추가 제재를 발표하였다. 또한, 애플, H&M, 이케아, 인디텍스, 맥도날드 등 주요 다국적 기업들도 러시아 내 영업을 중단하였다. 중국과 인도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지만, 벨라루스, 쿠바, 이란, 미얀마, 시리아,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기도 하였다.

러·우 전쟁 이후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에 대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그림 2 참조). 러시아 중앙은행의 개입과 러시아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는 통화를 강세로 이끌었다.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미국과 EU 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출이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 국가로 옮겨가면서 중국이 러시아산 화석원료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림 2〉 유로화 대 루블화 환율 변동



주: 붉은색 원 안이 전쟁 발발 이후의 급격한 변동 구간임.
 자료: Investing.com, 2025년 4월 2일 액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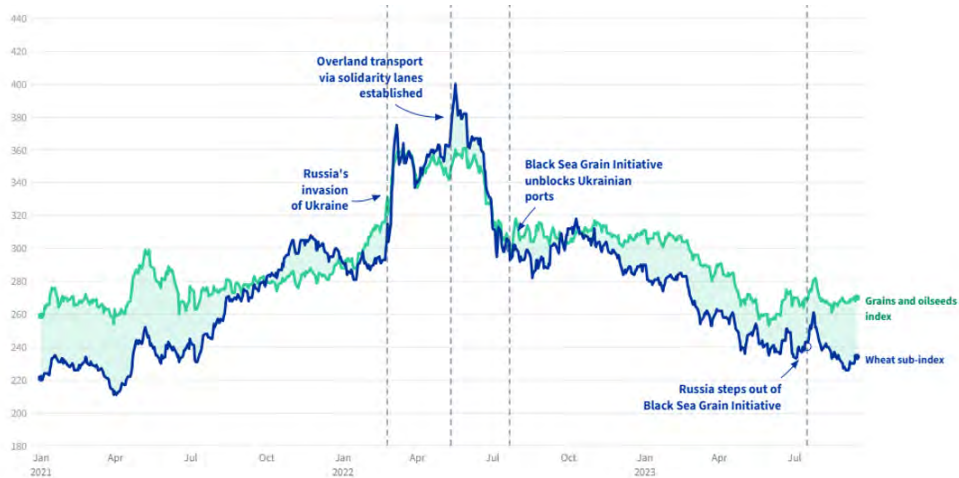
한편,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22년 2월 24일부터 2024년 2월까지 우크라이나 항만청(USPA)의 600개 이상의 동산 및 시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이즈마일(Izmail) 항구에 있는 해상 기지 건물을 복원하는 데만 160만 달러(23억 5,200만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오데사 항구의 여객 단지와 해상 역의 복원은 1,800만 달러(264억 6,000만 원)로 추산된다. 안정적인 항구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오데사 항구의 고가도로 3단계에 대한 주요 수리가 필요하며, 미사일 공격으로 손상된 것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3,500만 달러(514억 5,000만 원)로 추산된다고 USPA의 관계자인 파나시우크(O. Panasiuk)가 밝혔다. 동시에 그는 회사가 인프라를 복원하고 파괴된 물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기관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하워드 G. 버핏 재단(Howard G. Buffet Foundation, HGBF), 세계은행(World Bank, WB) 등 국제 프로그램 및 기금에 참여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2024년에 USPA는 수역 준설 운영, 고속도로·철도 선로 보수, 조종사에 대한 기술지원, 선박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복구, 다뉴브 항구의 프로세스 디지털화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⁸⁾.

러·우 전쟁은 식량 부족과 식품 및 비료 가격의 사상 최고 상승률 기록을 초래하였다. 글로벌 농산물 가격은 2020년 중반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비료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상황의 악화를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8) APK Inform Agri News, 'Over the past six months, Russia attacked the port infrastructure of Ukraine more than 30 times - USPA', 2024년 2월 6일 게재(<https://www.apk-inform.com/en/news/1539506>)

있었다. 러·우 전쟁은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상품 가격을 더욱 크게 상승시키고, 전 세계 식량 가용성을 감소시켰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식량 가격은 2022년 3월에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2020년 같은 달에 비해 60% 이상 상승한 수준이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시기별 주요 조치별 곡물가격 변동



자료: 국제곡물위원회(IGC).

이처럼 곡물의 국제 가격 급등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과 생산이 급감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러시아의 조치는 1)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 봉쇄, 2) 우크라이나의 식품 가공 및 수출 인프라에 대한 공격, 3) 우크라이나 경작지에 대한 폭격과 점령, 4) 자국의 식량과 비료 수출의 의도적인 감축 등이었다. 2022년 3월에는 러시아가 곡물 및 비료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여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⁹⁾.

9) 당시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서는 허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 「해외곡물 시장동향」 12권 6호(2023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2.1.2. 서방국가의 대응

■ 서방국가는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을까?

각국의 경제는 밀과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주요 수출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알루미늄을 수출 세계 6위이며, 팔라듐¹⁰⁾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¹¹⁾.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하여 서방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연대 항로(Solidarity Lane)¹²⁾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가 대표적이다. EU 국가들은 증가하는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우선순위를 러·우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농식품 수출을 돕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러·우 전쟁 직후 EU 등 서구가 조치한 연대 항로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로 인해 결국, 곡물과 식품 그리고 농자재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게 되었다.

2022년 7월 체결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따라 화물선은 흑해를 건너 보스포루스 해협(Bosphorus Strait)까지 574km의 회랑을 따라 우크라이나 항구를 오갔다(그림 4 참조). 2023년 7월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종료를 결정하였고, EU는 러시아의 결정을 맹렬하게 규탄하였다. 협정 종료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게 전 세계 곡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제히 성토했다¹³⁾.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시작하고, 식량을 무기화함으로써 러시아가 초래한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가 종료된 후 우크라이나는 2023년 8월 서부 해안선을 감싸는 새로운 임시 수출 통로인 ‘인도주의 회랑(Humanitarian Corridor)¹⁵⁾’을 구축하였다.

10) 주기율표 10족에 속하는 백금족 원소인 금속으로, 팔라듐은 광택이 있는 은백색의 금속으로 전성 및 연성이 풍부하다. 산업적으로도 유용하고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소재이다. 치과치료 소재나 자동차용 산화촉매, 전기 접점 도금, 팔라듐 합금, 수소저장합금에 주로 쓰인다.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

11)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발행, 2025년 2월 3일(study_id135437_grain-market-in-ukraine.pdf)

12)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을 돕기 위해 EU가 만든 항로. 전쟁 시작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면서 약 2천만 톤의 곡물이 흑해 연안의 저장 저장고에 갇히게 되었다. 이에 2022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우크라이나 연대 창구를 구축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목표는 다음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대체 육로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즉, 화물 철도 차량, 선박 및 트럭 제공, 기존 운송 네트워크 및 환적 터미널의 용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 세관 업무 및 기타 검사 간소화 및 가속화, EU 영토에 상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13) Josep Borrell,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2023년 7월 17일 프레스릴리스. 'Wang Yi meets with EU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Josep Borrell', <https://www.youtube.com/watch?v=jY4yui6xhl>.

14)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23 June 2022

15) 인도주의 회랑(Humanitarian corridor)은 비무장지대의 일종으로, 전쟁 중인 당사국의 협약, 선언, 국제기구의 중재

이는 러시아 잠수함이 작전하기에는 너무 얕아 화물선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전한 경로이다. 또한, 이 경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두 국가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영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격이 쉽지 않다는 측면도 있었다(표 1 참조).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의한 경로보다 앞서 만들어진 EU의 '연대항로' 계획은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 이 경로로 우크라이나는 육로와 바지선을 통해 다뉴브강의 항구나 루마니아의 콘스탄차(Constanta) 항구로 곡물을 보내 흑해를 통과하는 화물선에 싣고 있다.

EU 국가들은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22년 6월에 합의한 이사회 결론에 따라 1) 연대, 2) 지속 가능한 생산, 3) 무역, 4) 다자주의(Multilateralism)라는 4가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¹⁶⁾

〈그림 4〉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따른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 경로

Grain shipping routes out of the Black Sea



Source: United Nations

BBC

자료: BBC, 'How much grain is Ukraine exporting and how is it leaving the country?', 2024년 4월 2일 게재

등에 의해 민간인인 난민을 안전하게 피난시키거나 인도주의적 원조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회랑(좁은 통로)을 말한다. 인도적 통로, 인도주의적 회랑이라고도 한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

16) European Council. 'Global food insecurity: Council approves conclusions on the Team Europe response', 2022년 6월 20일 보도 자료.

〈표 1〉 러·우 전쟁 발발 직후 곡물 운송 관련 조치

일시	조치명	조치 내용
2022년 5월 12일	연대항로(Solidarity Lane)	EU는 저장고에 쌓인 산더미 같은 곡물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되는 육로 운송 경로를 구축함.
20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하여 흑해를 가로지르는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개설하기로 함.
2023년 7월 17일	러시아, 협정 탈퇴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함.
2023년 9월	인도주의 회랑(Humanitarian Corridor) 구축	러시아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탈퇴에 따라 새로운 무역경로를 구축함.

자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ow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ggravated the global food crisis', 2025년 1월 31일 최종 게재에서 필자 일부 보완(<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how-the-russian-invasion-of-ukraine-has-further-aggravated-the-global-food-crisis/>)

우선 연대에 대해 살펴보면 EU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 구호를 제공한다. EU와 그 회원국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원조 제공자이다. 2022년 6월, EU 국가들은 2020~24년 기간 동안 식량안보를 위하여 80억 유로(12조 7,440억 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2년 EU의 인도주의적 기금은 2021년 대비 32% 증가하여 7억 7,000만 유로(1조 2,261억 원)에 달하였다. 이 기금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현금 지원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지역 식량 생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EU와 그 회원국들은 UN 산하 WFP(World Food Program)의 주요 기부자이다.

EU는 식량 및 회복 시설에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남부 지역 파트너들에게도 2억 2,500만 유로(3,584억 원)를 제공하였다. EU 국가들은 농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함으로써 세계 식량안보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EU의 밀 수출량 중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나이지리아)와 아시아(파키스탄)로 수출되었다.

지속 가능한 생산에 대해 살펴보면 전 세계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되며,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22년 6월, EU 지도자들은 (1) 개발도상국이 필요한 경우 공급망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농식품 생산 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이니셔티브에 대한 작업을 가속화하며, (3) 개발도상국의 투입 제조 능력, 특히 지속 가능한 비료 개발에 지원한다는 등에 합의한 바 있다.¹⁷⁾

17) European Council, 'European Council, 23-24, 2022년 6월',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6/24/european-council-conclusions-23-24-june-2022/>)

무역에 대해 살펴보면 EU 국가들은 농산물에 대한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2022년 5월 EU 특별이사회의 회의에서 EU 지도자들은 전 세계 식량 무역에서 부당한 무역 장벽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는 농업·식품 부문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농산물의 수입 및 운송과 수출에 대한 지분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⁸⁾.

다자주의에 대해 살펴보면 효과적인 국제공조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글로벌 대응을 보장하는 열쇠이다. EU 국가들은 식량 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 G7 식량안보연합(GAFS¹⁹⁾)과 국제식량농업 회복력 미션(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e Resilience Mission, FARM²⁰⁾)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상호 보완적이며 EU 특별이사회의 4가지 행동과도 궤를 같이 하는 3가지 행동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3가지 행동영역이란 (1) 세계 식량 공급을 늘리고 취약 국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단기 연대 행동, (2) 글로벌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 (3) 취약 국가에서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식량 생산을 창출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EU는 또한 행동과 이니셔티브가 보다 광범위한 EU-AU(Africa Union, 아프리카 연합) 전략적 파트너십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연합과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2022년 9월,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은 유엔 총회 주간에 세계 식량안보에 관한 정상회담의 공동 의장을 맡았다. 양국 정상은 다른 정상들과 함께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짧은 선언문

18) European Council,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 30-31, 2022년 5월.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56562/2022-05-30-31-euco-conclusions.pdf>)과 European Council, 'EU sanctions against Russia explained', 2025년 3월 31일 최종 수정(<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against-russia-explained/>).

19) G7과 세계은행이 설립한 GAFS는 긴급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농업시스템 변화를 목표로 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및 조정,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수적이다. GAFS는 글로벌 및 지역 의사결정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정책 및 재정적 대응을 개선한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행운퀴즈, 2025년 4월 2일 게재(<https://blog.naver.com/quiz8253/223818888211>))

20) 가장 취약한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말한다.(출처: France Diplomacy,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e Resilience Mission (FARM) initiative for food security in the most vulnerable countries'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development-assistance/other-major-sectors/food-security-nutrition-and-sustainable-agriculture/international-food-and-agriculture-resilience-mission-farm-initiative-for-food/>))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²¹⁾.

EU의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지난 60년 동안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인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보장해 주었다. 이러한 CAP 덕분에 오늘날 EU 시민들은 식량 부족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된 것이다. CAP은 농부들이 생산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 EU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투입 비용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농부들에게 5억 유로(7,965억 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농부들은 (1)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지급, (2) 일부 CAP 요구 사항에 대한 일시적인 완화(예: 토지 확보), (3)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프레임워크와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높은 식량 가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회원국들은 (1) 부가가치세를 인하, (2) 소매업체가 가격을 낮추도록 장려, (3)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전용 EU 기금 사용 등과 같은 국가적 조치도 취하였다. 또한, 2023년 봄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현지 시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영향을 받은 회원국에 재정 지원도 제공하였다. 이 지원은 일부 국가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CAP의 위기 준비금에서 지원되었다.

2.2.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수출할 수 있었을까?

전쟁 전 우크라이나 곡물의 90%는 흑해를 통해 수출되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4개월 넘게 러시아 군함이 흑해의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였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 후인 2022년 5월 연대항로를 통해 조업이 재개되었고, 곡물의 약 45%만이 해로를 통해 운송되고 나머지 55%는 연대항로를 통해 수출되었다.

2022년 7월에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가 해로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기타 식량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2년 7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 UN은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유즈네/피브네니 항구에서 곡물 및 기타 관련 식료품을 운송할 목적으로 안전한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협정인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제안하

21) European Council, 'Leaders' Summit on Global Food Security', 2024년 1월 10일 게재(<https://www.consilium.europa.eu/en/events-gsc/global-food-security-summit-20-september-2022/>)를 참조하기 바란다.

였고,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UN, 튀르키예, 러시아는 흑해의 안전한 해상 인도주의 통로를 통한 수출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길이 다시 확보되었다. 우크라이나 수출 농산물은 중국, 스페인, 튀르키예로 향한 수출이 주를 이루었다. 농산물 중에서도 옥수수과 밀은 수출 제품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밀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공급되었다. 이니셔티브가 시행되는 동안 곡물 및 기타 식료품을 가득 실은 1,000척 이상의 선박이 우크라이나 3개 항구에서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그러나 2023년 7월 17일, 러시아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다²²⁾. 이후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다뉴브 항구를 경유하는 등의 대체 선적 경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우크라이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인구가 기아 위기에 처한 국가로 이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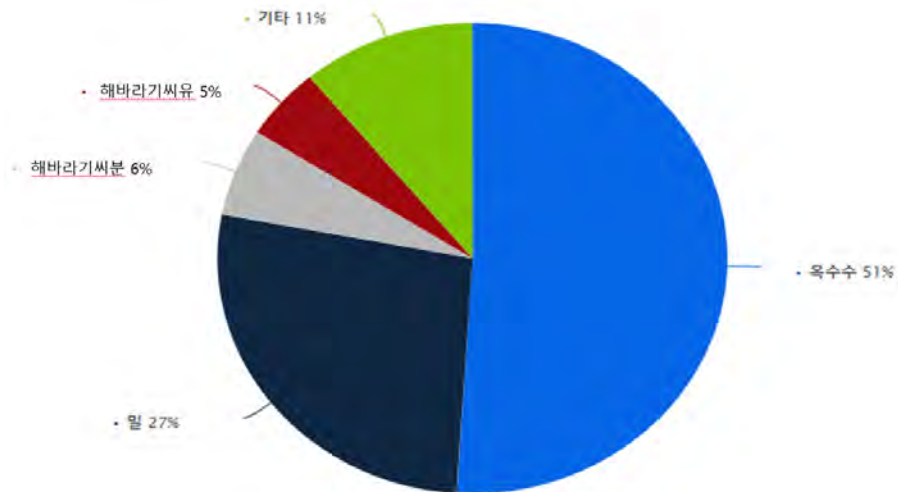
2023년 7월 기준으로 약 3,300만 톤의 곡물 및 기타 식료품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출되었다. 화물의 50% 이상은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의 봉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옥수수였다. 여름에 수확할 밀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²³⁾. 2023년 7월 기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출된 밀의 57%가 개발도상국에 공급되었으며, 옥수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거의 동등하게 수출되었다(그림 5~그림 8 참조).

WFP도 흑해 항구에서 밀을 선적하였다. 2023년 7월 기준, WFP는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재고의 80%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전쟁 전의 50%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이 이니셔티브 이행 기간 동안 72만 5,000톤 이상의 밀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나 에티오피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수단, 소말리아, 케냐, 지부티로 향하였다.

22) European Council, 'Ukrainian grain exports explained', 2025년 1월 30일 최종 수정,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ukrainian-grain-exports-explained/>

23) European Council, 'Ukrainian grain exports explained', 2025년 1월 30일 최종 수정,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ukrainian-grain-exports-expla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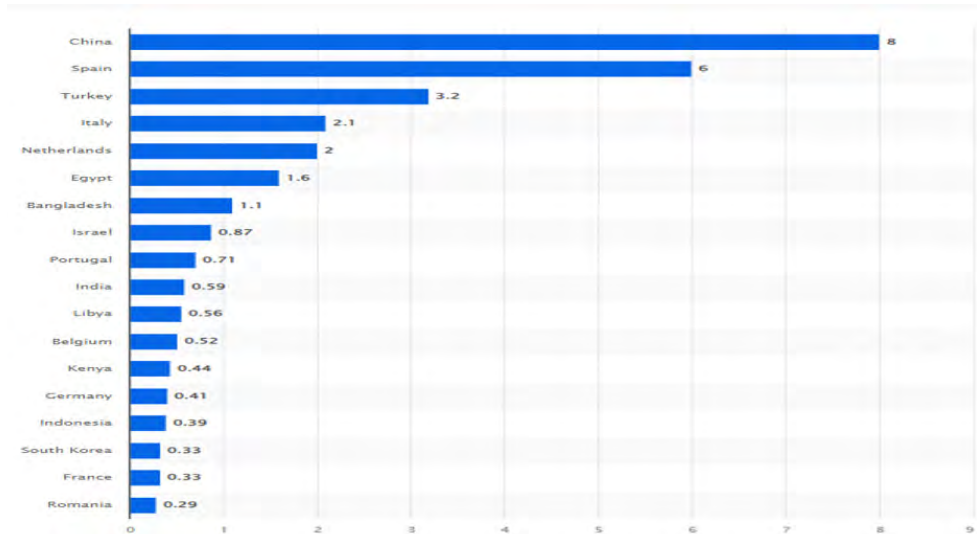
〈그림 5〉 2023년 7월 17일 기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가 확보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의 제품별 분포



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333834/breakdown-of-ukrainian-agricultural-exports-via-the-black-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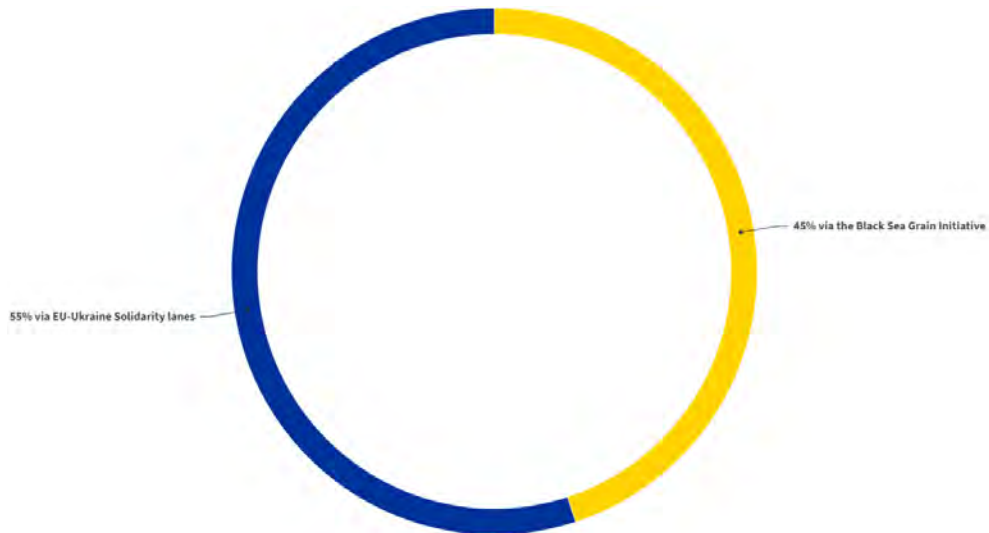
〈그림 6〉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가 확보한 우크라이나의 국가별 농산물 수출량,
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17일

(단위: 백만 톤)



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333847/ukrainian-agricultural-exports-via-the-black-sea-by-country/>)

〈그림 7〉 수출항로별 곡물 수출비율



자료: European Council. 'Food security and affordability', 2025년 2월 3일 게재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food-security-and-affordability/>)

〈그림 8〉 상품별 우크라이나의 수출 점유율과 선진국 및 개도국 비율



자료: Black Sea Grain Initiative Joint Coordination Centre, 18 July 2023. European Council, 'Ukrainian grain exports explained', 2025년 1월 30일 게재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ukrainian-grain-exports-explained/>)에서 재인용.

2.3.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종료 이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종료 이후,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많은 곡물을 수출하였으며,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있었을까?²⁴⁾

2023년 7월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강제 종료시킨 후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인 군사 목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화물선은 거의 없었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월간 곡물 수출량은 2023년 7월, 8월, 9월에는 200만 톤이 조금 넘는 데 그쳤다²⁵⁾.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기존의 연대회랑 이용과 더불어 새로운 경로인 인도주의 회랑을 구축하여 수출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2023년 7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종료 시점부터 2024년 2월 말 사이에 선적된 물량은 42개국에 약 2,000만 톤의 곡물을 수송하였으며, 2023/24년도(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 사이)에 밀 1,384만 톤을 포함 3,486만 톤의 곡물 및 콩과 작물을 수출하였다. 특히, 2024년 우크라이나는 이미 밀 1,384만 톤, 보리 196만 톤, 호밀 1,000톤, 옥수수 1,876만 톤을 수출하였다. 이니셔티브가 작동 중이던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밀 1,301만 톤, 보리 228만 톤, 호밀 17,700톤, 옥수수 2,243만 톤 등의 곡물 및 콩과 작물을 수출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증가한 물량이다²⁶⁾.

새로운 수출항로 선택은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에 더 많은 곡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던 저렴한 가격 조건을 잃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이웃 국가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를 돕기 위하여 EU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다²⁷⁾. 동유럽 국가들은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곡물이 시장에 넘쳐나게 되었고,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농부들의 소득에 타격을 입었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일부 상인들은 곡물을 유럽의 다

24) 이에 대해서는 BBC, 'How much grain is Ukraine exporting and how is it leaving the country?', 2024년 4월 2일 게재(<https://www.bbc.com/news/world-61759692>)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BBC news, 'How much grain is Ukraine exporting and how is it leaving the country?', 2024년 4월 2일 게재, <https://www.bbc.com/news/world-61759692>

26) Uklaneform, 'Ukraine exports 5.2M tonnes of grain, leguminous crops last month' 2024년 2월 4일 게재, <https://www.ukrinform.net/rubric-economy/3847200-ukraine-exports-52m-tonnes-of-grain-leguminous-crops-in-mar-2024.html>

27) 2025년 6월 초부터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계란, 밀, 가금류,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출처: 뉴시스, "EU, '우크라 관세 면제' 내달 종료...옥수수 등에 다시 관세부과", 2025년 5월 14일자 기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41965>))

른 항구에서 해외로 운송하는 대신 이들 국가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폴란드 농민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2022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판매를 금지하고, 운송용 곡물만 해당 국가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9월에 되어서야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밝히면서 그 제한들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폴란드 농민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2024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귀리(Oat), 계란, 가금류 및 설탕을 포함한 일부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수입 상한선을 제안하였다, 다만, 밀과 보리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가 EU로 수출하는 다른 모든 품목은 최소 2025년 6월까지 무관세 상태를 유지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곡물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도 제안하였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이다²⁸⁾.

3. 러·우 전쟁이 우크라이나 농업에 미친 영향

3.1. 전쟁 전 우크라이나 농업 상황

1991년 우크라이나가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래,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은 현저한 성장을 하였다. 전쟁 전만 하더라도 생산성이 우크라이나 농업부문 성장을 주도하는 요인이었다. 농업 생산성은 국토의 약 56%를 차지하는 비옥한 흑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후, 우크라이나의 농장은 집단 농업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소련 경영 스타일과 구조는 계속되었다. 우크라이나의 토지 개혁으로 농지의 사적 소유로 이어졌고,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유형의 농업 운영자가 등장하였다²⁹⁾.

기업 농장은 전반적인 성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대규모 농업 지주로 통합되어 농업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이익으로 대규모 농장은 단위당

28) BBC news, 'How much grain is Ukraine exporting and how is it leaving the country?', 2024년 4월 2일 게재, <https://www.bbc.com/news/world-61759692>

29) USDA/ERS, 「구소련의 작물면적 변화(Changing Crop Area in the Former Soviet Union)」, 2017년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곡물(특히 옥수수) 및 유지종자의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크라이나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3,000ha 이상의 농장이 우크라이나 전체 옥수수 기업의 1.2%를 차지하였지만, 우크라이나 옥수수의 생산의 27% 이상을 담당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시대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기반 경제로의 전환함에 따라 농업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이 회복되었고, 2000년경에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농장 투입물 현대화와 농장 관리 효율성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기여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더 좋은 품질의 종자를 채택하고, 수정 방법을 개선하며, 현대식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작물 단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고품질 수입 종자 품종과 최적화된 비료 그리고 현대적인 장비와 결합하고, 종자 재배 및 수확 과정이 향상되어 단위면적당 작물 단수가 증가한 결과이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해바라기씨, 밀, 옥수수 단수는 102%에서 155% 증가하여 러시아의 생산성 향상을 앞질렀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보리, 해바라기, 밀의 10년 단위 평균은 같은 기간 러시아의 10년 단위 평균보다 27%에서 47% 높았다. 그러나 해바라기씨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평균 단수는 여전히 EU 보다는 낮은 상태였다. 이는 여전히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곡물 부문은 상당한 수출 성장을 이루었다. 2012/13년도~2021/22년도까지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148% 증가하여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옥수수 수출국이 되었다. 동 기간 밀 수출은 227%, 보리 수출은 167% 증가하여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의 보리 공급국으로써도 입지를 굳혔다.

가격 경쟁력은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및 유지종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능력에 중요한 요소였다. 우크라이나는 아시아, 유럽 및 중동의 주요 시장과 인접해 있어 다른 수출국보다 이점을 가진다. 우크라이나는 2008년 WTO에 가입하였고, 2011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2014년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조치는 무역 장벽을 낮추어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유지종자를 파트너 국가 수출에 더 경제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거래 비용 절감과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12~2021년 기간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은 연평균 5.6% 성장하였다. 2021년 농산물은 우크라이나 총 수출액 680억 달러(99조 9,600억 원) 중 40.9%인 278억 달러(40조 8,660억 원)를 차지하였다.

3.2.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농업 상황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유지종자 부문에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왔다. 전쟁 전의 생산 수준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³⁰⁾.

전쟁은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생산성 향상마저 위태롭게 하였다.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정전, 도난, 투입에 필요한 노동력 및 자재 부족, 기반 시설 손상, 적극적인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다. 포격과 광산에서 남겨진 잔해는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수확하려는 농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운송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90%가 정상적으로 수출되던 흑해 항구에 대한 사실상 봉쇄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러시아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농작물, 식량창고 및 농업기계 피해는 우크라이나 생산 및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밀과 보리 생산은 전쟁 기간 동안 감소하였다. 2023/24년도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2022/23년도 단수에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로 적은 밀 단수를 기록하였다. 보리 생산량 감소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래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전쟁 전 10년간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연간 평균 생산량은 2021/22년도 4,200만 톤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 2024/25년도에는 2,700만 톤으로 크게 떨어지기도 하였다³¹⁾.

2022/23년도에는 전쟁으로 인해 옥수수, 밀, 보리 수출도 크게 감소하였다. 2023/24년도 옥수수와 보리 수출은 2021/22년도 수준보다 상당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보리 수출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곡물과 유지종자 작물 중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USDA의 2033/34년도까지의 국제 장기 예측(International Long-Term Projections to 2033)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에도 우크라이나 곡물 및 유지종자 부문의 성장 전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5장 참조).

USDA/ERS의 2023년 1월호 밀 전망(Wheat Outlook)에 따르면³²⁾, 재고 축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유지종자 가격은 글로벌 시장보다 낮았다. 러시아는 우크라

30) James Hansen, Matthew Miller, Bryn Swearingen and Megan Husby, 'Ukraine's Rise in Grain and Sunflower Seed Market Share Limited by Ongoing War', 'Amber Waves', USDA/ERS, 2024년 5월 16일 게재, (<https://www.ers.usda.gov/amber-waves/2024/may/ukraine-s-rise-in-grain-and-sunflower-seed-market-share-limited-by-ongoing-war>)

31) USDA/ERS, 'Wheat Outlook', 2023년 1월호

32) USDA/ERS, 'Wheat Outlook', 2023년 1월호

이나의 항구 접근을 차단하여 수출을 제한하여 거래 비용을 높였고, 그 결과, 곡물 및 유지종자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통한 무역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수출 능력을 완화시켰고, 이로 인해 재고가 감소할 수 있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해바라기씨 시장 점유율에 대한 잠재력도 억제하였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90% 이상이 항구를 통해 수출되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에 필수적인 곡물과 유지종자 제품을 묶어두었다.

2022년 7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출범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출을 이니셔티브 시작 시점의 약 120만 톤에서 2022년 12월까지 월 약 630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트레이드 데이터 모니터(Trade Data Monitor) 통계에 따르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수출을 늘리는 데 성공하였지만, 농산물 수출량은 여전히 전쟁 전 3년 평균보다 11% 낮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최고의 해바라기씨분(가루) 및 해바라기씨유 수출국이었다. 2021/22년도에는 전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씨 분쇄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가공되지 않은 해바라기씨 또는 대량의 해바라기씨 수출이 전쟁 이전 수준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2022년에는 전쟁 관련 혼란으로 해바라기씨 파쇄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였다. 이후, 계속되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씨분과 해바라기씨유 생산을 늘렸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2023/24년도에는 국내 분쇄량이 증가하여 벌크 해바라기씨 수출이 해바라기씨분과 해바라기씨유 형태로 가공되었다.

33)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업체들은 계속해서 낮은 가격에 직면해 있다. 평소보다 높은 공급량과 평균 이상의 거래 비용, 특히 전쟁 관련 위험을 충당하기 위한 더 높은 보험료를 반영하는 운임 비용이 결합되어,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유지작물의 시장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민간 보험사와 협력하여 전쟁 관련 위험 보험료를 줄이는 전문 보험 상품을 만들었으며, 이는 화물비용을 완화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다.

3.3. 러·우 전쟁이 세계 식량 위기 악화에 미친 영향³⁴⁾

■ 러·우 전쟁은 세계 식량 위기를 어떻게 악화시켰을까?

전쟁이 세계 식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2021년 우크라이나는 거의 120억 달러(약 115억 유로, 17조 6,400억 원) 상당의 곡물을 수출하였다. 당시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옥수수 및 밀 공급량의 약 30%와 전 세계 해바라기씨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글로벌 곡물 및 식품 가격은 2020년 중반부터 상승하고 있었으며, 러·우 전쟁 이후 곡물 가격이 더욱 상승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처럼 러·우 전쟁은 원자재 가격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식품가격 인플레이션은 2022년 3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였지만, 식품 가격은 높은 인건비, 악천후, 공급망 중단 및 글로벌 분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쟁 관련 불확실성은 수출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와 UN의 조치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전쟁 발발 이후인 2022/23년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 감소율은 29%나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곡물 수출은 감소되고, 식량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EU가 대체 수송로로 '연대 항로'를 시행하고, UN과 튀르키예가 항구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증가하고 식량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2023년 7월 러시아가 이니셔티브를 중단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곡물의 40%는 흑해 항구를 통해 운송되었고, 60%는 연대항로를 통해 육로로 운송되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강제 종료한 이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출은 다시 감소하였고, 가격은 상승하였다. 긍정적인 글로벌 수확 전망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고는 있지만, 전쟁과 러시아의 흑해 항구 봉쇄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곡물과 식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식량 공급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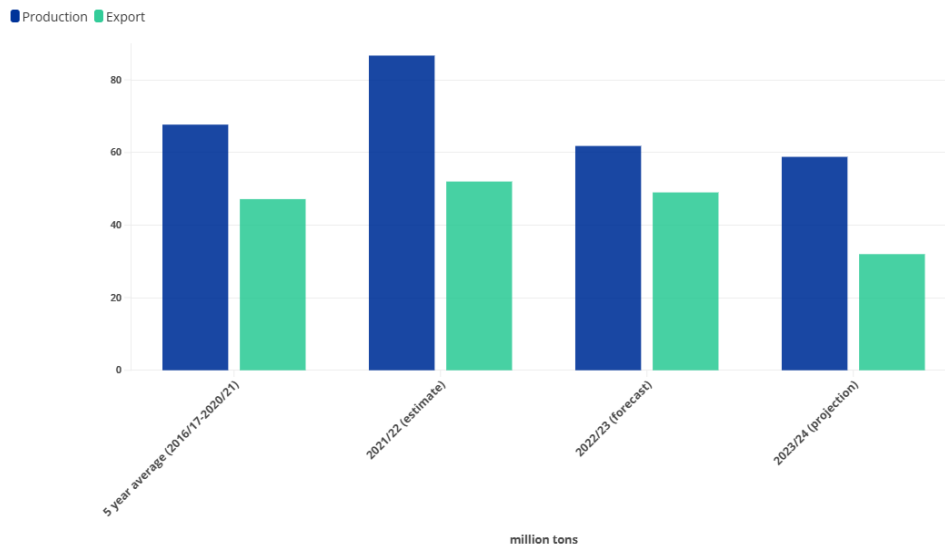
34) European Council, 'How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ggravated the global food crisis:', 2025년 1월 30일 최종 수정,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how-the-russian-invasion-of-ukraine-has-further-aggravated-the-global-food-crisis/>)

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전쟁의 지속되면서 곡물 생산 및 유통측면에서의 영향은 또 다른 면모를 보였다. 2021년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거의 1,700만 헥타르의 봄 작물을 파종하였지만 전쟁 이후인 2022년에 농부들은 22% 더 적게 파종하였다. 파종되지 않은 면적은 280만 헥타르로 거의 벨기에의 국토면적보다는 조금 적은 면적에 해당된다³⁵⁾.

전쟁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쟁 전 파종과 2022년에 축적된 많은 재고로 인해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이후의 수출은 생산시설 손실·손상과 재배되지 않은 지역으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곡물의 생산은 물론이고 수출도 함께 감소하였다. 2021/22년도와 비교하여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은 2022/23년도에 29% 감소하였으며, 이후 더욱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9 참조).

〈그림 9〉 전쟁 전후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 및 수출량



Source: International Grains Council (IGC)

자료: IGC, European Council, 'How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ggravated the global food crisis', 2025년 1월 31일 최종 게재에서 재인용.

35) 벨기에의 국토면적은 306만 8,900ha(2022년 기준)이다. European Council, 'How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ggravated the global food crisis', 2025년 1월 31일 최종 게재.

■ 누가 식량 불안정과 가격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의 주요 수혜자였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전체 밀 수출의 절반 이상(58%)이 아시아로, 34%가 아프리카로 수출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식량 부족은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특히 소말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높은 식품 가격은 사람들의 식품 구매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EU를 포함한 저소득 가정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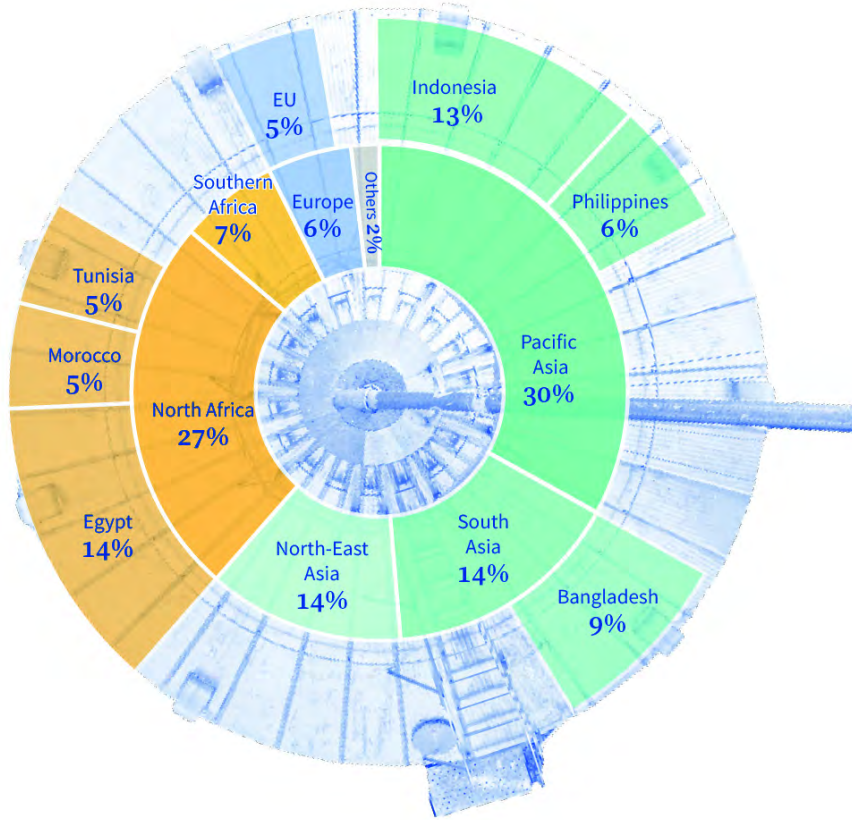
위기의 영향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WFP에 따르면, 2022년에는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은 식량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급성 영양실조 증가로 인하여 특히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³⁶⁾. FAO 식량가격지수에 따르면, 2022년 3월 세계 식량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생산 및 수출 감소로 인한 전 세계 농산물 시장의 혼란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글로벌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³⁷⁾, 2023년에 2억 8,163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사상 최고치이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출된 밀의 65%가 개발도상국에 공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수출, 특히 밀 수출은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우크라이나 밀의 92%를 수입하고 있었다(그림 10 참조). 러시아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36) WFP annual review 2022

37) 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and the 16 GRFC partner agencies,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GRFC) 2024」(<https://www.fsinplatform.org/report/global-report-food-crises-2024/>)

〈그림 10〉 전쟁 전 5개년도 평균 우크라이나 밀의 수출 대상국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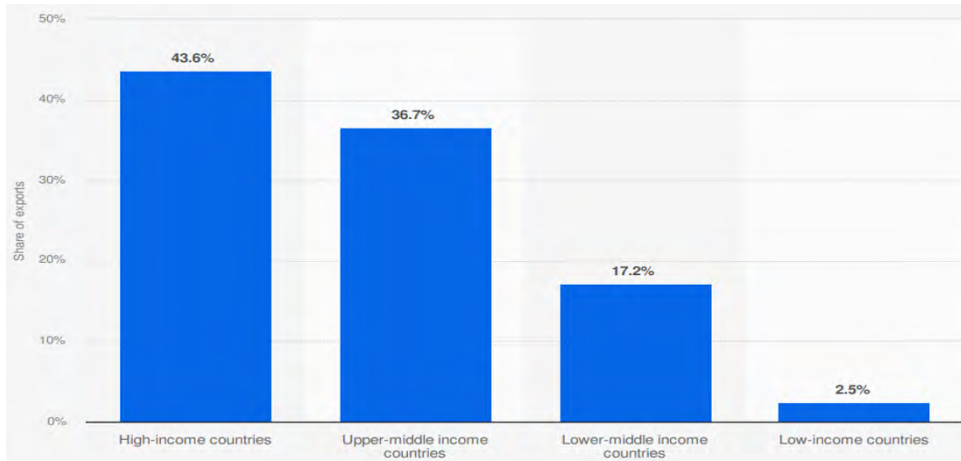


자료: IGC, 2016-2021년 평균 데이터. European Council, 'How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ggravated the global food crisis', 2025년 1월 31일 최종 수정에서 재인용.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의 흐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농식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중단하였지만, 곡물 공급 과잉은 지역 농민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고, 2024년에는 여러 민감한 제품 범주에 대한 수출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2023년 7월 17일 기준, 2022년 8월부터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의해 확보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의 약 44%가 고소득 국가로 수출되었다. 이에 비해,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 소득 국가를 합치면 수출량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그림 11).

〈그림 11〉 소득 그룹 국가별 2023년 7월 17일 기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시큐리티 하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실제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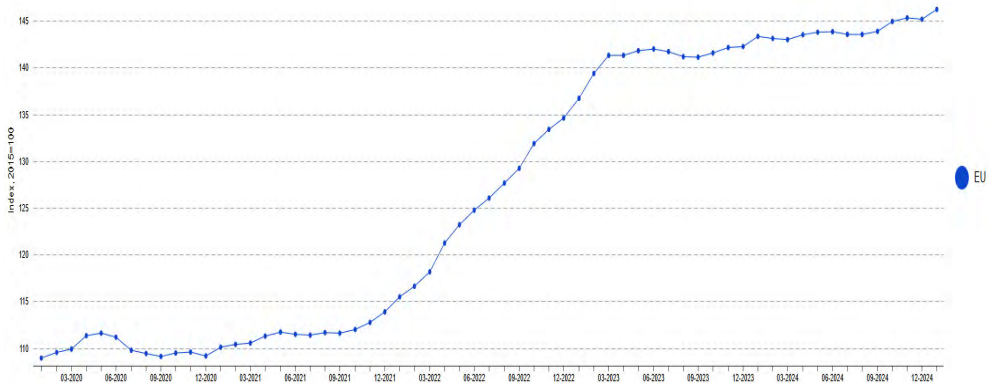


자료: UNCTAD 등. European Council, 'How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ggravated the global food crisis', 2023년 1월 31일 최종 수정에서 재인용.

전쟁 전만 하더라도 EU는 2022년 전 세계 최대 농식품 생산국으로 활동하였지만, 러·우 전쟁과 기후 변화로 생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EU의 식량 시스템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과 식품가격 상승은 EU 국가의 시민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경제성은 EU 지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과 관련하여 더욱 그렇다. 유로스탯(Eurostat)의 식품 가격 모니터링 틀에 따르면, EU의 식품 가격은 2022년 3월에 비해 2023년 3월에 19% 높았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EU의 식품가격 변동



자료: Eurostat, 'Food price monitoring tool-Price trends along the food supply chain',
<https://ec.europa.eu/eurostat/cache/website/economy/food-price-monitoring/>

3.4. 러·우 전쟁이 우크라이나 곡물 및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³⁸⁾

3.4.1. 러·우 전쟁이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에 미친 영향

■ 영향의 개요

이제 시각을 우크라이나 곡물부문으로 좁혀서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농업 인프라를 목표로 삼는 주요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입원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2022년도 우크라이나의 GDP는 2021년에 비해 29% 이상 감소하였으며, 우크라이나 GDP 대비 농업의 비중은 2021년에 비해 39% 낮았다³⁹⁾.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비롯한 농업 생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 점령 지역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의 약 21%, 보리의 17%, 해바라기씨의 19%를 차지하던 곳이었지만, 옥수수는 거의 재배되지 않았다. NASA의 글로벌 식량안보 및 농업 컨소

38) 이 부분은 James Hansen, Matthew Miller, Bryn Swearingen and Megan Husby, 'Ukraine's Rise in Grain and Sunflower Seed Market Share Limited by Ongoing War', USDA ERS, Amber Waves, 2024년 5월 16일 게재(<https://www.ers.usda.gov/amber-waves/2024/may/ukraine-s-rise-in-grain-and-sunflower-seed-market-share-limited-by-ongoing-war>) 및 CSIS, 'Food as the "Silent Weapon": Russia's Gains and Ukraine's Losses', 2024년 2월 29일 게재, <https://www.csis.org/analysis/food-silent-weapon-russias-gains-and-ukraines-losses>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9) CSIS, 'Food as the "Silent Weapon": Russia's Gains and Ukraine's Losses', 2024년 2월 29일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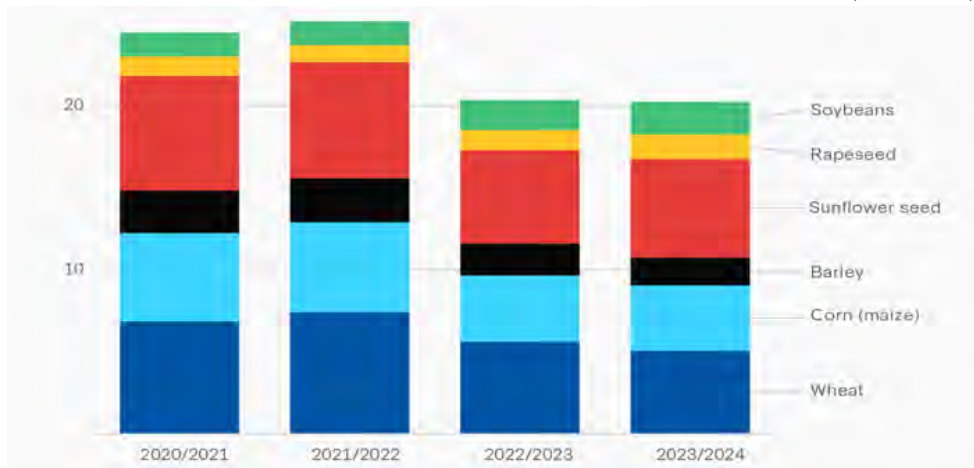
사업인 NASA Harvest⁴⁰⁾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2023년 우크라이나에서 버려진 농경지는 우크라이나 전체 농경지의 약 7.5%에 해당하는 500만~700만 에이커 (202만 3,428~283만 2,000ha⁴¹⁾)의 농경지를 잃었다고 한다⁴²⁾.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수출시장으로 운송하는 비용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에게 낮은 가격의 형태로 흡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밀과 옥수수와 같은 작물의 수익성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작물면적 및 수확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다. USDA는 2023년 밀, 옥수수, 보리 수확면적이 2021년 수준보다 각각 32%, 27%, 37%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바라기 수확면적도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콩류와 유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은 실제로 21%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개 작물을 합한 순재배면적은 지난 2년 동안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참조).

우크라이나 농업정책 · 식품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은 옥수수 재배면적을 더 줄였지만, 유지종자, 특히 콩류 재배면적은 계속 늘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13〉 우크라이나 곡물 및 유지작물 수확 면적

(단위: 백만 ha)



자료: USDA, CSIS, 'Food as the "Silent Weapon": Russia's Gains and Ukraine's Losses', 2024년 2월 29일 게재에서 재인용.

40) NASA Harvest는 NASA의 글로벌 식량·식품 공급 및 농업 컨소시엄 업체이다.(출처: NASA Harvest 홈페이지, www.nasaharvest.com)

41) 1에이커=0.404686ha를 적용하였다.

42) CSIS, 'Food as the "Silent Weapon": Russia's Gains and Ukraine's Losses', 2024년 2월 29일 게재

■ 전쟁 기간 중 우크라이나의 옥수수과 밀 생산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⁴³⁾

러·우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곡물(주로 옥수수와 밀)과 식물성유지의 주요 글로벌 수출국으로 EU 국가들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에 공급하였다. 2024/25년도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량은 2023/24년도 8,200만 톤에서 7,300만~7,5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WASDE, 2024). 전쟁이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과 수출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표 2>에 요약하였다.

<표 2>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옥수수 및 밀 생산

옥수수	과거 5년 평균 대비 생산 증감율(%)	과거 5년 평균 대비 수확면적 증감율(%)	과거 5년 평균 대비 단수 증감율(%)
2022/23	-20	-19	-1
2023/24	-3	-16	14
2024/25*	-22	-18	-5
밀	과거 5년 평균 대비 생산 증감율(%)	과거 5년 평균 대비 수확면적 증감율(%)	과거 5년 평균 대비 단수 증감율(%)
2022/23	-23	-19	-6
2023/24	-18	-28	14
2024/25*	-18	-25	9

자료: WASDE 2024년 보고서로 USDA/ERS에서 계산. USDA/ERS, 'Agricultural Markets in Russia and Ukraine', 2025년 1월 6일 게재.

우크라이나는 밀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잃었다. 이는 주로 단수보다는 수확 면적 감소 때문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23/24년도 및 2024/25년도 동안 밀 단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쟁 이전 수준에 비하여 수확면적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였다. 하지만 USDA WASDE(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의 단수가 적은 시나리오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 잠재력이 크게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았다.

옥수수 생산도 전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옥수수 생산량 감소는 전쟁보다는 수확 면적 감소와 단수 감소에 기인한다. 하지만 2023/24년도는 예외적으로 두드러진다. 이례적으로 높은 옥수수 단수가 수확 면적 감소를 거의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쟁 이전 수준보다 평균 20%

43) 이 부분은 주로 USDA/ERS, 'Agricultural Markets in Russia and Ukraine', 2025년 1월 6일 게재, (<https://www.ers.usda.gov/newsroom/trending-topics/agricultural-markets-in-russia-and-ukraine>)를 참고하였다.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생산의 지역적 분포(밀은 동부와 남부에 더 집중되어 있는 반면, 옥수수는 중부와 북부에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와 가격 및 수출 목적지로 곡물을 배송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시장 신호에 대한 생산자의 대응 및 적응력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농경지의 추가적인 손실은 곡물 생산 능력에 해를 끼칠 것이며, 단수의 추가 감소(날씨 또는 투입 관련)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을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 생산 및 인프라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로를 확보하고 단수를 개선하며 시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크라이나는 세계 옥수수와 밀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밀 수확 면적은 2023/24년도에 약 505만 헥타르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년도(2022/23년도)의 560만 헥타르보다도 9.4% 감소한 것이며, 전쟁 전인 2021/22년도에 비해서는 31.8% 감소한 수준이다. 옥수수와 보리 수확면적도 전쟁 전과 비교해서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우크라이나의 작물별 수확 면적 변화, 2021/22년도~2023/24년도

(단위: 천 ha)

구분	2021/22(A)	2022/23(B)	2023/24*(C)	(1-B/A)×100, %	(1-C/A)×100, %
밀	7,409	5,600	5,050	-9.4	-31.8
옥수수	5,486	4,050	3,800	-6.2	-30.7
보리	2,680	1,950	1,700	-12.8	-36.6

자료: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발행, 2024년 5월 23일을 이용하여 필자 계산.

3.4.2. 러·우 전쟁이 우크라이나 곡물 등 농산물 무역에 미친 영향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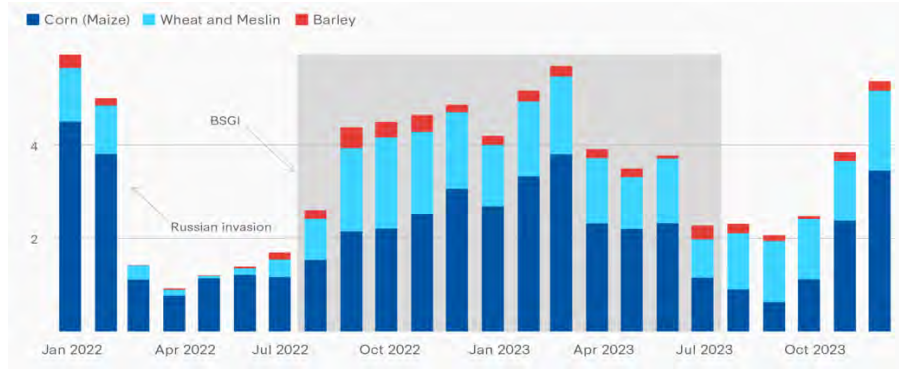
■ 곡물

전쟁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었다(그림 14 참조). 2022년 7월 말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가 발효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및 유지종자 수출이 오데사 주변 3개 항구에서 선적을 재개하였다. 수출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을 수확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저장 재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였다.

44) 이 부분은 Emma Dodd, Caitlin Welsh, and Joseph Glaub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Ukraine's Grain Exports', CSIS, 2024년 5월 2일 게재, <https://www.csis.org/analysis/setting-record-straight-ukraines-grain-exports>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14〉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2022년 1월-2023년 11월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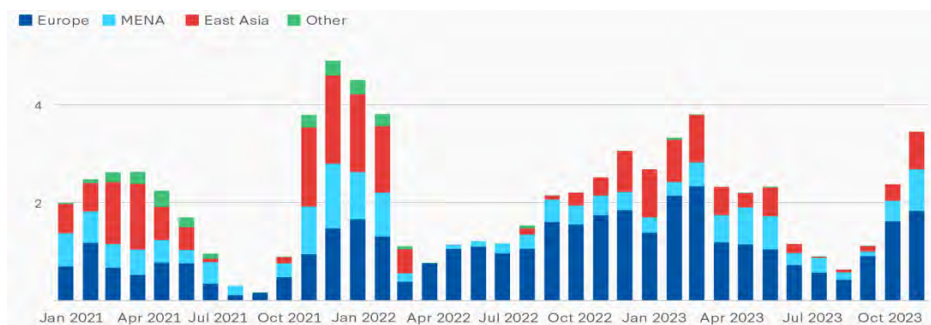


자료: USDA, CSIS, 'Food as the "Silent Weapon": Russia's Gains and Ukraine's Losses', 2024년 2월 29일
게재에서 재인용.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종료로 인하여 2023년 늦여름과 초가을에 수출업자들이 대체 경로를 찾으면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2023년 늦가을까지 수출량은 크게 반등하였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거둔 군사적 성공은 러시아 해군 함대가 흑해 서부에서 퇴각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흑해 항구에서 농산물을 운송할 수 있는 '인도주의 회랑'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해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러·우 전쟁 전 일주일 동안 항로를 선택하고 러시아 선박이 항로를 순찰하면서 선적이 중단되었다. 2022년 2월 24일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름에 수확한 밀과 보리의 대부분을 선적하였지만, 수출하려던 옥수수의 약 40~45%가 선적되지 않은 상태였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우크라이나의 수출 대상국별 옥수수 수출량, 2021년 1월-202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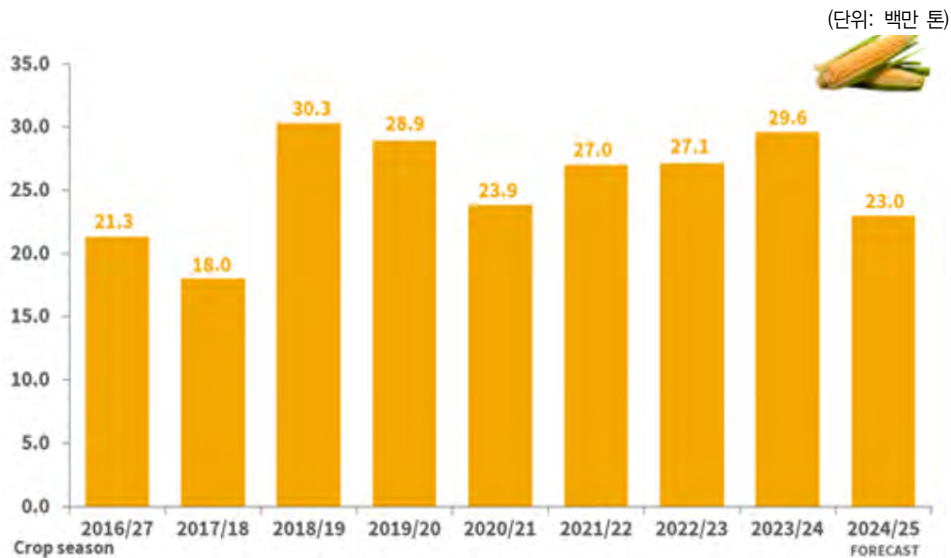


자료: Trade Data Monitor 홈페이지, CSIS, 'Food as the "Silent Weapon": Russia's Gains and Ukraine's Losses', 2024년 2월 29일 게재에서 재인용.

흑해에서의 해상 운송이 중단되자, 수출품은 육로와 강을 통해 철도, 트럭, 바지선을 이용하여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를 거쳐 유럽의 목적지와 루마니아의 콘스탄차 항구로 운송되었다. 이른바 연대항로라고 불리는 이 경로들은 같은 기간 일반적으로 흑해 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양의 약 3분의 1 수준을 수출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재배자와 수출업자들은 옥수수 수출이 전쟁 이전 수준보다 많았기 때문에, 전쟁 첫 2년 동안의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주로 2022/23년도의 대규모 초기 재고, 2023/24년도의 높은 수익률, 흑해 곡물 협정에 의한 항로 확보, EU를 통한 연대 항로 확보, 그리고 이후 다뉴브 항구와 곡물 회랑을 통한 항로 확보에 기인한다(그림 16 참조).⁴⁵⁾ 이는 항구를 통한 곡물 선적의 비중은 전체 선적량의 81%에 달하여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계속되는 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류 경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16〉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 변동, 2016-2024



자료: WASDE, USDA, USDA/ERS, 'Agricultural Markets in Russia and Ukraine', 2025년 1월 6일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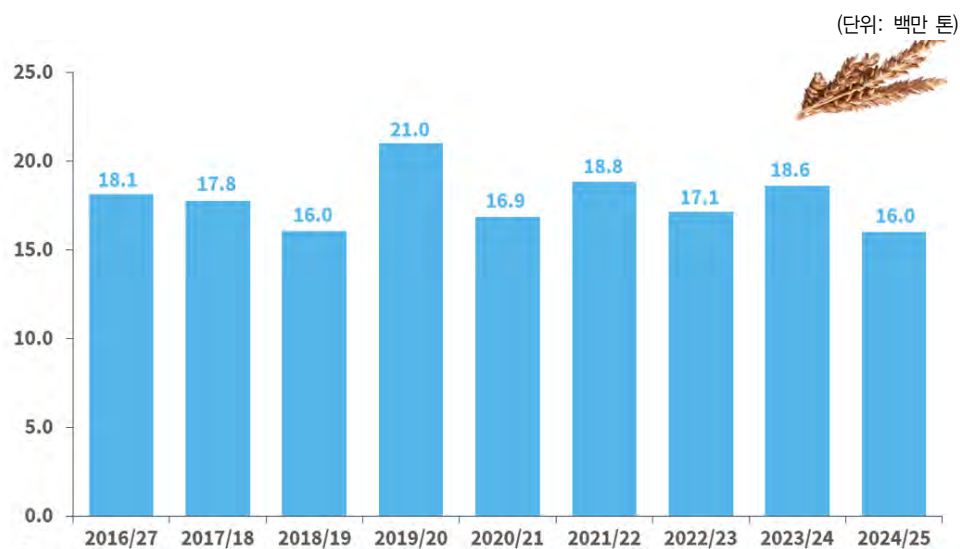
45) Iuliia Tetteh(Department of Agriculture, Illinois State University), Joana Colussi and Nick Paulson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Consumer Economics, University of Illinois), 'Exploring New Export Routes for Ukrainian Grain', farmdoc daily (13):201, 2023년 11월 2일 게재(<https://farmdocdaily.illinois.edu/2023/11/exploring-new-export-routes-for-ukrainian-grain.html>)

우크라이나의 옥수수과 밀 수출량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 UN이 흑해 항로 재개를 위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서명한 2022년 여름 이후 계절 평균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다. 2022년 2월 러·우 전쟁으로 인해 보안 위협과 인프라 손상이 증가하여 3월부터 7월까지 우크라이나의 항구가 거의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수출을 제한하고 옥수수과 밀 재고를 축적하는 결과를 낳았다.

EU에서도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옥수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위의 그림 15 참조).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전체 옥수수 수출량의 64% 이상이 EU 시장으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러·우 전쟁 이전 14개월 동안의 36%와 비교된다. 수출 지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튀르키예 포함)에 대한 옥수수 수출 비중도 전체 수출량의 25%에서 17%로 떨어졌다. 동아시아(주로 중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도 전쟁 이후 감소하였다. 동아시아로의 옥수수 수출은 러·우 전쟁 전 전체 옥수수 수출의 34%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2022년 2월 이후 그 비중은 19%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림 17〉 우크라이나 밀 수출, 2016~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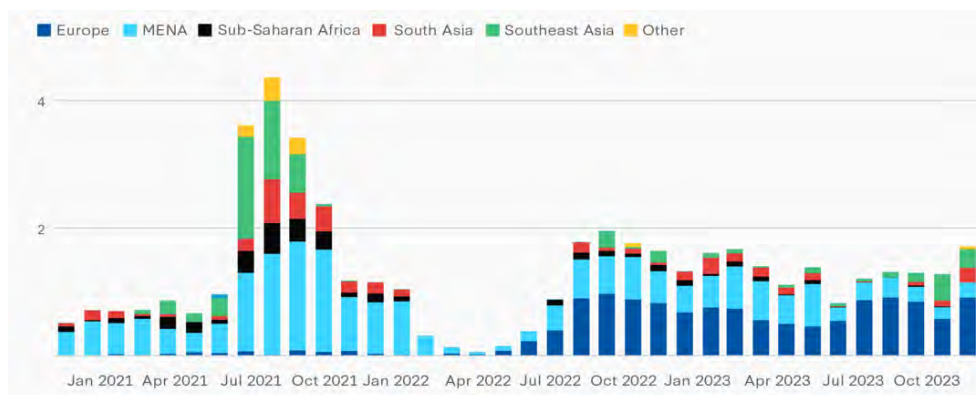


자료: WASDE, USDA, USDA/ERS, 'Agricultural Markets in Russia and Ukraine', 2025년 1월 6일 게재

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내수 및 수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국내 수요는 26%나 감소하였으며, 밀 생산량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여 수출할 수 있는 충분한 곡물 재고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밀 수출도 마찬가지로 전쟁 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체 밀 수출량의 2% 미만이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2022년 2월 이후 유럽 시장은 총 밀 수출량의 50%를 차지하였다(그림 18 참조).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튀르키예 포함)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큰 시장이지만,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53%에서 34%로 떨어졌다. 밀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MENA) 지역으로, 10%에서 3%로 떨어졌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30%에서 12%로 떨어졌다.

〈그림 18〉 지역별 우크라이나 밀 수출, 2021년 1월-2023년 11월



자료: Trade Data Monitor 홈페이지. CSIS, 'Food as the "Silent Weapon": Russia's Gains and Ukraine's Losses', 2024년 2월 29일 게재에서 재인용.

가을에 심은 작물이 봄에 수확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은 저장하는데 있어 제약에 부딪히기 시작하였다. 이는 높은 운송 비용과 결합되어 현지 곡물 및 유지종자 가격을 하락시켰다.

러·우 전쟁 중 농경지에서 벌어진 전투와 포격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농업 운영이 중단되었고, 농산물 물류가 마비되어 농민들은 농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농업에 대한 러시아 폭격의 영향은 엄청났다⁴⁶⁾.

2022/23년도에는 모든 주요 곡물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위기 동안 살아남기 위해 완화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2023/24년도의 생산량이 더 감소한 것

46) Emma Dodd, Caitlin Welsh, and Joseph Glaub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Ukraine's Grain Exports', CSIS, 2024년 5월 2일 게재

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23년 7월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자 국제사회의 반발이 컸다. 우크라이나의 동맹국과 식량 수입 무역 파트너들은 세계 식량안보와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를 통해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존 커비(John Kirby)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산술적으로만 볼 때, 곡물 협정이 연장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곡물 양만큼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곡물 가격을 포함한 세계 식량 가격은 2024년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중단에 따라 2023년 8월 중순,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의 영해를 통과하는 경로인 우크라이나 회랑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2023년 10월부터 농산물의 대량 선적을 재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3/24년도 곡물 수출량은 생산량과 함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23년도 수출량은 전쟁 이전 수준을 밑돌았으며, 항구 봉쇄로 인하여 2021/22년도에 축적된 대규모 기말 재고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결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던 데 비하면 감소한 것이다. 2024년 4월 1일 기준 우크라이나는 7만 9,300톤의 밀가루를 수출하였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1만 5,900톤에 비교하여 31.6% 감소한 수치이다. 2022/23년도(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약 4,900만 톤의 곡물과 콩과 작물을 수출한 바 있다⁴⁷⁾.

특히, 2024년도의 밀 수출량은 전쟁 이후 2개년도 동안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흔히 인용되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무역 추정치에 따르면, 곡물 수출량은 연간 6천만 톤, 월 평균 500만 톤이며, 이 중 90%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USDA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18/19년도에 6,752만 톤, 2019/20년도에 7,409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러·우 전쟁 이전 3년 동안의 월평균 수출량은 533만 톤으로, 2024년 2월에 세운 전쟁 기간 중 월간 기록인 520만 톤에 비해서도 웃도는 실적이다.

47) USDA FAS, 'Ukraine: Grain and Feed Annual, 2023년 4월 7일 게재, (<https://www.fas.usda.gov/data/ukraine-grain-and-feed-annual-6>)

■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곡물과 유지종자 수출을 위한 공급량을 확보하였을까?

2022년 7월에 체결된 흑해 협정 체결로 그동안 쌓였던 옥수수과 밀 재고량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9월과 10월에 5년 평균보다 더 많은 양의 옥수수과 밀을 수출할 수 있었다. 12월에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인 300만 톤 이상의 옥수수와 160만 톤의 밀을 수출하였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국제적으로 가격 압력을 일부 완화하였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국내 밀 사용량의 감소는 주로 인구 기반 감소와 축산업의 손실에 의해 주도되었다(뒤의 '4.2.3. 우크라이나의 축산업 부문 수급'부분 참조). 밀의 가용성과 제대로 작동하는 수출 루트 확립이 결합되어 초기 예상에 비해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2024년 2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회랑의 그레이터 오데사 항구에서 520만 톤의 곡물, 유지종자 및 기타 농산물을 전시 사상 최고치를 선적하였다. 회랑의 성공에 힘입어, USDA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밀, 조곡, 유지종자, 식물성 기름, 단백질 가루(protein meals)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2023/24년도 수출 추정치를 73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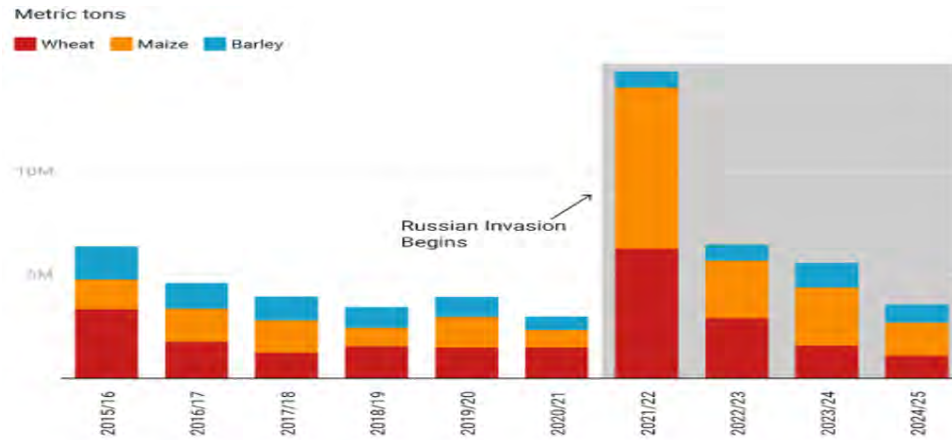
위의 통계들을 살펴보면, 전쟁 기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가 막대한 물량의 곡물 및 유지작물을 수출하였음을 보았다.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의 곡물 및 유지종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공급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는 흑해 무역로가 봉쇄되면서 상당한 곡물 재고를 쌓아 놓을 수밖에 없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와 우크라이나 회랑을 따라 이러한 항로가 개방되어 대량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재고는 점차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잉여 재고가 당시의 대량 수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확물 수출을 재개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감소한 농경지 및 소유의 생산시설 손상 또는 파괴, 우크라이나가 러·우 전쟁 이후 초기 몇 달 동안 축적된 재고의 대부분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수출량은 이전 연도의 수출량 수준보다 감소하였다(그림 19 참조).

48) Emma Dodd, Caitlin Welsh, and Joseph Glaub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Ukraine's Grain Exports', CSIS, 2024년 5월 2일 게재(<https://www.csis.org/analysis/setting-record-straight-ukraines-grain-exports>)

〈그림 19〉 우크라이나 곡물 기말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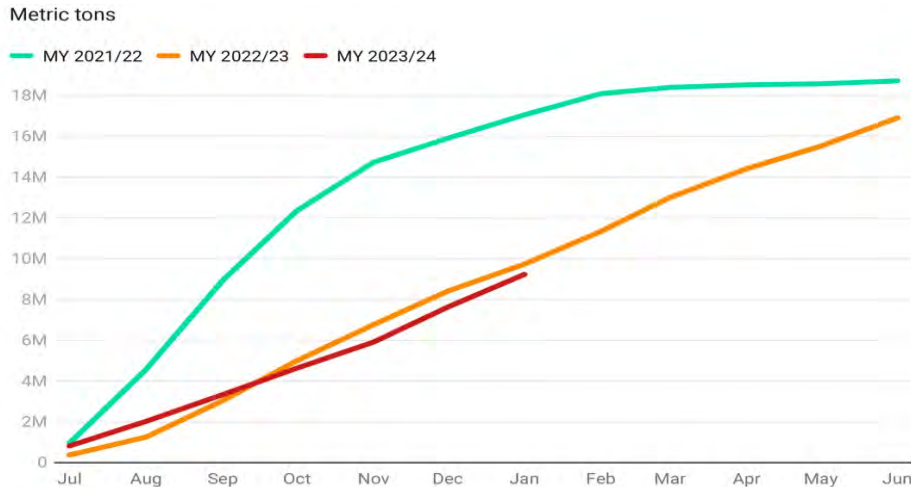


자료: CSIS research and analysis based on USDA/FAS database. Emma Dodd, Caitlin Welsh, and Joseph Glaub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Ukraine's Grain Exports', CSIS, 2024년 5월 2일 게재에서 재인용.

신규 항로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농산물의 양이 많았던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수출이 지연된 곡물과 유지종자의 수출이 전쟁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농산물 생산과 수출을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알려진 예상과는 달리, 2024년 12월 전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그림 20 참조) 전쟁 전 연간 수출량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수준이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Oleksandr Kubrakov)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우크라이나는 그레이터 오데사 항구의 전쟁 전 수출량에 거의 도달하였지만, 아직 이를 충족하거나 초과하지 못하였다.”고 밝힌 바도 있다.⁴⁹⁾

49) Emma Dodd, Caitlin Welsh, and Joseph Glaub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Ukraine's Grain Exports', CSIS, 2024년 5월 2일 게재에서 재인용.

〈그림 20〉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증가율



자료: CSIS research and analysis based on Trade Data Monitor database. Emma Dodd, Caitlin Welsh, and Joseph Glaub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Ukraine's Grain Exports', CSIS, 2024년 5월 2일 게재에서 재인용.

3.5. 러·우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의 피해액 추산⁵⁰⁾

■ 러·우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러·우 전쟁이 시작된지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를 풀어보기 위하여, 먼저 러·우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수치로 알아본다.

2024년 중반 일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2024년 GDP는 2021년 수준보다 22% 낮으며, 바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수출 감소를 감안할 때, 농산물 수출은 전쟁 전 수출액 비중이 40%였는데 비해 2024년 말 기준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농산물 수출의 비중이 금속과 같은 다른 부문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는 의미이다.

50) 이 부분은 Iuliia Tetteh(Department of Agriculture, Illinois State University), Joana Colussi(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Consumer Economics, University of Illinois), '1,000 Days of Ukraine-Russia's War: Projections vs. Reality', farmdoc daily (14):219, 2024년 12월 4일 게재를 참고하였다. (<https://farmdocdaily.illinois.edu/2024/12/1000-days-of-ukraine-russias-war-projections-vs-reality.html>)

러·우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농업부문, 특히 옥수수과 밀 생산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자료⁵¹⁾의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농업부문에 800억 달러(117조 6,000억 원)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였다(키예프 경제대학 추정치). 여기에는 100억 달러(14조 7,000억 원)의 손상된 자산이 포함되며, 이 중 57%는 기계·장비에 기인하고, 700억 달러(102조 9,000억 원)의 손실은 주로 분쟁으로 인한 매출 손실과 비용 증가에 기인한다. 가축 생산 감소로 인해 50억 달러(7조 3,500억 원) 이상 추정 손실액이 있음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국가로 2022년 이후 약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국토의 23%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통합된 드론(Drone) 및 센서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접근 방식을 탐색하여 의심되는 위험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광산 오염과 연계하여 현재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농경지를 개간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농업 잠재력을 복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 우크라이나의 곡물과 유지종자 수출은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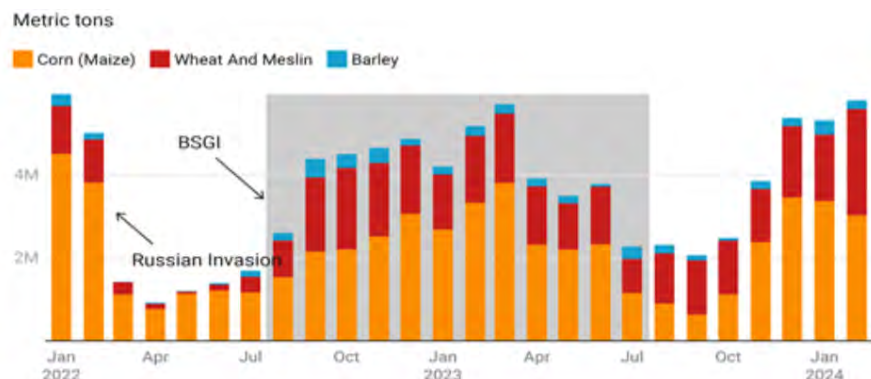
우크라이나의 고위 정책 입안자들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유지종자 수출이 전쟁 전 수출 수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전쟁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농업부문을 지탱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유지종자 수출을 크게 늘린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의 성과를 과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농업부문이 반등하였음을 암시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이 부문은 전쟁 내내 시스템 전반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경제를 회복하고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세계 농산물 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의 모든 측면에 걸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⁵²⁾.

51) Iuliia Tetteh(Department of Agriculture, Illinois State University), Joana Colussi(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Consumer Economics, University of Illinois), '1,000 Days of Ukraine-Russia's War: Projections vs. Reality', farmdoc daily (14):219, 2024년 12월 4일 게재.

52) Emma Dodd, Caitlin Welsh, and Joseph Glaub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Ukraine's Grain Exports', CSIS, 2024년 5월 2일 게재, <https://www.csis.org/analysis/setting-record-straight-ukraines-grain-exports>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이 전쟁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월별 수출량 이상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우크라이나 회랑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2023/24년도 곡물 및 유지종자 제품 수출량에 대한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총 6,377만 톤은 러·우 전쟁으로 영향을 받은 2021/22년도 및 2022/23년도보다 200만 톤 이상 낮다. 지난 2024년 2월 월간 수출량이 전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에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은 아직 러·우 전쟁 직전 곡물 수출량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그림 21 참조)⁵³⁾.

〈그림 21〉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자료: CSIS research and analysis based on Trade Data Monitor database. Emma Dodd, Caitlin Welsh, and Joseph Glaub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Ukraine's Grain Exports', CSIS, 2024년 5월 2일 게재에서 재인용.

러시아의 점령지가 된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과 유지종자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수출 통계 중의 일부가 아니게 되었으며,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 내 생산은 계속해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에 의한 USDA의 2023/24년도 수확면적 추정치에 따르면, 밀, 옥수수, 보리의 2021/22년도 수확면적은 각각 32%, 27%, 37% 감소하였다. 2024/25년도 시즌에는 유지종자로 경작하는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주요 작물로 경작되는 토지의 순 면적은 지난 2년 동안 19.5% 감소하였다.

53) CSIS research and analysis based on Trade Data Monitor database. Emma Dodd, Caitlin Welsh, and Joseph Glaub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Ukraine's Grain Exports', CSIS, 2024년 5월 2일 게재

4.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의 향후 10년 전망⁵⁴⁾

■ 앞으로 우크라이나 농업은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의 보리, 옥수수, 밀, 해바라기씨 수출은 전쟁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은 거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기간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주요 투입 및 연료의 예상 가격 상승, 노동력 및 투입 부족, 인프라 및 현장 피해, 무역 제한 등이 결합되어, 향후 10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농업 성장 잠재력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USDA의 국제 기준선(International Baseline)의 10년 전망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으로 인하여 계속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수입국들은 다른 공급국으로 눈을 돌려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제품의 소비를 줄이거나 자국 내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 밀, 해바라기 등의 생산량 증가는 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⁵⁵⁾. 그 이유는 이들 작물의 상당 부분이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USDA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전쟁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밀, 보리 수출은 향후 10년이 끝날 때까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22~23 참조).

USDA의 국제 기준선 전망 데이터에 따르면, 해바라기씨 수출은 향후 10년 동안 해바라기씨 및 해바라기씨유와 함께 비교적 평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33/34년도까지 우크라이나는 세계 벌크 해바라기씨 무역 비중을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바라기씨분 및 해바라기씨유 세계 무역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곡물 및 유지종자 가격은 차기 연도의 재배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의 생산량이 전쟁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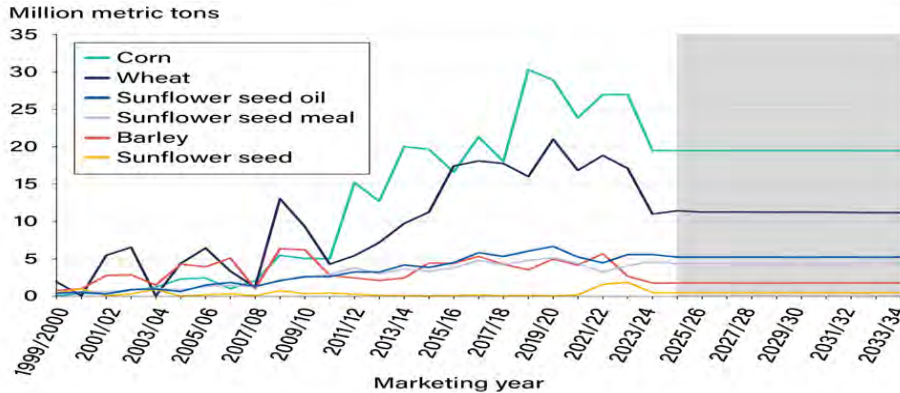
54) USDA는 일반적으로 국제 기준선이라고 하는 장기(10년) 국제 예측 데이터 세트를 매년 발표하며, 이는 주요 수출 및 수입 국가 지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능한 장기 공급, 수요 및 무역에 대한 전망이다. USDA의 경제연구국(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은 세계농업전망위원회(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가 의장을 맡고 있는 부처간 농업예측위원회(Interagency Agricultural Projections Committee)가 검토하고 승인한 장기 전망을 준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USDA의 공식 전망은 월간 USDA 세계 농산물 수요 및 공급 추정치(WASDE)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10년 국제 기준선 전망은 가장 최근의 10월 WASDE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무역에 대한 국제 기준선 전망은 2월에 USDA 농업전망 보고서의 연례 발표와 함께 제공된다.

55) USDA는 WASDE를 통해 별도의 추정치인 우크라이나의 단기 생산 및 수출 전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물 및 유지종자 운송이 제한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 전망 기간 동안 수출 가능한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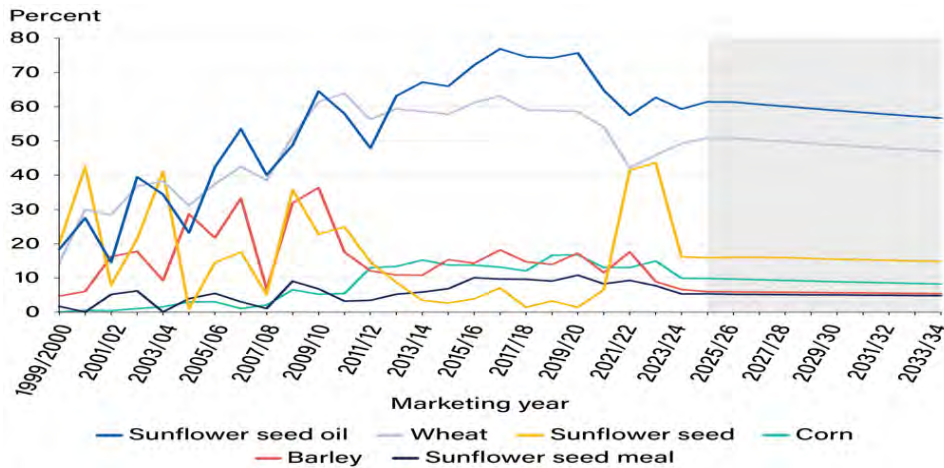
〈그림 22〉 우크라이나 주요 농산물 수출에 대한 2033/34년도까지의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James Hansen, Matthew Miller, Bryn Swearingen and Megan Husby, 'Ukraine's Rise in Grain and Sunflower Seed Market Share Limited by Ongoing War', 'Amber Waves', USDA/ERS, 2024년 5월 16일 게재에서 재인용.

〈그림 23〉 우크라이나 주요 농산물 수출의 세계 시장 점유율 장기 변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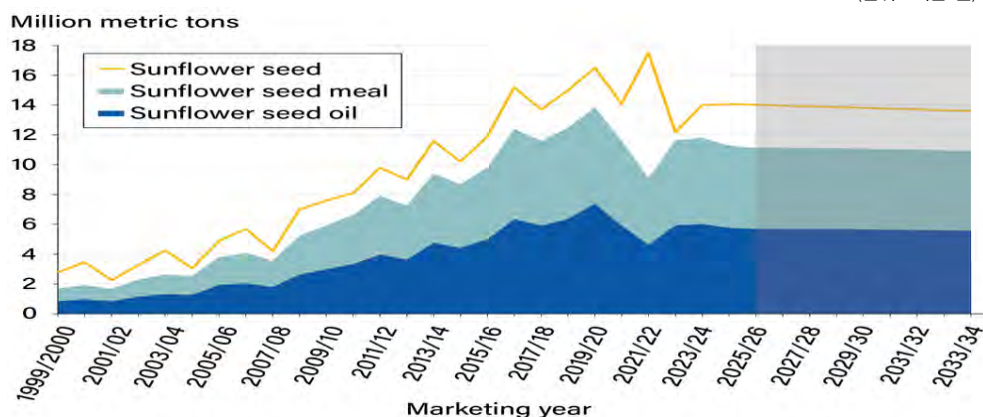


자료: James Hansen, Matthew Miller, Bryn Swearingen and Megan Husby, 'Ukraine's Rise in Grain and Sunflower Seed Market Share Limited by Ongoing War', 'Amber Waves', USDA/ERS, 2024년 5월 16일 게재에서 재인용.

USDA의 국제 기준선 전망에 의하면, 전망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씨 생산량이 2019/20~2021/22년도 연간 생산량 평균을 밑돌며 상대적으로 평탄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바라기씨유와 해바라기씨분 생산량도 국내 분쇄 작업이 전쟁 관련 제약에 계속 직면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탄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우크라이나 해바라기씨 관련 품목 생산의 2033/34년도까지의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James Hansen, Matthew Miller, Bryn Swearingen and Megan Husby, 'Ukraine's Rise in Grain and Sunflower Seed Market Share Limited by Ongoing War', 「Amber Waves」, USDA/ERS, 2024년 5월 16일 게재에서 재인용.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2033/34년도까지의 USDA 농업전망에서 전망한 수치와 크게 벗어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곡물 및 해바라기씨 부문의 생산 수준은 전쟁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예상 생산량은 여전히 국내 소비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어, 우크라이나는 곡물, 해바라기씨 및 해바라기씨 제품의 세계 10대 공급국으로 남을 수도 있다.

■ 밀 생산 및 수출 전망

밀 생산량은 2019/20년도~2021/22년도 생산 평균인 2,900만 톤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위의 그림 22 참조).

2021년 이집트와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 밀의 30% 이상을 수입하였지만, 양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으면서 2023년에는 10%로 감소하였다. 우크라이나를 대체하여 EU

와 러시아는 이집트의 수입 밀 수요 대부분을 충당하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제한적이었다. 전망 기간(2023/24년도~2033/34년도)에도 러시아와 EU가 주요 밀 수출국이 될 것이다. 세계 밀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EU의 비중은 1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도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제한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는 2022년과 2023년에 호주와 캐나다에 밀을 선택하였다. 호주와 캐나다의 밀 수출은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밀의 생산에 있어 품질 등의 문제로 국내 공급이 제한되면서, 밀 수입이 2023/24년도에 증가하였지만, 2033/34년도까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옥수수 생산 및 수출 전망

USDA의 국제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옥수수 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쟁 전 평균 생산량 수준인 3,600만 톤보다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을 전망이다.

중국은 2021년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이었다. USDA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옥수수 총수입량은 2033/34년도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공급량이 제한되자,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옥수수를 더 많이 구매하였다. 동시에,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 대한 공급량이 계속하여 상당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의 가금류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옥수수 수입량도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⁵⁶⁾. 향후 10년 동안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2021년 이집트 공급량의 22.5%를 차지하였지만, 이집트가 브라질에서 옥수수를 더 많이 구매함에 따라, 2022년에는 이 점유율이 15%로 떨어졌다. 2023년 이집트의 옥수수 수입 중 우크라이나의 비중은 증가하여 35%를 넘어섰지만, 이집트 총수입량은 아르헨티나와 EU의 작황 감소로 인해 감소하였다.

56) 이집트의 축산 사정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시장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7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세계 농산물 수급 추정(USDA/WASDE)에 따르면, 2024/25년도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전년 대비 660만 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2024년 10월과 11월 수출이 2023/24년도 동월 대비 29% 증가하였다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⁵⁷⁾.

■ 보리 생산 및 수출 전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곡물 중에서 보리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위의 그림 22 참조).

중국은 전쟁 전인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 보리 수확량의 50% 이상을 수입한 대량 수입국이였다. 전망 기간 동안 중국은 보리 수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보리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EU와 호주가 중국의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바라기씨 및 관련 제품 수출 전망

우크라이나의 대량 해바라기씨 수출은 2023년 EU와 튀르키예를 통한 무역 흐름을 지배하였다. USDA의 국제 기준선 데이터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해바라기씨 수입량은 향후 10년 동안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EU의 해바라기씨 총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24년도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씨유 수출은 2021/22년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인도로의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공급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EU, 러시아로부터 해바라기씨유 수입 대상국을 전환하였다. USDA의 장기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총 해바라기씨유 수입량은 전망 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인도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체 해바라기씨유 공급국가에 계속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예년보다 훨씬 적은 물량을 수입하게 되었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일부 해바라기씨유와 해바라기씨를 확보하였다. 중국의 해바라기씨 수입은 향후 10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57) Maksym Samoiliuk, 'Ukraine War Economy Tracker', Center for Economic Strategy, 2025년 3월 3일 최종 수정, <https://ces.org.ua/en/tracker-economy-during-the-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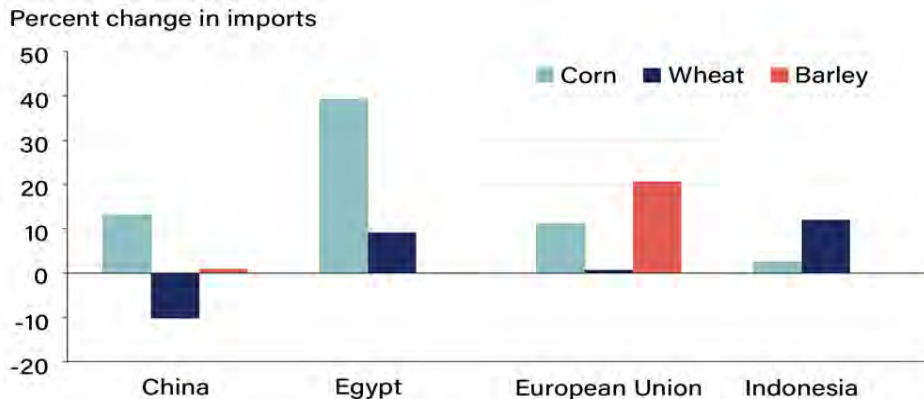
있으며, 해바라기씨유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곡물 수출 전망

USDA의 국제 기준선 데이터에 의하면, 전망 기간 옥수수, 밀, 보리에 대한 EU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2022/23년도 우크라이나는 EU 밀 수입의 39%, 보리 수입의 40%, 옥수수 수입의 50%를 차지하였으며, 보리와 밀의 점유율은 2021년 6%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EU 국가들이 철도나 강 또는 도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곡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25).

이러한 운송 수단은 2022년 EU가 우크라이나 보리, 옥수수, 밀,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수출의 주요 경로가 되었다. 생산자들의 반대와 수입 제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EU는 2023/24년도 우크라이나 수출의 주요 목적지로 남았다.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EU의 수입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25〉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콩류, 밀, 보리 수입 변화율 전망, 2023/24년도



자료: James Hansen, Matthew Miller, Bryn Swearingen and Megan Husby, 'Ukraine's Rise in Grain and Sunflower Seed Market Share Limited by Ongoing War', 'Amber Waves', USDA/ERS, 2024년 5월 16일 게재에서 재인용.

5. 요약 및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이 글에서는 1) 러·우 전쟁이 국제 곡물 및 자재 가격과 농산물 생산·수출입에 미친 영향 2)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농업부문 피해 그리고 3) 그로 인한 영향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러·우 전쟁은 식량·식품·비료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상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전 세계 식량 가용성을 감소시켰다. FAO에 따르면, 식량 가격은 2022년 3월에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2020년 같은 달에 비해 60% 이상 상승한 수준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 및 생산 급감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러시아의 조치는 1)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 봉쇄, 2) 우크라이나의 식품 가공 및 수출 인프라에 대한 공격, 3) 우크라이나 경작지에 대한 폭격과 점령, 4) 자국 식량과 비료 수출의 의도적 감축 등이었다.

이에 대하여 서방국가가 취한 대표적인 조치는 연대 항로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이다. 이러한 조치로 곡물과 식품 그리고 농자재의 현저한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다.

2023년 7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종료 이후, 2023/24년도 우크라이나는 밀 1,384만 톤을 포함하여 3,486만 톤의 곡물 및 콩과 작물을 수출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수출항로 선택은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에 더 많은 곡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던 가격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이웃 국가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폴란드는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과 밀, 보리 생산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옥수수, 밀, 보리 수출도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보리 수출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곡물과 유지종자 작물 중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향후 10년 동안에도 우크라이나 곡물 및 유지종자 부문의 성장 전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업체들은 계속해서 낮은 가격에 직면해 있다. 평소보다 높은 공급량과 평균 이상의 거래 비용, 특히 전쟁 관련 위험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증가를 반영하는 운임 비용이 결합,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유지작물의 시장 출하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급격히 감소시켜 2020년 중반부터 상승해 오던 곡물 가격을 더욱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안보

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도 이미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전쟁 관련 불확실성은 수출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쟁 이후의 수출은 생산시설 손실·손상과 재배되지 않은 지역으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식량 불안정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인한 식량 부족은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이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의 흐름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17일 기준,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 대한 수출량이 1/5로 줄었다.

전쟁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의 약 21%, 보리의 17%, 해바라기씨의 19%를 차지하던 곳이었다. 전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에서 버려진 농경지는 우크라이나 전체 농경지의 약 7.5%에 해당한다. 아울러, 수출시장으로의 운송 비용 증가로 우크라이나는 작물 면적 및 수확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다.

전쟁 첫 2년 동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이 전쟁 이전 수준보다 많았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2022/23년도의 대규모 초기 재고, 2023/24년도의 높은 수익률, 흑해 곡물 협정에 의한 항로 확보, EU를 통한 연대 항로 확보, 그리고 이후 다뉴브 항구와 곡물 회랑을 통한 항로 확보에 기인한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우크라이나의 수출기회를 늘리고, 국제적으로 가격 압력을 일부 완화하였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러시아는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의 식량 불안정을 (1) 우크라이나를 식량 공급원에서 제거시켜(또는 감소시켜), 이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2) 이들 국가의 식량 공급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므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악용하였다. 전쟁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면, 러시아는 계속 식량과 비료를 강력한 소프트 파워 도구로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의 파괴와 그로 인한 세계 식량안보의 피해를 계속 이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이처럼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애초부터 러시아의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농업부문에서 800억 달러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였다. 가축 생산 감소로 인해 50억 달러 이상 손실도 있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체 농경지의 7.5%를 잃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2022년 이후 약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국토의 23%를 오염시키고 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보리, 옥수수, 밀, 해바라기씨 수출은 러·우 전쟁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지만, 성장은 매우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기간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주요 투입 및 연료의 예상 가격 상승, 노동력 및 투입 부족, 인프라 및 현장 피해, 무역 제한 등이 결합되어, 향후 10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농업 성장 잠재력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바라기씨 수출은 향후 10년 동안 해바라기씨 및 해바라기씨유와 함께 비교적 평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낮은 곡물 및 유지종자 가격으로 새로운 연도의 재배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의 생산량이 전쟁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곡물 및 유지종자 운송이 제한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 그 기간 수출 가능한 공급량 감소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옥수수 생산량은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쟁 전 평균 생산량 수준보다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곡물 중에서 보리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밀 생산량은 2019/20년도~2021/22년도 생산 평균인 2,900만 톤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5.2. 우크라이나 농업부문 피해 요약⁵⁸⁾

이 글에서 지정한 수치들을 중심으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의 피해 정도를 <표 4>에 요약하여 보았다.

우선, 곡물 전체적으로 보면 수확 면적이나 생산량, 수출량 모두 대략 26~29%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밀의 경우 수확 면적이 31% 줄었지만, 생산량 감소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출량 감소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있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수확면적, 수출량 감소 모두 30% 전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생산량 감소율은 상당히 큰 수준이다. 이는 러시아의 수출 길 봉쇄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원활치 못한 재배관리로 단수가 줄었으며, 옥수수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8) <표 7>에서의 각 수치들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통계치와는 다소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쟁 전과 후를 비교하는 시점이 입수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감소율 산정에 있어 시점이 통일되지 못하였다. 특히, 곡물 이외의 품목에서는 전쟁 전인 2021년과 전쟁 발발 해당 연도인 2022년에 국한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이러한 현상은 보리의 수확면적 감소와 생산량 감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수출량이 원래 크지 않았던 관계로 수출은 오히려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밀의 경우에는 수확 면적이 37% 감소하고 수출량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표 4〉 러·우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의 피해 정도 요약

		2021/22	2022/23	2023/24	2024/25	전쟁 전후 감소율	비고
곡물 전체	수확면적					29% 이상	2021년 대비 2023년
	생산			8200만 톤	7300 ~ 7500만 톤	-29%	전쟁 전 대비 후
	수출	7409만 톤	4900만 톤	3486만 톤	6733만 톤	-26%	2023/24년도 대비 2024/25년도
밀	수확면적	740.9만ha	560만 ha	505만 ha	500만 ha	-31.9%	2021/22년도 대비 2023/24년도
	생산			2283만 톤	2100만 톤	-8.7%	2023/24년도 대비 2024/25년도
	수출		1301만 톤	1750만 톤	1400만 톤	-20%	2023/24년도 대비 2024/25년도
옥수수	수확면적	5486천ha	4050천ha	3800천ha		-30.7%	2021/22년도 대비 2023/24년도
	생산	4213만 톤			2700만 톤	-64%	2021/22년도 대비 2024/25년도
	수출		2243만 톤	1876만 톤	1960만 톤	-33.0%	2022/23년도 대비 2024/25년도
보리	수확면적	268만ha	195만ha	170만ha		-36.6%	2021/22년도 대비 2023/24년도
	생산	990만 톤		696만 톤(추정)	590만 톤	-40.4%	2024/25년도 대비 2021/22년도
	수출		228만 톤	196만 톤	230만 톤	0.9%	2022/23년도 대비 2024/25년도
호밀	수확면적					-37%	2021년 대비 2023년
	수출			17700톤	1000톤	-94.4%	2022/23년도 대비 2024/25년도
해바라기 씨유	수확면적			580만 ha	572만 ha	-1.4%	2023/24년도 대비 2024/25년도
	생산	739만 톤	591만 톤	632만 톤	615만 톤	-16.8%	2021/22년도 대비 2024/25년도
	수출	446만 톤	565만 톤	580만 톤	572만 톤	-2.7%	2023/24년도 대비 2024/25년도
해바라기씨	생산	1750만 톤	1220만 톤	1450만 톤	1470만 톤	-16%	2021/22년도 대비 2024/25년도
채소 및 감자	생산	3130만 톤	2840만 톤			-9.3%	2021년 대비 2022년
과일 · 베리류 · 멜론 · 포도	생산	250만 톤	230만 톤			-8%	2021년 대비 2022년
우유	생산	870만 톤	780만 톤			-10.30%	2021년 대비 2022년
육류	생산	240만 톤	220만 톤			-8.3%	2021년 대비 2022년
양모	생산	1500톤	1200톤			-20.0%	2021년 대비 2022년
계란	생산	141억 개	119억 개			-15.6%	2021년 대비 2022년

		2021/22	2022/23	2023/24	2024/25	전쟁 전후 감소율	비고
가금육	생산	1374천 톤	1253천 톤			-8.8%	2021년 대비 2022년
	수출	459천 톤	377천 톤			-17.9%	2021년 대비 2022년
닭고기	수출	458천 톤	419천 톤	428천 톤	445천 톤	-2.8%	2021년 대비 2024년 (USAD/FAS)
돼지 고기	생산	724천 톤	659천 톤			-9.0%	2021년 대비 2022년
	수출	3800톤	300톤			-92.1%	2021년 대비 2022년
소, 송아지고기	생산	311천 톤	260천 톤			-16.4%	2021년 대비 2022년
	수출	27300톤	13600톤			-50.2%	2021년 대비 2022년
소	사육마릿수	2874천 두	2156천 두			-25.0%	2021년 대비 2024년
돼지	사육마릿수	5876.2천 두	5608.8천 두	4945.3천 두	5094천 두	-15.8%	2021년 대비 2023년
	수출마릿수	19천 두	1천 두	0	0	-100.0%^	2021년 대비 2024년 (USAD/FAS)
양, 염소	사육마릿수	1140.4천 두			906.3천 두	-20.5%	2021년 대비 2024년
레닛치즈	생산량	111천 톤	89천 톤			-19.8%	2021년 대비 2022년
	생산량	77천 톤	71천 톤			-7.8%	2021년 대비 2022년
버터	수출량	9천 톤	13천 톤	7천 톤	6천 톤	-33.3%	2021년 대비 2024년 (USAD/FAS)
연유	생산량	76천 톤	60천 톤			-21.1%	2021년 대비 2022년
탈지분유	생산량	34천 톤	34천 톤			0.0%	2021년 대비 2022년
	수출량	13천 톤	22천 톤	20천 톤	20천 톤	9.1%	2022년 대비 2024년 (USAD/FAS)
GDP						-29% 이상	2021년 대비 2022년
GDP 중 농업비중						-29%	2022년 대비 2023년

주: 각 수치들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기에 실제 통계치와는 다소 다를 수 있음. 축산의 경우 2021~2024년임.

자료: 본문 및 USDA/FAS 자료(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2025년 4월을 중심으로 필자 작성).

해바라기씨나 해바라기씨유 모두 수확 면적 감소율은 낮지만, 단수 감소로 생산량은 16% 내외 감소에 머물렀다. 채소 및 감자, 과일·베리류·멜론·포도 등 원예작물 생산량은 대략 9%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의 경우 사육두수는 대략 13~25% 감소하였는데, 소 사육두수는 절반이 줄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축산물 생산은 대략 8~20% 내외 감소하였으며, 수출 감소율은 매우 크다. 원래 수출량도 적었지만, 전쟁으로 축산물 수출까지 신경쓰기 어려웠던 사정 때문이다.

레닛치즈나 버터, 연유, 탈지분유 등과 같은 유제품의 경우 감소율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레닛치즈와 연유의 경우 대략 20% 내외로 감소한 반면, 버터는 7.8% 감소하였다. 하지만 탈지분유 생산량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 사육마릿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탈지분유가 비교적 장기가 보관능력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의 GDP는 전쟁 전후(2021년 대비 2022년) 약 29% 감소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 또한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3. 종전 합의 후의 예상 변화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강력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재까지 휴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우 전쟁이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세계 경제 특히 유럽 경제는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즉,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유럽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기업 신용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부동산과 건설 산업은 활기를 띠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유럽의 군비 지출 증가와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문제는 유럽 경제에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의 군비 지출 증가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국채 발행과 같은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⁵⁹⁾.

우크라이나의 농업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요 글로벌 식량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의 모든 측면에 걸쳐 투자를 늘려야 하며, 향후 전쟁 전의 수출 및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일한 흑해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도전이다.

59) 네이버 블로그, joulekim, "유럽 경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으로 '평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2025년 3월 4일 게재.(<https://blog.naver.com/joulekim/223783662816>)

참고문헌

- 노컷뉴스, ‘러·우 협상에 푸틴 참석하나…’트럼프까지 정말 멋진 만남?’, 2025년 5월 14일
- 뉴시스, “EU, '우크라 관세 면제' 내달 종료…옥수수 등에 다시 관세부과”, 2025년 5월 14일자
- 대학지성 In&Out,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 2022년 12월 10일 게재
- 서울신문, ‘러 폭격에 젤렌스키‘SOS’ 외쳐...그러나 트럼프의 선택은 ‘골프’’, 2025년 4월 7일 기사.
- 연합신문, ‘美, 우크라 휴전 조속타결 가능성 희박 판단, “푸틴에 좌절감”’, 2025년 4월 2일자 기사.
- 연합뉴스, ‘말뿐인 30시간 휴전’ 끝나자마자 러, 우크라에 공습 단행’ 2025년 4월 21일 게재
- 연합뉴스 2021년 4월 2일자
- 조세일보, “러·우 흑해 휴전 합의서 항구 안보보장 빠져...러에 더 유리한 협상”, 2025년 3월 26일
게재
- 헤럴드경제, ‘미국-우크라 “30일 휴전 동의·美 군사지원 재개”...트럼프 “이제 우린 러시아로 간
다’’, 2025년 3월 12일자 게재,
- 허 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2권 6호(2023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이집트의 농업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7월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이집트 농업 현황과 과제’,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7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시장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7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박지원, 김태련, ‘이집트의 곡물 수급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7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PK Inform Agri News, Over the past six months, Russia attacked the port
infrastructure of Ukraine more than 30 times – USPA’, 2024년 2월 6일 게재
- Arvin Donley, ‘FAS forecasts big drop in Ukraine grain exports’, World-Grain.com,
2025년 2월 6일 게재
- BBC, ‘How much grain is Ukraine exporting and how is it leaving the country?’, 2024
년 4월 2일 게재
- Black Sea Grain Initiative Joint Coordination Centre, 18 July 2023.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ow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ggravated the global food crisis’, 2025년 1월 31일 최종 게재
- CSIS, ‘Food as the “Silent Weapon”: Russia’s Gains and Ukraine’s Losses’, 2024년 2월
29일 게재

- Emma Dodd, Caitlin Welsh, and Joseph Glaub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Ukraine's Grain Exports', CSIS, 2024년 5월 2일 게재
- European Council. 'Global food insecurity: Council approves conclusions on the Team Europe response', 2022년 6월 20일 보도 자료
- European Council, 'Ukrainian grain exports explained', 2025년 1월 30일 최종 수정,
- European Council, 'EU sanctions against Russia explained', 2025년 3월 31일 최종 수정
- European Council, 'Leaders' Summit on Global Food Security', 2024년 1월 10일 게재
- European Council. 'Food security and affordability', 2025년 2월 3일 게재
- European Council, 'How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ggravated the global food crisis', 2025년 1월 30일 최종 수정,
- European Council,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 30-31, 2022년 5월.
- European Council, 'European Council, 23-24, 2022년 6월'
-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23 June 2022
- Eurostat, 'Food price monitoring tool-Price trends along the food supply chain',
- France Diplomacy,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e Resilience Mission (FARM) initiative for food security in the most vulnerable countries'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development-assistance/other-major-sectors/food-security-nutrition-and-sustainable-agriculture/international-food-and-agriculture-resilience-mission-farm-initiative-for-food/>)
- 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and the 16 GRFC partner agencies, 'Global Report on Food Crises(GRFC) 2024」
- Iuliia Tetteh(Department of Agriculture, Illinois State University), Joana Colussi and Nick Paulson(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Consumer Economics, University of Illinois), 'Exploring New Export Routes for Ukrainian Grain', farmdoc daily (13):201, 2023년 11월 2일 게재
- James Hansen, Matthew Miller, Bryn Swearingen and Megan Husby, 'Ukraine's Rise in Grain and Sunflower Seed Market Share Limited by Ongoing War', 「Amber Waves」, USDA/ERS, 2024년 5월 16일 게재
- Josep Borrell,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2023년 7월 17일 프레스릴리스. 'Wang Yi meets with EU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Josep Borrell'
- Maksym Samoiliuk, 'Ukraine War Economy Tracker', Center for Economic Strategy, 2025년 3월 3일 최종 수정
-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발행, 2024년 5월 17일, 2024년 5월 23일, 2025년 1월 23일,

2025년 1월 31일, 2025년 2월 3일, 2024년 5월 10일, 2024년 5월 22일, 2024년 5월 23일, 2024년 5월 27일자 게재

Ukraineform, 'Ukraine exports 5.2M tonnes of grain, leguminous crops last month' 2024년 2월 4일 게재,

USDA/ERS, 「구소련의 작물면적 변화(Changing Crop Area in the Former Soviet Union)」, 2017년

USDA/ERS, 「Wheat Outlook」, 2023년 1월호

USDA/ERS, 'Agricultural Markets in Russia and Ukraine', 2025년 1월 6일 게재.

USDA FAS, 'Ukraine: Grain and Feed Annual, 2023년 4월 7일 게재

USDA/FAS,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2025년 4월

WFP annual review 2022

World-grains.com, 'FAS forecasts big drop in Ukraine grain exports:', 2025년 2월 6일 게재,

나무위키, <https://namu.wiki/>

네이버 블로그 행운퀴즈, 2025년 4월 2일 게재(<https://blog.naver.com/quiz8253/223818888211>)

네이버 블로그, jouleekim, “유럽 경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으로 ‘평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2025년 3월 4일 게재.

네이버 지식인, 'Q.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이 내용이 뭔가요??'에 대한 답변, 2025년 2월 27일 게재

네이버 지식인, 'Q. 노르트스트림 우크라이나'에 대한 답변, 2022년 2월 9일 게재

'환율플러스' 앱

국제곡물위원회(IGC).

CSIS research and analysis based on Trade Data Monitor database

Investing.com

KPLR 홈페이지, <https://www.kpler.com/company/about-us>)

NASA Harvest 홈페이지, www.nasaharvest.com)

Statista(<https://www.statista.com/topics/10816/grain-market-in-ukraine/#statistic> Chapter)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Trade Data Monitor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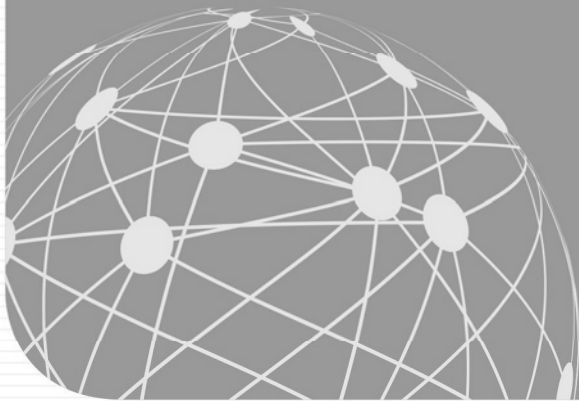
UNCTAD

USDA

WASDE

Part 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뉴스 - 로이터 129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박도연*

1. 해외곡물시장 5월 주요 뉴스 – 로이터(Reuters)

1.1. 우크라이나, 2025년 해바라기 파종 면적 5% 증가 전망(Ukraine 2025 sunflower sowing area seen rising 5%, farm lobby says) – 2025.5.2.

세계 최대 해바라기유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2025년 해바라기 파종 면적을 전년 대비 5% 늘려 약 510만 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크라이나 농업 로비 단체 UCAB가 수요일 밝혔다. 2024년에는 악천후로 인해 해바라기씨 수확량이 13% 감소하면서 현지 해바라기씨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4월 농산물 수출 전월 대비 23% 감소(Ukraine farm exports fall 23% in April month on month, lobby says)

우크라이나 농업 로비 단체 UCAB는 목요일, 세계 주요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4월 농산물 수출이 전월 대비 23.4% 감소한 410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에 약 10% 증가했던 흐름에서 반전된 수치이다.

1.2. 세계 쌀값 최저치 기록, 인도 공급 과잉에 상승세 제한 전망 (ANALYSIS—Global rice prices have hit a floor, but India's supply glut will smother any gains) – 2025.5.7.

세계 쌀 가격이 수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최대 수출국인 인도의 통화 강세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인도의 비축량 급증과 아시아 지역의 풍작이 가격 반등을 억제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밝혔다. 쌀값 하락은 아프리카 등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으나, 세계 쌀 생산의 약 90%를 차지하는 아시아 농가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dypark@krei.re.kr

아르헨티나, 강우로 대두 수확 중단(Argentina's soy harvest stalls after rains, meteorologist says)

아르헨티나 주요 농업 지역에 내린 폭우와 높은 습도로 인해 이미 지연되고 있던 대두 수확 작업이 다시 중단되었다고 기상학자가 화요일에 밝혔다. 세계 최대 대두유 및 대두박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3월과 4월 초에도 강우로 인해 수확이 지연되었다.

1.3. 팜유 가격, 6~11월 중 톤당 3,500링깃으로 2년 만의 최저치 전망 (Palm oil prices to hit 2-year low at 3,500 ringgit/T in June–November, analyst Mistry says) – 2025.5.8.

업계 애널리스트 도람 미스트리는 수요일, 말레이시아산 팜유 선물 가격이 오는 6월부터 11월 사이 톤당 3,500링깃 수준까지 하락해 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반기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계절적 요인에 따라 팜유 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브라질 5월 대두 수출, 미중 갈등 및 작황 영향으로 감소 가능(Brazil's May soy exports could drop as trade war, large crop extend season – Anec)

브라질 곡물수출업체협회(Anec)는 수요일, 브라질이 사상 최대 대두 수확을 기록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대두 수출량이 1,26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 수출량은 향후 선적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5월 수출 전망치는 4월과 지난해 5월 대비 약 90만 톤 감소한 수치이다.

1.4. 중국, 통관 지연으로 인한 무역 차질로 4월 대두 수입 10년 만에 최저 (China's April soybean imports hit decade-low as customs delays disrupt trade) – 2025.5.9.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4월 대두 수입이 통관 지연과 브라질산 출하 지연 등의 물류 문제로 크게 감소해 1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4월 대두 수입량은 총 60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감소했으며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곡물거래소, 대두 수확 전망 상향(Argentina grains exchange edges up soy harvest forecast on better yields)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목요일에 2024/25 시즌 대두 수확량 전망을 기존 4,860만 톤에서 5,0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초기 대두 수확이 약 절반 진행되었으며, 주요 곡창지대 및 코르도바 주에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확량을 기록했다.

중국, 룰라 방중 앞두고 브라질 대두 수출업체 5곳 제재 해제(China lifts suspension on five Brazilian soy exporters ahead of Lula visit)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이 식물 위생 문제로 중단되었던 브라질 대두 수출업체 5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목요일 밝혔다. 브라질 농업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브라질과 중국 보건 당국 간 기술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1.5. 중국, 대두박 사용 감축 계획에 따라 2025/26년 대두 수입 감소 전망 (China forecasts lower soybean imports in 2025/26 on plans to reduce soymeal use) – 2025.5.13.

중국은 2025/26년도 첫 작황 전망에서, 축산 부문에서 대두박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따라 내년 대두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요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 내 대두 함량을 줄이려는 정책은 축산업 부문의 대두 소비를 감소시키며, 대두 수입량도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1.6. 브라질, 미중 무역 휴전에도 중국 대두 시장 우위 유지(US farmers say Brazil keeps edge in China's soy market despite trade truce) – 2025.5.14.

미중 간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대 공급국인 브라질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농민들은 대중국 대두 수출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월요일 발표된 휴전 조치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향후 3개월간 145%에서 30%로 인하하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서리와 가뭄으로 곡물·유채 작물 피해(Frost and drought hit grain and oilseed crops in southern Ukraine, forecasters say)

우크라이나 기상청은 화요일, 5월 초 날씨가 대체로 곡물 재배에 적합했으나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서리와 가뭄으로 일부 월동 밀, 완두콩, 유채, 보리 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농업 컨설팅 업체 APK-Inform은 토양 표면과 대기 중에 발생한 서리를 위험한 현상으로 규정하며, 이는 과일과 채소, 포도밭뿐 아니라 유채와 봄 보리에도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1.7. 캔자스 남서부 밀 수확량, 평년 대비 높은 수준(Southwest Kansas wheat yield estimated above average, crop tour shows) – 2025.5.15.

캔자스주 작황 조사에 따르면, 주 남서부 지역의 경질 적색 겨울밀 수확량이 에이커당 53.3부셀(bpa)로 추정되어 2024년의 42.4bpa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 품질 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최근 5개년(2019~2024년) 평균 수확량은 42.3bpa이다.

브라질, 2024/25년 옥수수 생산량 1억 2,500만 톤 전망(Brazil corn output forecast at 125 mln metric tons, association president says)

브라질 옥수수 및 수수 생산자협회(Abramilho)의 파울루 베르톨리니 회장은 수요일, 2024/25년 브라질 옥수수 생산량이 약 1억 2,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옥수수 에탄올 산업의 소비량이 조만간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르톨리니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옥수수 에탄올이 이미 약 2,000만 톤의 옥수수를 소비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수요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2025년 곡물 수출 수익 감소로 농업 부문 문제 부각(Russia's projected fall in 2025 grain export revenues highlights problems in agriculture)

러시아 정부의 2025년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곡물 수출 관세를 통한 세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4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에 대한 보조금도 절반 가까이 줄

어둠 전망이다. 이번 수치는 최근까지 성공 사례로 평가받던 러시아 농업 부문이 글로벌 곡물 가격 하락, 높은 국내 금리, 연료 및 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점차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1.8. 아르헨티나 대두 농가, 폭우 전 수확 가속(Argentina's soy farmers race ahead with harvest to beat the rains) – 2025.5.16.

아르헨티나 팜파스 평야 중심부의 크리스티안 지아코본 농장에서는 최근의 폭우로 지연된 대두 수확을 추가 폭풍우가 오기 전에 마치기 위해 해 뜨기 전부터 일꾼들이 서둘러 작업에 나서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품목인 대두가 예년보다 강한 비로 인해 수확이 지연되면서 올해 대두 판매 속도는 최근 11년 중 가장 느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크라이나, 5월 대두 수출 가격 상승 기대(Ukrainian producers expect soybean export prices to grow in May)

우크라이나 농업생산자연합(UAC)은 목요일, 현재 대두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5월 말까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에 사상 최대인 650만 톤의 대두 수확량을 기록했지만, 농가와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는 옥수수나 해바라기처럼 수익성이 더 높은 작물로 전환하기 위해 대두 재배 면적을 12% 줄여 약 240만 헥타르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1.9. 아르헨티나, 폭우로 대두 수확에 심각한 손실 우려(Argentina's soy crop could face 'significant losses' after storms) – 2025.5.20.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월요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폭우로 인해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북서부 지역의 2024/25년 대두 작황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존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밝혔다. 현재 거래소는 대두 생산량을 5,000만 톤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번 폭우로 인해 수확이 더 늦어지고 작물 자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옥수수 파종률 78%, 대두 66%, 밀 등급 하락(USDA says corn crop 78% planted, soy 66%; wheat ratings dip)

미국 농무부(USDA)가 월요일 발표한 주간 작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일요일 기준 미국 전체 옥수수 파종률은 78%로, 시장 예상치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최근 5년 평균치인 73%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두 파종률은 66%로 집계되어 5년 평균인 53%를 크게 상회했고 대부분의 분석가 예측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 4월 브라질산 대두 수입 22.2% 감소(China April soy imports from Brazil fall 22.2% vs year earlier)

수확 지연, 물류 문제, 통관 지연으로 인해 선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국의 4월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총서가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브라질로부터 수입한 유지종자는 총 460만 톤으로 집계됐다.

1.10. 아르헨티나, 밀 수출세 감면 연장 반면, 대두와 옥수수 제외 (Argentina extends tax break to wheat exports, rules out soy and corn) – 2025.5.21.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화요일, 주요 곡물 중 하나인 밀에 대한 수출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지만, 대두와 옥수수 등 다른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면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밝혔다. 이 조치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농가와 수출업체들이 연장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EU, 2024/25년 연질밀 1,845만 톤 수출(EU 2024/25 soft wheat exports at 18.45 million tons by May 18)

유럽연합(EU)의 2024/25 마케팅 연도(7월 시작) 기준 연질밀 수출량이 5월 18일 기준 1,845만 톤으로 전주(1,826만 톤)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화요일 발표했다.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루마니아가 496만 톤으로 EU 내 최대 연질밀 수출국 자리를 유지했

며, 리투아니아(245만 톤), 독일(236만 톤), 라트비아(209만 톤), 프랑스(205만 톤)가 뒤를 이었다.

1.11. 러시아, 곡물 수출업체 대상 밀 최소 가격 권고 폐지(Russia removes minimum wheat price recommendation for grain export traders, sources say) – 2025.5.23.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오는 7월 1일 수출 시즌 종료 시점까지 곡물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밀 최소 가격 권고를 해제했다고 로이터가 입수한 시장 관계자 4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5~6월 기준 최소 가격 권장치는 톤당 250달러였다.

1.12. 중국 수요 부진에 호주 밀 재고 급증(Weak Chinese demand leaves Australia with too much wheat) – 2025.5.27.

중국의 밀 수입 감소와 러시아산 공급 증가로 인해 올해 호주의 밀 재고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 밀 가격을 압박할 전망이다. 분석가들과 트레이더들이 밝혔다. 호주는 신규 수확을 앞두고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재고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는 풍부한 글로벌 공급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에서 거래 중인 시카고 밀 선물 가격에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집트, 밀 수입 줄이기 위해 국내 조달 확대 추진(Egypt aims to boost local wheat procurement to cut imports, says minister)

세리프 파루크 공급부 장관은 월요일 기자들에게 국내 밀 조달이 작년 350만 톤에 비해 최대 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밀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파루크 장관은 “밀 조달 증가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며, 400만 톤을 넘어서 최대 500만 톤까지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신곡 밀 수출가 하락, 기상 불안 지속이 핵심 변수(Russian new crop wheat export prices down, weather problems in focus)

분석가들에 따르면, 신곡 시즌이 다가오고 구곡 거래가 매우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 러시아산 밀 수출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기상 상황이 시장의 핵심 변수

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IKAR 컨설팅의 대표인 드미트리 릴코는 12.5% 단백질 함량을 가진 러시아산 신곡 밀의 7월 하순 FOB 기준 수출 가격이 톤당 225달러로 전주 대비 2달러 하락했다고 밝혔다.

1.13. 인도, 옥수수·사탕수수 수익성에 대두 재배면적 감소 전망(India's soybean acreage to shrink as farmers favour corn, sugar cane) – 2025.5.28.

인도 농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옥수수와 사탕수수가 일부 지역에서 대두의 대체 작물이기 때문에 선택 올해 인도의 대두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두는 세계 최대 식용유 수입국인 인도의 주요 여름철 파종 작물로, 생산량 감소는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등의 해외 구매를 늘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미국산 옥수수·봄 밀 작황 평가, 시장 기대치 하회(USDA's US corn, spring wheat ratings fall below expectations)

미국 농무부(USDA)는 화요일, 2025년산 옥수수 작황에 대한 첫 평가에서 전체의 68%를 양호에서 우수 등급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평균(73%)을 밑도는 수준이다. 사전 조사에 응한 14명의 애널리스트들은 64%~78% 범위에서 예측치를 제시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으로, 주로 가축 사료 및 에탄올 연료 생산에 사용된다.

1.14. 아르헨티나,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로 대두 수확 지연(Cold, dry weather to boost delayed soybean harvest in Argentina) – 2025.5.29.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는 수요일, 향후 며칠간 이어질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가 농경지를 빠르게 말리면서, 최근 폭우로 지연된 대두 수확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최대 대두유 및 대두박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최근 주요 산지에 집중된 강우로 인해 대두 수확이 지연되며 수확량 손실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2024/25년 대두 생산량을 4,9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 풍작으로 밀 수입 불필요 전망(ANALYSIS-No imports needed: India's wheat harvest defies market speculation)

올해 인도의 밀 수확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진행되면서 비축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수요를 수입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세계 밀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는 2022년 밀 수출을 전면 금지한 뒤, 2023년과 2024년 연속된 폭염으로 작황이 악화되며 비축 물량이 바닥나고 물가가 급등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밀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올해의 강한 수확량이 이를 불식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신곡 밀 가격 상승 전망(Ukraine producers see new harvest wheat prices rising)

우크라이나 농업생산자연합(UAC)은 수요일, 전 세계 수확량 감소와 기상 리스크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제분용 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톤당 228달러(CPT 기준)인 가격은 9월까지 240달러, 2026년 1월 이후에는 26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UAC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농가의 수익 전망은 긍정적이며,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전체 수출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5. 인도, 밀 · 쌀 생산량 사상 최고치 기록(India wheat, rice production to rise to record high, government says) – 2025.5.30.

인도 농업부는 수요일, 2025년 6월 종료되는 생산연도 동안 밀 생산량이 1억 1,75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지난 3월 예측치인 1억 1,540만 톤을 웃도는 수치라 밝혔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는 2024년에 1억 1,330만 톤을 생산했다.

우크라이나, 2025/26년 밀 수출 1,500만 톤으로 감소 전망(Ukraine 2025/26 wheat exports forecast to fall to 15 million tons, analyst says))

ASAP Agri는 목요일, EU의 수입 정책 변화 가능성, 작황의 불확실성, 그리고 EU 수입국들의 생산 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2025/26년도 7월~6월 밀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기관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2024/25년의 1,620만 톤에서 2025/26년에는 약 1,500만 톤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예측했다.

Sovecon, 러시아 2025/26 밀 수출 전망 상향(Sovecon raises Russian wheat export forecast for 2025/26 season)

농업 컨설팅 업체인 Sovecon은 목요일, 기상 조건의 개선을 반영해 2025/26년도 러시아산 밀 수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110만 톤 상향한 4,080만 톤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Sovecon은 2025/26 시즌 전체 곡물 수출량에 대한 첫 전망치도 4,940만 톤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2024/25년도 추정치인 5,020만 톤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2. 해외곡물시장 6월 주요 뉴스 - 로이터(Reuters)

2.1. 인도, 식품 물가 안정 위해 식용유 수입세 절반으로 인하(India cuts import tax on crude edible oils to help reduce food prices) - 2025.6.2.

세계 최대 식물성 식용유 수입국인 인도가 금요일, 식품 물가를 억제하고 국내 정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유 상태의 식용유에 부과되는 기본 수입세를 기존의 절반인 10%로 인하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관세는 원유 상태의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유에 적용된다.

러시아,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지위 유지를 위한 조치 필요(Russia needs action to remain world's top wheat exporter, government official says)

러시아가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부총리가 금요일 밝혔다. 그는 현재 시즌에서 러시아의 밀 수출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농업을 총괄하는 파트루셰프 부총리는 2024~2025 시즌 밀 수출량을 4,450만 톤, 전체 곡물 수출량은 5,300만 톤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2. 이집트 신설 곡물 구매기관, 프랑스산 밀 거래 체결(EXCLUSIVE—Egypt's new grains buyer struck rare deal for French wheat, sources say) - 2025.6.3.

로이터가 입수한 거래 소식통에 따르면, 이집트의 신규 국영 곡물 구매기관인 모스타크발 미스르가 4월 유럽 주요 트레이더 두 곳으로부터 프랑스산 밀 약 18만 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국제 공급업체들 사이에서 해당 기관의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스타크발 미스르는 한 업체로부터 6만 톤 규모의 선적 2건,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 규모의 선적 1건을 각각 구매했으며, 일부 선적은 인도 일정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건조한 날씨로 밀 생산 10% 감소 전망(Australia forecasts wheat output down 10% on dry conditions; barley, canola also hit)

호주 농업부는 올해 건조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3,0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보리와 카놀라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농업경제자원국(ABARES)은 이번 분기 작황 보고서에서 비록 생산량이 줄더라도 최근 10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신곡 밀 수출가격, 신규 시즌 전 거래 정체로 보합세(Russian new crop wheat export prices remain flat amid weak activity before new season's start)

분석가들에 따르면, 새로운 마케팅 시즌 시작을 앞두고 구곡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러시아산 신곡 밀 가격이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IKAR 컨설팅의 대표인 드미트리 릴코는 단백질 함량 12.5% 기준 러시아산 신곡 밀의 FOB(본선인도) 기준 7월 하순 인도 가격이 톤당 225달러로 전주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2.3. 우크라이나, 2025년 곡물 수확량 최대 10% 감소 전망(EXCLUSIVE—Ukraine's 2025 grain harvest may fall 10%, minister says) — 2025.6.4.

우크라이나 농업장관 비탈리 코발은 화요일, 2025년 곡물 수확량이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5,100만 톤에 그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물 및 유지작물 생산국이지만, 수확량은 가을 파종기와 봄철의 기상 여건에 크게 좌우된다.

베트남 기업, 미 농산물 20억 달러 규모 구매 MOU 체결 예정(Vietnam firms to sign MoUs to buy \$2 bln of US farm produces)

베트남 농업부는 화요일, 양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들이 미국 파트너들과 총 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에 대해 46% 상호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는 오는 7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그러나 관세

가 실제로 발효될 경우, 미국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베트남의 수출 중심 성장 모델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2.4. 우크라이나 6월 옥수수 수출, 전월 대비 절반 감소 전망(Ukraine corn exports seen falling sharply in June, producers union says) – 2025.6.5.

우크라이나 농업생산자연합(UAC)은 수요일, 우크라이나산 옥수수가 미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6월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수출량이 5월 20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옥수수 생산 및 수출국으로, 2024/25 시즌 전체 수출량은 약 2,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집트 국영 곡물 구매기관, 지정학적 리스크 속 밀 수입처 다변화(Egypt's state grain buyer diversifies wheat sources amid geopolitical risk)

이집트의 국영 곡물 구매기관인 모스타크발 미스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수입 안정을 확보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프랑스와 루마니아 등 전략적 파트너들과 주요 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수요일 로이터에 밝혔다. 기관 측은 전통적인 공급 지역에 대한 의존을 탈피했으며, 현재 남미와 호주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공급 루트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5. 아르헨티나 대두 수확 지연에도 수확량은 예측 상회(Argentina soy yields above forecasts as wet soil slows harvest, exchange says) – 2025.6.6.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는 목요일, 2024/25 시즌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확량이 초기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요 수출 농산물의 수확 작업이 평년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 역시 주간 보고서를 통해 수확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부 농업 지역과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서부에서 수확량이 초기 전망치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쌀값 안정 위해 긴급 수입 등 모든 옵션 고려 중(Japan says emergency rice imports, other options considered to stabilise prices)

일본 정부는 금요일, 쌀 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며, 매년 수입하는 비관세 기본 쌀 10만 톤 활용과 이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비상 수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대비 쌀값이 두 배 이상 상승하면서 소비자와 정책당국 모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6~7월 도쿄 및 전국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6. 중국, 5월 대두 수입량 1,392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China May soybean imports hit record high of 13.92 million metric tons) – 2025.6.9.

중국의 5월 대두 수입량이 통관 지연 해소와 대두 분쇄공장들의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4월 수입량의 두 배가 넘는 1,392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세관 당국이 발표했다. 앞서 4월에는 브라질산 대두의 수확 지연과 물류 차질, 지속된 통관 지연으로 인해 10년 만에 최저치인 608만 톤을 기록한 바 있다.

곡물 강국 아르헨티나, 미-베트남 무역 협정으로 시장 점유율 위협(Grains powerhouse Argentina could lose market share due to Vietnam-US trade deal, Rosario exchange warns)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는 금요일 보고서에서,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협상이 진전될 경우, 아르헨티나가 베트남 옥수수 및 대두박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지난 5년간 베트남 전체 옥수수 수입의 50% 이상, 대두박 수입의 65%를 공급하며 베트남 최대 곡물 공급국 자리를 유지해 왔다.

2.7. 우크라이나, EU 쿼터 설정으로 곡물 수출 타깃 중동으로 전환(Ukraine targets Middle East for grains exports as EU quotas set in) – 2025.6.11.

EU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무관세 조치가 종료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업체들이 중동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요르단에 곡물을 공급하는 한 업체 대표가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EU는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와 쿼터를 면제해왔으나, 지난 금요일부로 키예프와의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전쟁 이전의 무역 쿼터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2025년 곡물 수확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Russia's 2025 grain harvest seen exceeding last year's, Deputy PM says)

러시아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부총리는 화요일, 2025년 러시아의 곡물 수확량이 1억 3,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년(1억 3,000만 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지난해에는 봄철 이상저온과 가뭄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2.8. 인도 정부 곡물 비축량 급증, 쌀 재고 사상 최고(India's granaries overflow as rice stocks hit record, wheat surges) – 2025.6.11.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쌀 재고가 6월 초 기준 전년 대비 18%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밀 재고 역시 정부 매입 확대로 최근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인도는 이번 기록적인 재고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밀 재고의 개선은 올 하반기 가격 급등 시 정부가 공개 시장 판매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우크라이나 남부 보리 수확량 저조(Ukraine southern regions barley harvest shows low yield, analyst says)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보리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수확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시장조사기관 ASAP Agri가 수요일 밝혔다. ASAP Agri는 이번 주 미콜라이우 지역과 특히 봄철 서리와 가뭄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첫 보리 수확이 시작되었다고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통해 전했다.

2.9. 아르헨티나, 2024/25 대두 생산 전망 30만 톤 상향 (Argentina exchange raises 2024/25 soy forecast by 300,000 tons) – 2025.6.13.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목요일, 2024/25년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확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30만 톤 상향한 5,030만 톤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대두유 및 대두박 수출국이다.

ADM, 바이오연료 혼합 규정 발표 앞두고 美 대두 매입가 급락(ADM sets off 'frenzy' in US soybean market ahead of new biofuel blend rule)

미국의 대표적인 대두 분쇄 및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인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가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규정 개정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 대두 매입 가격을 대폭 인하하였다. ADM을 포함한 시카고 소재 주요 대두 분쇄업체들은 혼합 의무(RFS) 규정을 수개월째 기다려왔으며, 분쇄 마진 하락과 풍부한 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USDA, 옥수수 수출 증가에 재고 전망 하향(USDA projects tighter US corn inventories as exports rise)

미국 농무부(USDA)는 목요일, 수출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수확 전까지 남아 있을 미국 내 옥수수 재고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미국산 옥수수 수출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주 옥수수 선물 가격은 최근 미국 작황에 대해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대풍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025년 들어 최저치로 하락했다.

브라질, 2024/25 대두 생산·수출 전망 상향(Brazil crop agency ups 2024/25 soy supply, export forecast)

브라질 국가작물공사(Conab)는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25 시즌 대두 생산량 전망치를 기존 1억 6,834만 톤에서 1억 6,96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5,058만 톤을 기록한 마투그로수 주와 같은 주요 생산 지역의 우호적인 기상 조건과 뛰어난 수확량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 NOPA, 5월 미국 대두 분쇄량(crush) 1억9,283만 부셸(NOPA May US soy crush at 192.829 million bushels, below most trade estimates) – 2025.6.17.

미국대두가공협회(NOPA)가 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대두 분쇄량은 시장 예상치를 다소 밑돌았지만, 5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전체 대두 분쇄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NOPA의 5월 대두 분쇄량은 1억 9,282만 부셸로, 4월 1억 9,022만 부셸 대비 1.4% 증가했으며, 2024년 5월 1억 8,362만 부셸 대비 5.0% 증가했다.

러시아, 5월 해상 곡물 수출량 전년 대비 62.9% 급감한 210만 톤(Russia's May seaborne grain exports fell 62.9% y/y to 2.1 million tons)

월요일에 발표된 업계 선적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5월 해상 곡물 수출량은 210만 톤으로 2024년 동월 대비 6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2024/25 마케팅 연도 초반에는 기록적인 속도로 곡물을 세계 시장에 수출해 왔으나, 2월 도입된 수출 할당제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였다.

2.11. 브라질 대두 농가, 글로벌 거래업체와의 산림 파괴 방지 협정에도 아마존 파괴 가속화(INSIGHT-Brazil's soy farmers raze Amazon despite deforestation pact with global traders) – 2025.6.23.

브라질의 대두 농가들이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을 점점 파괴 있으며, 이는 20년 전 체결된 산림 파괴 억제 협정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가들은 2006년 세계 주요 곡물 거래업체들이 체결한 2008년 이후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서 생산된 대두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아마존 대두 모라토리움(Amazon Soy Moratorium)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란 최고안보기구,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Iran's top security body to decide on Hormuz closure, Press TV reports)

이란 국영 언론 프레스TV는 일요일, 미국의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는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가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이란 의회가

해협 봉쇄 조치를 지지했다는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란은 그동안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해왔으며, 최근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야간 공습을 단행하면서 서방의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로 사용하였다.

이집트 국영 곡물구매청, 이번 주 토요일부터 프랑스산 밀 선적 예상(Egypt's state grain buyer expects French wheat loadings from Saturday)

이집트 국영 곡물구매청은 국가 전략 비축 물량을 확충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밀 선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중 하나인 이집트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흑해 지역의 공급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2.12. 중동 분쟁 격화로 브라질 비료 비용 급등 전망(Brazil faces fertilizer cost spike as Middle East conflict escalates, experts say) – 2025.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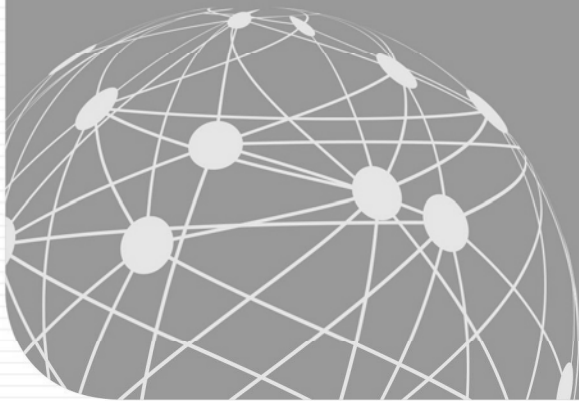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 격화로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브라질의 2025/26년 작황 시즌에 대두 및 옥수수 농가의 비료 비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월요일 발표한 StoneX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비료 공급국인 이란과 이집트의 요소 생산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집트의 경우 이스라엘 산 천연가스 공급 축소가 원인이며, 이란은 전쟁 리스크로 인해 요소 및 암모니아 생산 공장이 멈춘 상태이다.

루이 드레퓔스, 인디애나 곡물 수출 터미널 재가동(Louis Dreyfus to reopen rival's former grain export terminal in Indiana)

루이 드레퓔스 컴퍼니는 2026년 초 인디애나주 번스하버에 위치한 곡물 수출 터미널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월요일 밝혔다. 이 시설은 미국 미시간호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세인트로렌스 수로를 통해 대서양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전략적 거점이다. 해당 터미널은 1979년 경쟁사 카길이 건설했으나, 시장 여건 악화로 인해 2023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Part 4.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49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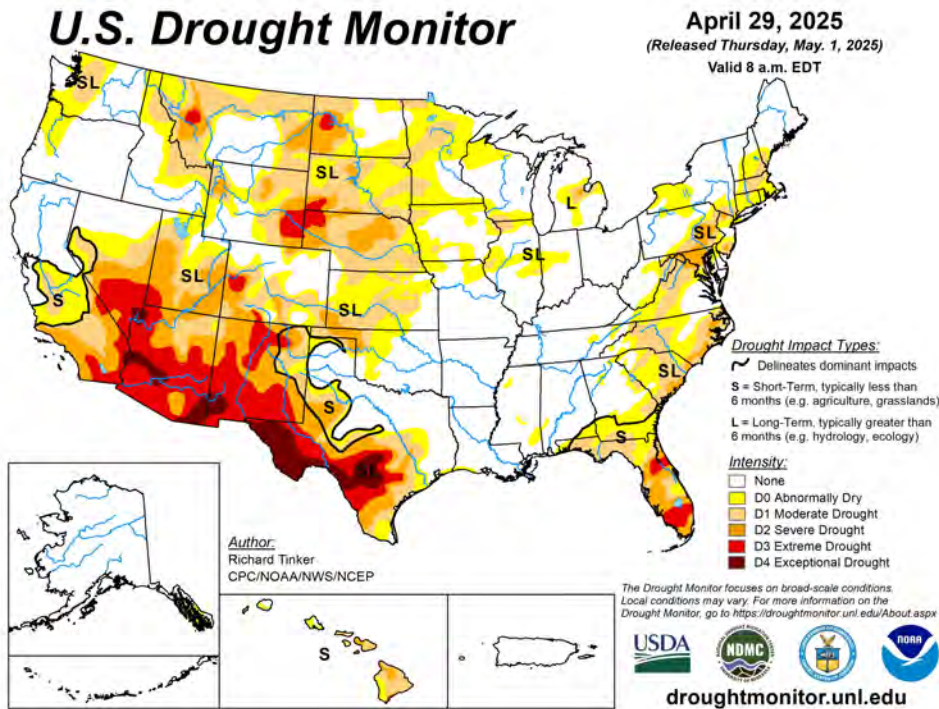
이충식(국제NGO,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

1. 미국

■ 2025년 4월 27일 ~ 5월 3일

4월 말 남부 평원 전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텍사스 중북부에서 오클라호마 북동부에 걸쳐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이달 초에도 여러 차례 강한 비가 내렸으며, 그 결과 오클라호마 남동부 절반과 인접 주 일부 지역에서는 4월 총 강수량이 10~20인치에 달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월말의 상당한 강우는 중남부 및 중서부 하부를 포함한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번 주 동안 평원 지역에서 시작해 동부까지 매일 심각한 기상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광범위하지는 않다. 주말에는 비가 더 건조한 중부 및 남부 대서양 연안 주들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편, 주초에 북부 평원과 중서부 상부의 일부 지역에 걸쳐서 유의미하고 대체로 유익한 비가 내렸으며, 이후에는 다시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돌아왔다. 그 외 지역에서는 극서부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반면, 로키산맥과 포코너스 지역에는 소나기성 비와 눈이 간헐적으로 내렸다. 남서부 지역의 소나기는 산불 발생 위험을 억제하고 표토 수분을 일시적으로 높여주었으나, 장기적인 가뭄 상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와 남서부 지역은 평년 수준 또는 다소 낮은 기온의 영향을 받았으며, 평원과 북서부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형성되거나 확산되었다. 3주 연속으로, 남부, 동부, 그리고 중서부 하위 지역에서는 평년에 가까운 수준 또는 그 이상 기온이 우세하였는데, 특히 남부 텍사스에서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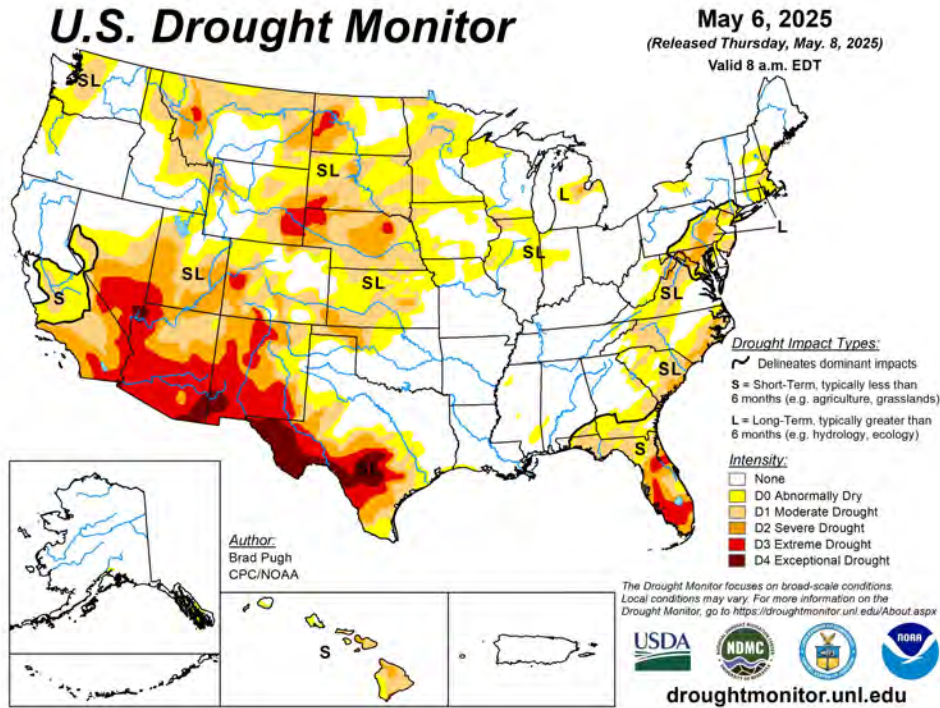
* leecs2447@gmail.com



■ 2025년 5월 4일 ~ 5월 10일

폭우가 남부 평야 전역에서 마침내 그쳤고 집중 호우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중앙 걸프 연안 주들로 옮겨갔다. 남부 고원 지대에는 추가 강수가 총 2인치 이상 기록되었고, 루이지애나 남부에서 플로리다 서부 일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주간 강우량이 4인치를 초과하였다. 이달 들어 지금까지 남부 지역 곳곳에서 누적 강우량이 10인치를 초과했다. 한편, 로키산맥과 남서부에서는 며칠간 강수가 지속되었다. 남서부 지역에서는 강수가 매우 유익했으나 장기 가뭄은 단지 외형적으로만 완화했을 뿐이어서 물 부족 문제는 계속되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극서부와 북부 평야에서 중서부 상부에 이르기까지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기온 상승 추세가 동반되었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름작물 파종 등 농작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나 가뭄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방목지, 목초지, 겨울밀, 새로 자라고 있는 여름작물에게는 계속해서 불규칙한 스트레스가 가해졌다. 기온 상승은 특히 미국 북중부 전역에서 두드러져,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F 높았다. 북부 및 중부 캘리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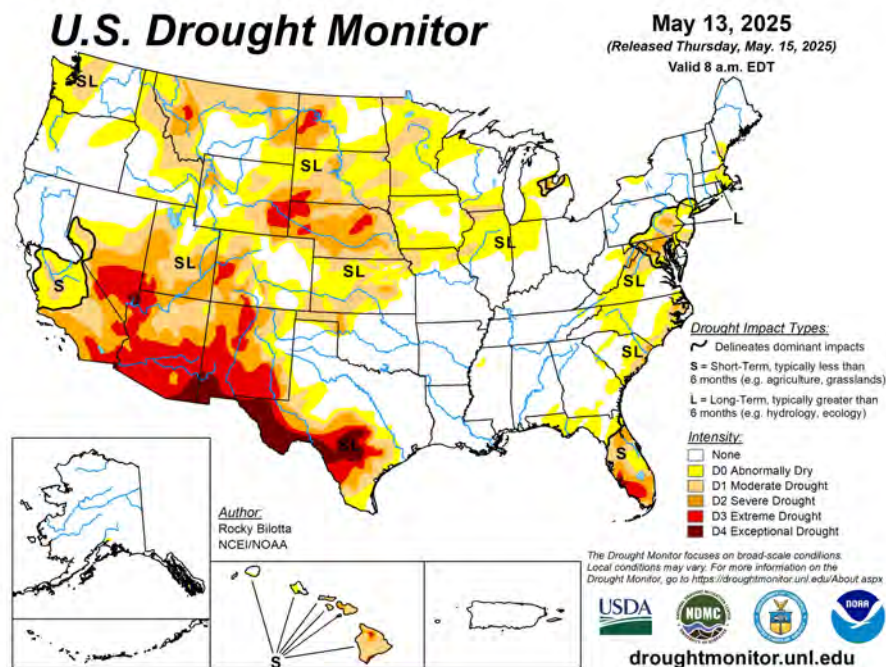
니아에서 북부 로키산맥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평균기온 값이 평년보다 5°F 넘게 높았다. 반면, 남부 로키산맥에서 테네시 및 오하이오 계곡의 일부 지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평균 기온 값이 5°F 넘게 낮았다.



■ 2025년 5월 11일 ~ 5월 17일

미국 북부 및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는 상당량의 국지적인 강수가 농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켰으나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표토 수분을 올려주었다. 가장 많은 강수량 가운데 일부(국지적으로 4인치 이상)가 다코타 서부를 포함하여 대서양 중부와 남부 주들에 내렸다. 북서부로 강수가 확장되었고, 그곳의 고지대 여러 지점에서는 늦은 계절의 눈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남부로 내려갈수록,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고원의 남부 절반에 이르기까지 전 주간 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건조한 조건은 중서부 일부 지역, 예를 들어 네브라스카 남동부와 아이오와 대부분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옥수수과 대두의 파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주 후반, 특히 5월 16일에 대규모의 강력한 뇌우가 발생하여 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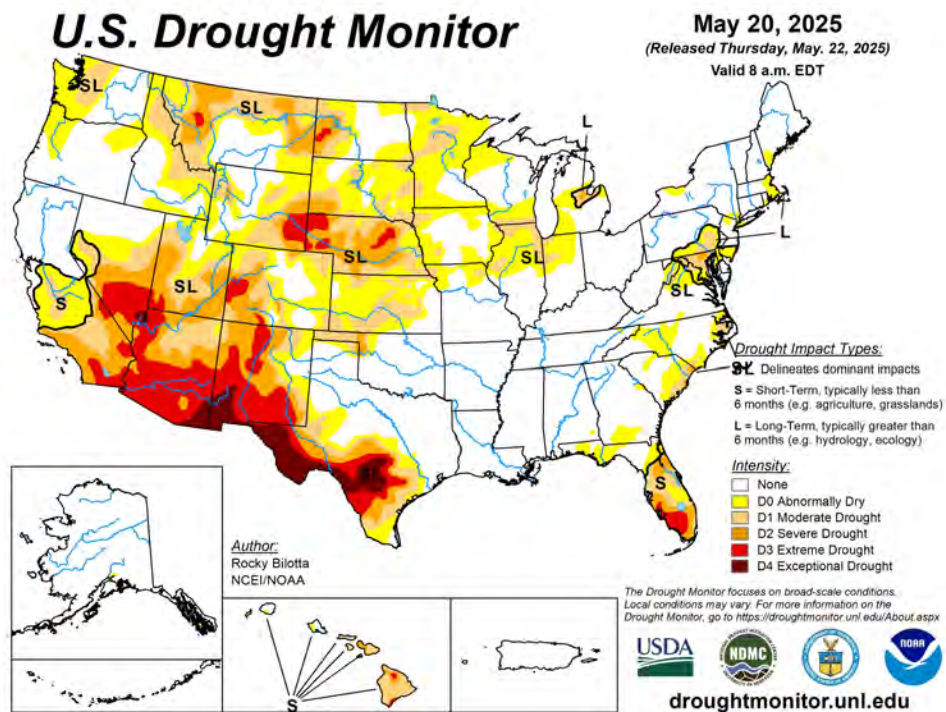
부 하부, 중남부, 대서양 중부 지역을 강타했다. 이 날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토네이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보다 하루 전에는 오대호 지역에서 최대 30여 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국 주간 토네이도 발생 건수를 거의 100건까지 끌어올렸다. 한편,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기온을 경험했으나 일별 기온 변동은 컸다. 예를 들어, 주 후반의 기온 하강 추세에도 불구하고, 노스다코타 동부에서 오대호 상부 지역까지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10~15°F 높았다. 보다 넓은 지역, 즉 평원의 북부 절반에서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F 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조적으로, 북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5°F 낮게 나타났다.



■ 2025년 5월 18일 ~ 5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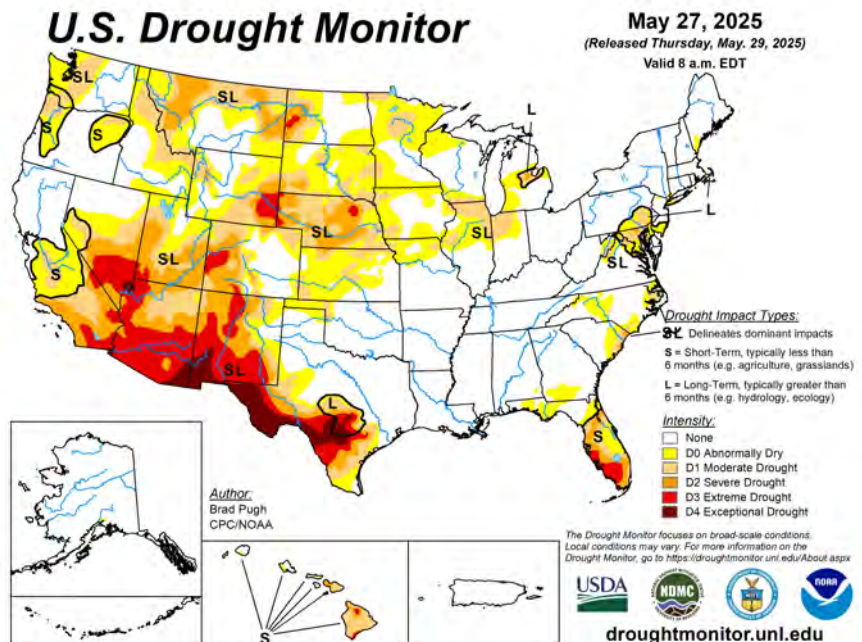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전선 경계가 나라 전역에 드리워져 이번 주의 기후 이상 현상을 특징지었다. 그 결과, 딥사우스 지역에는 무더위가, 북부 지역에는 쌀쌀한 날씨가 나타났고, 평원에서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는 광범위하게 소나기와 뇌우가 내렸다. 가장 심한 비(국지적으로 4인치 이상) 가운데 일부가 오자크 고원과 그 주변에 내렸

다. 그 비는 여러 날에 걸쳐 확산되었고 최근까지도 평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던 파종 활동을 전반적으로 늦추거나 멈추었다. 특히 북부 및 중부 평원, 중남부, 중서부, 북동부 전역에서 야외 작업의 지연이 두드러졌다.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들은 또한 심한 뇌우도 함께 겪었는데, 이 뇌우는 주 초반에 특히 더 많이 발생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 남부 고원 지대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으며, 남부 대서양과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서는 드문드문 소나기가 내렸을 뿐이었다. 남서부의 건조한 날씨에 더위가 동반되었으며, 딥사우스 전역에서는 무더위가 텍사스와 플로리다 일부 지역의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5°F 이상 높였다. 이에 반해 지난 주와는 정반대로, 미국 북부 지역 전역에 한랭한 공기가 자리 잡았다. 한 번 자리를 잡은 한랭한 날씨는 특히 북부 평원에서 북동부까지 지속되었다. 주간 기온은 다코타 지역에서 뉴욕과 뉴잉글랜드 서부에 이르는 여러 곳에서 평년보다 최소 10°F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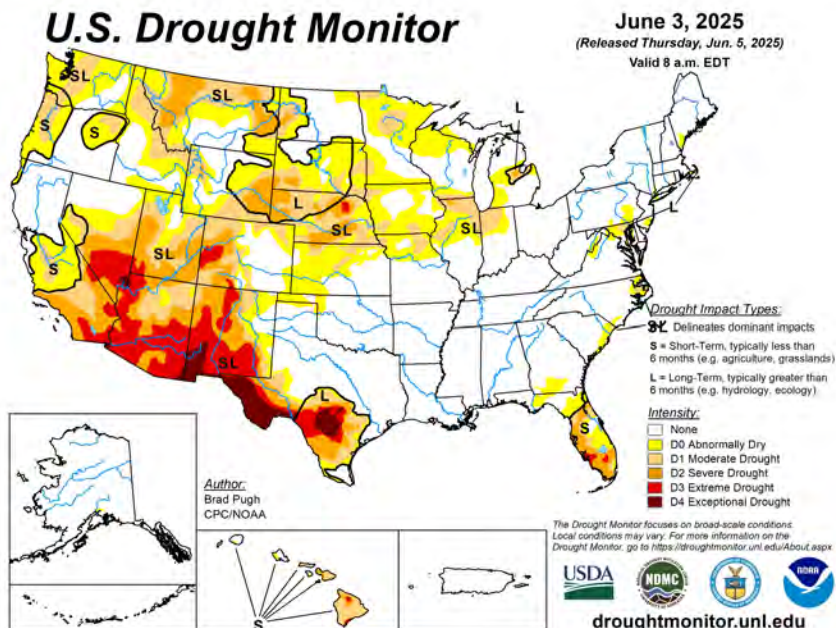
■ 2025년 5월 25일 ~ 5월 31일

월말에 발생한 폭풍은 점차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주간 강우량은 여전히 중부 및 남부 대평원에서 대서양 연안 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들에서 총 2~4인치 이상을 기록했다. 모든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남부, 동부 그리고 중부 및 남부 대평원에서는 소나기로 인해 국지적으로 야외 농작업이 느려지거나 중단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바람의 방향이 북쪽과 북서쪽으로 바뀌면서 캐나다의 북부 산림지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짙은 연기가 미국 북중부 전역을 뒤덮었다. 미네소타와 다코타 지역에서는 공기질이 크게 악화되고 가시거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으며, 이웃한 주들까지 확산되었다. 한편, 미국 중부 및 동부의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는 상공에 떠 있는 연기로 인해 뿌연 하늘이 관측되었다. 한편 이른 시기에 발생한 폭염이 서부 지역을 뒤덮었다. 폭염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나 달력이 6월로 넘어가면서 북서부를 통과하는 한랭전선과 남서부에 도달하는 상층 대기 교란이 겹치면서 갑작스럽게 종료되었다. 서부의 폭염은 북부 캘리포니아, 대분지에서 로키 산맥과 고원의 북부 지역까지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5~10°F 높이 밀어 올렸다. 반면, 중부 대평원에서 옥수수 벨트 동부와 대서양 중부 주들에 이르기까지, 더 남쪽으로는 캐롤라이나와 북부 조지아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F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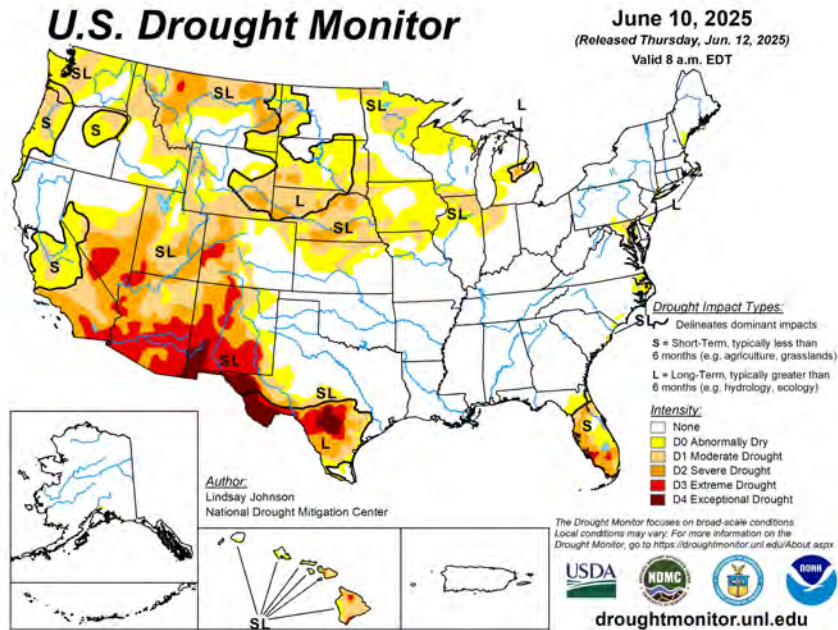
■ 2025년 6월 1일 ~ 6월 7일

미국 중부 및 동부 지역에서는 소나기성 날씨가 지배적이었으며, 가장 강한 편에 속하는 강우(국지적으로 2-4인치 이상)가 오클라호마와 인접 주 일부에서 중서부 하류 지역에 이르기까지 관측되었다. 플로리다 남부에도 강한 비가 내렸다. 특히 이번 강우는 남부 지역의 겨울 밀 수확과 여름작물의 최종 파종 작업을 포함한 야외 농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켰다. 로키산맥 동쪽 지역들 가운데 북부 대평원, 중부 대서양 연안 일부, 그리고 남부 텍사스에서 중부 걸프 해안 지역에 이르는 곳에서는 강우량이 적었거나 전혀 없었다. 로키산맥 서쪽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강세를 띠었으나 남서부 지역만은 예외였다. 남서부에 내린 이 소나기는, 6월 초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었으나, 가뭄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 대분지 북부, 북서부 전역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표토 수분이 감소하였고, 관개 수요가 증가하였다. 태평양 연안 주 일부와 네바다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았다. 남부 텍사스에서는 값이 평년보다 최대 5°F 높았다. 주 후반부에는 서부 지역의 더위가 심화되어 오리건과 워싱턴처럼 먼 북쪽에 있는 일부 내륙 지역에서도 90°F를 넘겼다. 한편, 주간 평균 기온은 주로 텍사스 팬핸들 북부에서 네브라스카 서부에 이르는 고원 일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다. 중부 대서양 연안 일부 지역에도 평년보다 서늘한 기상 조건이 나타났다.



■ 2025년 6월 8일 ~ 6월 14일

로키산맥 동쪽의 활발한 기상 활동으로 인해 특히, 남부 전역에서 야외 농작업이 계속하여 지연되었다. 총 강우량이 대체로 2~4인치 이상에 달하면서 남부 지역 생산자들은 여름작물 파종을 마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겨울 밀 수확도 지연되었다. 6월 15일까지 미국에서는 겨울 밀의 10분의 1만이 수확되었는데, 이는 1년 전의 25% 및 5년 평균인 16%와 비교된다. 동부 텍사스에는 저지대 홍수를 유발할 만큼 충분한 비가 내렸고, 6월 15일 오크우드 인근 트리니티 강은 범람 기준 수위를 11.11피트 초과한 정점 수위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그곳에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위였다.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북쪽으로 멀리 중서부 하부와 중부 대서양 연안 주들에게까지 이어졌으며, 별개의 강우대가 중서부 상부 전역을 가로질러 길게 뻗어 있었다. 이에 반해, 로키 산맥 서쪽에서는 덥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전 주에 계절을 벗어난 소나기가 내린 이후, 남서부 전역에는 다시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다. 서부 지역의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야외 농작업과 작물 발달에는 유리했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표층 토양의 수분 감소와 관개수요의 증가가 우려 사항으로 떠올랐다. 서부 내륙 지역의 많은 곳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F 높았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이례적인 고온은 이 지역의 북쪽 절반에 걸쳐 집중되었다. 한편, 로키 산맥 동쪽에서는 대체로 평년 수준에 가까운 기온이 지속되었으나 국지적으로 평년보다 5°F 이상 낮은 서늘한 날씨가 다코타 동부에서 오대호 상부 지역에 이르는 구역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더 동쪽에서는 중부 및 남부 대서양 연안 전역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날씨로 뒤덮였다.



2. 유럽

■ 2025년 4월 27일 ~ 5월 3일

중부 및 북부 유럽의 날씨는 대체로 건조하고 따뜻했던 반면, 이베리아 반도에는 추가적인 소나기가 내렸다. 중부 및 북부 유럽 대부분 지역에 내린 전주의 절실했던 강우 이후, 맑은 하늘과 평년보다 높은 기온(평년보다 3~6°C 높음)이 독일, 폴란드, 발트 3국의 생육기 단계에서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생식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겨울 밀, 보리, 유채의 생육을 촉진했다. 그러나 영국, 북부 프랑스, 덴마크, 독일에서는 장기적인 수분 부족이 여전히 심각하게 지속되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3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유럽 대륙의 동부 3분의 1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기상 조건이 겨울 작물의 발달을 촉진했고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 파종도 마찬가지였다. 북동부 유럽의 겨울 작물들은 비가 필요하지만, 매우 건조한 흑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뉴브강 유역에서는 양호하게 생육하고 있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평년보다 4~5°C 높은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농

작업과 겨울 곡물의 발달을 촉진했지만, 모니터링 기간 말에는 다시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한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10~65mm의 추가적인 보통 내지 강한 소나기와 뇌우가 생식기에서 종실비대기 단계에 있는 겨울 곡물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양호에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 9월 1일 이후, 스페인의 주요 재배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평년의 200~260%에 달했는데 이는 안달루시아와 카스티야 라 만차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습한 시기였고, 카스티야 이 레온에서는 두 번째로 습한 시기였다.

■ 2025년 5월 4일 ~ 5월 10일

중부 및 북부 유럽에서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지만 서늘했던 반면 유럽 대륙의 남부와 동부에서는 중간 내지 강한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대조를 이루었다. 북해 상공에 자리 잡은 광범위한 고기압으로 인해 영국, 프랑스 북부, 독일, 저지대 국가들에서는 하늘이 맑았고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그보다 최대 3°C 낮아서 계절 농작업을 촉진했으나 영양기 내지 생식기 중에 있는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의 발달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부 재배 지역들 중 다수가 불리할 정도로 건조해졌으며 향후 몇 주간 겨울 작물들이 생식기로 접어들면서 곧 강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동쪽에서는 평년보다 3~6°C 낮은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가 유럽 북동부 지역 전반에 걸쳐 자리 잡으며 겨울밀과 유채의 발달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주 후반에 한랭 전선이 이 동일한 북동부 경작지 전역에 아주 다양한 수준의 소나기(2~35mm)를 유발하면서 영양생장기에서 개화기에 이른 겨울밀과 유채, 최근 파종된 봄 곡물들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거나 개선해주었다. 남유럽 전역에서는 추가적인 중~강 수준의 비(10~75mm)가 계속되어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남부의 생식기~종실비대기에 있는 겨울 곡물들을 적셔주었고 다른 한편으로 여름작물 관개용 저수지의 수위를 더욱 올려주었다. 최근 위성 기반 식생건강지수는 스페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중 이 시기 기준 역대 최고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중부 및 북부에 내린 10~120mm의 강우는 종실비대 중인 겨울 곡물을 위한 토양 수분을 개선했고 옥수수과 대두를 위한 관개 공급수도 상승시켰다. 발칸반도 전역에서는 다시 중~강 수준의 소나기(10~70mm)가 내려서 단기 건조 우려를 해소했고 생식기에 있는 겨울밀, 보리, 유채에게 시의적절하게 수분 공급을 개선했다.

■ 2025년 5월 11일 ~ 5월 17일

건조한 날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북유럽과 대조적으로 남부와 동부 경작 지역에서는 비가 간헐적으로 내렸다. 영국제도 상공에 자리 잡은 광범위한 고기압은 영국, 북부 프랑스, 독일, 스칸디나비아에서 맑은 하늘과 평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기온(평년보다 최대 3°C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었으며 이는 계절적인 농작업을 가능하게 했지만 영양생장기에서 생식기로 진행되고 있는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들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더욱 감소시켰다. 이러한 북부 경작지의 많은 곳들은 봄철 내내(3월 1일 이후 강우량이 평년의 약 40% 수준으로) 불리하게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겨울 작물이 생식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고기압의 동쪽에 위치한 추운 북풍은 동유럽 3분의 1 지역에 평년보다 3~7°C 낮은, 계절에 맞지 않는 쌀쌀한 공기를 몰고 왔으나 대부분의 주요 경작지들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결빙은 피했다. 그 차가운 공기의 유입 전후로 대륙 북동부 전역에는 광범위한 비와 일부 습설(10~55mm)이 동반되었는데, 이는 겨울작물(생장기에서 생식기), 봄곡물(영양기), 출현 중인 여름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제트기류의 남쪽 지류가 활발하게 작용하며 스페인에서 그리스와 발칸반도 남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소나기와 때때로 강한 뇌우를 유발했다. 스페인에서는 올해 봄철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200%를 넘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30년간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소나기가 다소 약했지만(2~20mm), 종실 비대 중인 겨울 곡물들에게 여전히 유익했다. 발칸 반도에서는 세르비아 남부에서 동쪽으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이르기까지 총 10~40mm의 강우가 있었고, 헝가리와 세르비아 북부는 대체로 건조했다(5mm 이하). 마찬가지로 그리스 대부분 지역에도 중간에서 많은 수준의 소나기(20~40mm)가 기록되어 여름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과 관개용수 공급을 올려주었다.

■ 2025년 5월 18일 ~ 5월 24일

이베리아 반도에는 비교적 건조한 조건이 다시 찾아왔고, 대륙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범위가 확장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오랜 기간 계속되던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끝나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하늘이 맑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여서 종실비대 중인 겨울 곡물들의 발달을 촉진했고 지나치

게 습한 상태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었다. 한편 유럽 북서부에 머물러 있던 큰 차단성 고기압이 물러나 서쪽으로 이동했고, 그 덕분에 북유럽에는 절실히 필요했던 소나기와 뇌우가 돌아왔다. 남동부 잉글랜드, 북부 프랑스, 북부 독일의 가장 건조한 지역에서는 비가 대체로 약하게(10mm 미만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환영받았다; 그러나 이 북부 농업 지역에서 겨울 작물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가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 중부와 남부에서 독일 남부로 이어지는 지역에는 소나기가 15~50mm로 더 강하게 내렸고, 생식기에서 종실비대기에 이르는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수확량 전망은 계속 양호했다. 또한, 폴란드와 발트 3국에서도 약한 비에서 보통 정도의 비가 내리고, 평년보다 2~4°C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작물 생육 조건이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한편, 제트기류의 남쪽 분기류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이탈리아에서 발칸 반도까지 주기적인 폭풍우가 발생했으며, 북부 이탈리아와 다뉴브강 계곡 일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50mm를 넘었다. 남부 및 남동부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최근 연이은 습하고 서늘한 날씨(평년보다 최대 5°C 낮은)가 생식기에 이르렀거나 생식기를 지나고 있는 겨울 밀, 보리 유채에게 거의 이상적이었다.

■ 2025년 5월 25일 ~ 5월 31일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점점 더 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 반면,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와 서늘한 기온이 나타나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스페인에서는 소형의 정체성 고기압이 맑은 하늘과 평년을 크게 웃도는 기온(평년보다 4~9°C 높은 기온)을 유지시켰으며, 남서부 지역에서는 최고 38°C에 이르는 기온이 보고되었다. 이런 고온 속에서도 겨울 곡물들은 대부분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고온에 민감한 개화기와 종실비대기는 이미 지난 상태였다.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30°C 초중반)가 프랑스 남서부까지 확장되어 계절 농작업과 여름작물의 출현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영국 남동부(10~25mm)에서 북부 프랑스, 독일(10~50mm), 북부 이탈리아(5~25mm)에 이르는 지역에 소나기가 내려 건조 우려를 완화시켰고 개화기에서 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곡물과 유지작물에 대한 전망을 개선시켰다. 또,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전역에서 이와 비슷한 소나기가 내려서 겨울 작물에게 혜택을 주었으나 헝가리는 주변 산악 지형으로 인한 건조화 영향 때문에 비를 거의 받지 못했다. 동남부 유럽에서는 25~100mm(일부 지역은 그 이상)에 이르는 강하거나 매우 강한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좁고 길게 이어지며 내렸고, 이는 봄 곡물과 여름작물을 위한 수분 저장량을 늘려

주었다. 그러나 평년보다 최대 4°C 낮은 쌀쌀한 기온으로 인해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성숙은 더뎠다. 그러나 루마니아 서부와 세르비아 북부는 대체로 건조했다(5mm 이하).

■ 2025년 6월 1일 ~ 6월 7일

유럽 중부와 북부 전역에 걸쳐 보통 내지 강한 수준의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린 반면, 지중해 분지 전역에는 기상 조건이 건조하고 매우 더워서 대조를 이루었다. 일련의 기압 교란이 대륙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지나가면서 잉글랜드, 프랑스, 북부 스페인에서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트 3국까지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중간 내지 강한 세기의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10-100mm, 일부 지역은 그 이상)를 동반했다. 그 강우는 잉글랜드, 북부 프랑스,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 추가적인 가뭄을 완화하였지만, 봄철 초입부터 누적되어온 상당한 수분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5월 마지막 주에 다시 비가 내린 이후로 종실비대기 겨울 작물들에 대한 수확 전망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흐리고 불안정한 날씨가 유럽 북부 및 북서부 지역의 기온을 평년 수준으로 유지시켰다. 반대로 스페인 중부와 남부에서는 맑고 더운 기상 조건(기온이 평년보다 3~6°C 높았고, 최고 기온이 35~42°C)으로 인해 겨울 곡물의 건조와 수확 작업이 가속되었다. 한편 발칸반도에서는 맑은 하늘과 평년을 웃도는 기온(32~34°C)이 겨울 작물의 성숙, 건조, 조기 수확을 촉진했으나 아직 생육 초기 단계에 있는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

■ 2025년 6월 8일 ~ 6월 14일

중부 및 북부 유럽에서는 중간에서 강한 수준의 소나기가 추가로 내린 반면, 지중해 유역 전역에서는 무더위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일련의 기압 교란이 대륙 북부 절반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잉글랜드와 북부 프랑스에서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걸쳐 10~50mm(국지적으로는 그 이상)의 중간에서 강한 수준의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했다. 해당 강우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북부 일부에도 추가적인 가뭄 완화 효과를 주었지만 봄이 시작된 이후 누적된 심각한 강우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그 결과 5월 마지막 주에 비가 다시 내린 이후로 종실비대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든 겨울 작물의 수확량 전망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폴란드 및 그 인근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3°C 낮아 작물의 발달이 더뎠고, 반면 북서부 유럽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3°C 높아 봄 곡물과 여름작물의 생장이 빨라졌다. 반대로 남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맑고 무더운 기상 조건들(평년보다 3~6°C 높음, 국지적으로는 그 이상)이 여름작물의 빠른 생육과 아울러 겨울 곡물의 건조 및 수확을 촉진했다. 스페인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6~43°C, 이탈리아에서는 33~38°C에 이르렀고, 발칸반도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30°C 초중반을 기록했으나,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는 여전히 생육 초기로서 이러한 고온을 견뎌내었으며 수확 잠재력에 심각한 악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호주

■ 2025년 4월 27일 ~ 5월 3일

더 건조하고 서늘한 날씨가 호주 대부분 지역에 퍼졌지만, 남동부 해안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대체로 건조하고 서늘한 날씨가 호주 남부 및 동부의 주요 경작지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남호주 및 그 주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C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 동부 지역에는 산발적인 약한 비에서 중간 세기의 비(2~30mm)가 흩어져 내려,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 곡물 파종을 위한 토양 수분을 개선시켰다. 동풍의 영향으로 퀘즐랜드 남동부 해안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동쪽 지역에 많은 비(25~170mm)가 내렸지만, 이 비는 그 주(州)의 겨울 곡물 재배지보다 훨씬 동쪽에 내린 것이었다. 기온이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호주와 빅토리아 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으며, 최근의 위성 기반 식생 건강 지수에 따르면, 두 지역은 각각 1986년 이후 이 시기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과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2025년 5월 4일 ~ 5월 10일

건조한 날씨와 평년 수준에서 다소 높은 기온이 호주 전역 대부분에서 농작업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호주의 주요 겨울 및 여름 작물 지역 전반에 걸쳐

강우가 거의 또는 전혀 보고되지 않아 겨울 작물의 파종과 여름작물의 수확을 빠른 속도로 촉진했다.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에서 최대 2°C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심한 폭염은 피했으나, 서호주의 밀 지대의 최북단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4°C에 이르렀다. 겨울 곡물 재배는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남부 및 남동부 호주 전역에서는 극심한 단기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위성 기반 식생건강 지수에 따르면 남호주와 빅토리아는 연중 이 시기 기준 (1986년 이후) 각각 최저 및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의 작황 조건도 여전히 매우 불량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 2025년 5월 11일 ~ 5월 17일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평년 수준에서 그 이상에 이르는 기온이 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서호주에서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에 이르기까지 농작업은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호주,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의 주요 재배지에서는 계속해서 가뭄과 건조한 토양과 씨름 하며 겨울 밀, 보리, 유채의 파종 및 활착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보다 북쪽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매우 변동성이 큰 소나기(2~50mm)가 내려 토양 수분이 겨울 작물에 유리하게 유지해주었다. 남부에서는 기온이 평균적으로 평년 수준이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동부 및 북부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3°C 높았으나, 낮 최고기온은 대체로 20°C대에 머물렀다.

■ 2025년 5월 18일 ~ 5월 24일

호주 남부 대부분에서 가뭄이 심화된 반면 동부 호주에서는 소나기와 역사적인 국지성 강우가 내려서 뚜렷이 대조되었다. 서호주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겨울 작물 파종에 유리했는데, 이곳의 상태는 북부는 지나치게 건조했지만 남부는 대체로 양호했다. 마찬가지로 남호주에서는 맑은 하늘과 평년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은 기온이 야외 작업에는 유리했으나 가뭄을 악화시켰다. 남호주에 대한 최신 위성 기반 식생건강 지수(VHI)는 연중 이 시기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역대 최저치에 육박했다. 그러나, 해안선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제한적으로 토양 수분을 개선해주었다. 한편, 느리게 이동하는 기상 교란이 깊은 열대 습기 기류와 함께 작용하면서 호주

남동부 해안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으나 더 내륙으로는 토양 조건이 겨울 작물 재배에 적합하게 해주었다. 비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시드니 바로 북쪽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을 따라 그리고 동쪽에 가장 많이 내렸고 해안 근처에는 200mm 초과, 더 높은 지대에서는 500mm를 넘었다(뉴사우스웨일즈 콤보인에서는 최고 705mm 기록)는 보고가 많았다. 이 극심한 강우가 광범위한 홍수를 일으켰고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나 이 지역의 주요 경작지의 동쪽에 내렸다. 그러나 일부 소나기는 더 높은 지형을 넘어 서쪽으로의 여정을 견디면서, 국지적으로 25mm를 초과하는 양의 비를 내렸고, 이로 인해 뉴사우스웨일스 중부 및 남부와 빅토리아 북부 지역에 매우 필요한 토양 수분을 공급했다. 가뭄은 특히 빅토리아 북서부의 머레이 분지 지역에서 심했는데 이곳에서는 지난 11월 이후 눈에 띄는 광범위한 강우가 없었다; 빅토리아 지역의 최신 VHI(식생 건강 지수)는 이 시기 기준으로 관측 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 세운 이전의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처럼 낮은 VHI 수치가 북쪽으로 뉴사우스웨일즈 남부까지 이어졌으나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의 상태는 훨씬 양호했다.

■ 2025년 5월 25일 ~ 5월 31일

넒리 퍼졌지만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강우가 겨울 작물의 토양 수분을 국지적으로 개선시켰지만 남부 및 남동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완화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서호주에서는 가장 건조한 북부 재배 지역에 국지적으로 25mm를 초과하는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겨울 작물 활착을 위한 토양 수분을 개선시켰다. 더 동쪽으로는, 남호주에서의 강우량이 극심하게 차이를 보였는데, 내륙 농경지에서는 완전히 건조한 반면, 해안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는 최대 25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남부 빅토리아에서도 유사하게 강우가 분포했는데, 해안 지역에 내린 소나기는 주의 주요 북서부 작물 재배 지역인 머리 분지(Murray Basin)를 비껴갔다. 뉴사우스웨일스와 남부 퀸즐랜드에서는 강우가 최근의 경향을 이어가 북부 재배 지역에서는 5~20mm로 양호했으나, 남부 지역은 여전히 불리하게 건조한 상태였다. 최신 위성 기반 식생건강지수(VHI)는 남호주에서 동쪽으로 빅토리아까지,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 남부 및 중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가뭄의 영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즐랜드 사이의 경계 지역을 따라서는 훨씬 양호한 작물 활력을 나타내었다. 관측 기간 동안, 퀸즐랜드 동부에서 평년보다 최대 3°C 높은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기온 이상은 없었다.

■ 2025년 6월 1일 ~ 6월 7일

남부 및 동부 호주 대부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되 지역 편차가 큰 소나기가 겨울 작물에 꼭 필요한 토양 수분을 제공했다. 한 쌍의 폭풍이 대륙에 영향을 미쳤으며, 관측 기간 초반에 물러나던 하나의 기압계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에 10~40mm의 비를 내렸다. 한편, 두 번째이자 더 강한 폭풍 시스템이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에 도달하여, 서호주 지역에 가뭄을 완화하는 비(10~60mm, 특히 이전까지 가장 건조했던 북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강우)를 내렸고, 남호주의 최남단 지역(10~25mm)에도 강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주(州)의 내륙 작물 재배 지역은 대부분 강우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 전 주와는 달리, 이번 두 번째 폭풍 시스템에서 발생한 절실히 필요했던 소나기(10~30mm)가 빅토리아 북서부 머리 강 유역에 도달하여, 겨울 작물의 발아와 정착을 위해 토양을 적셔주었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 남부의 인접 지역들은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게 건조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호주 남부 및 동부는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반면, 서호주는 평년보다 최대 3°C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 2025년 6월 8일 ~ 6월 14일

호주 남주 지대에 내리던 소나기가 북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바뀌었다. 관측 기간 동안 소나기(5~20mm, 남동부에서는 국지적으로 그 이상)가 서호주, 남호주,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의 남부 일부를 스쳐 지나가며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생육을 위한 토양 수분을 국지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겨울 작물 지역들, 특히 호주 동부에 있는 지역들은 이번 강우를 거의 받지 못해 가뭄이 지속되었고 밀, 보리, 유채의 활착과 생장을 위한 토양 수분의 부족 상태가 이어졌다. 서부 지역은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을 보였으나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최대 5°C 낮은 기온을 기록했으며 최저기온은 0°C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다.

4. 아르헨티나

■ 2025년 4월 27일 ~ 5월 3일

가벼운 비에서 중간 세기의 산발적 강우가 차코 주변 북부 농업 지대에서 농작업을 늦췄으며, 강수량은 총 10~50mm에 달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이전에 강우로 인해 농작업이 지연되었던 지역들에서 수확 작업이 재개될 수 있었다.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에서 그 이상을 기록했다. 주요 농업 지역 대부분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섭씨 20도 중후반대에 이르렀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최저 기온이 0°C 바로 위에 머물렀고,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훨씬 높은 영상 수준을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옥수수 수확은 31% 완료되었으며, 면화와 대두 수확은 각각 22%와 25% 완료된 상태다.

■ 2025년 5월 4일 ~ 5월 10일

북부 먼 곳의 농업 지역에 중~강 수준의 소나기(총 25~200mm)가 내려서 면화 수확을 지연시켰고 어떤 곳들에서는 수확량 감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강 수준의 소나기(총 10~66mm)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부분의 지역 주변에서도 수확을 지연시켰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엔트레리오스와 산타페 남부에는 더 많은 양의 강우가 내렸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 20°C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분포했으며 예외적으로 차코, 포르모사, 코리엔테스 주변의 북부 지역에서만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상승했다. 야간 최저기온은 결빙점을 충분히 상회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5월 8일 기준으로 옥수수 수확은 34% 완료되었으며, 면화와 대두 수확은 각각 25%, 45% 완료되었다.

■ 2025년 5월 11일 ~ 5월 1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지역에서는 중간에서 많은 수준의 소나기(누적 강수량 150mm 이상)가 내려 대두와 옥수수의 수확이 지연되었다. 이번 주는 중간에서 많은 수준으로 소나기가 내려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주변에서 수확이 지연된 두 번째 주이

다. 북부 아르헨티나에서는 밭이 이번 주 동안 마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면화 수확이 계속되었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6°C 높았다. 주요 농업 지역 대부분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섭씨 20도 중후반 대였으며, 북부 지역만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에 도달했다. 야간 최저기온은 결빙점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으로 옥수수 수확이 37% 완료되었고 면화와 대두 수확은 각각 30%, 66% 완료된 상태이다.

5. 브라질

■ 2025년 4월 27일 ~ 5월 3일

중서부에서 남부 일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소나기가 다소 국지적으로 산발적으로 내렸다. 비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옥수수 생산 지자체들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최소 10mm 이상의 강우가 기록되어, 다양한 생식 단계를 지나고 있는 작물의 양호한 수확 잠재력을 유지시켰다; 주요 재배 지대에서는 일반적으로 5월 말부터 수확이 시작된다. 바이아와 미나스 제라이스를 포함한 주변 주들과 남쪽에 있는 히우그란지두술에서도 소나기(10~50mm 이상)가 기록되었다. 동부 지역의 강우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면화와 기타 여름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남부 지역의 강우는 밀 파종을 앞두고 토양 수분을 더욱 개선시켰다. 주요 작물 재배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절에 맞는 기온을 보였으며, 북부에서는 30°C 초반, 남부에서는 20°C 후반의 기온 분포를 나타냈다.

■ 2025년 5월 4일 ~ 5월 10일

보고 기간 대부분 동안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중서부 지역에 확산되었으나 주말로 가면서 소나기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총강우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마투그로수와 마투그로수두술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자체들(10mm 초과)이었고 더 남쪽의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25mm를 초과하는 더 많은 강우량이 있었다. 추가로 공급된 그 수분은 중서부 지역에서 생식기에 있는 2기작 옥수수에 더욱 유익하게 작용하여 양호한 수확 전망을 유지했다; 수확은 일반적으로 5월 말부터 시작된다. 또한 남부의 그

비는 밀 파종을 앞두고 토양 수분을 계속 개선시키고 있다. 보통 5월 중에는 계절적 소나기가 더 북쪽 지역으로 물러나기 시작하여 화창하고 온화한 상태를 가져온다.

6. 동아시아

■ 2025년 4월 27일 ~ 5월 3일

중국 화북평야에서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와 여름과 같은 기온(30°C 후반)이 이어져 밀의 생육이 생식 단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수확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충 관개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번 계절 동안 봄철 수분 조건은 양호했지만, 단기적인 건조가 밀 재배지 대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양쯔강 유역의 일부 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지만, 성숙 단계에 접어든 유채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 반면,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의 건조한 날씨가 해소되고 강수량이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넓은 지역에 걸쳐 총강수량이 10mm를 넘었고, 그 중 50mm를 초과하는 많은 양의 비도 포함되었다. 개선된 수분 조건은 조생종 벼와 관개용 저수 자원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중국 동북부 전역으로 확대되어 옥수수과 대두 파종을 뒷받침했으며,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성과 같은 동부 지역의 성들에서는 강우(10~50mm 이상)가 발아와 활착에 도움을 주었다.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신장 지역에 극심한 고온 스트레스가 없는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평균보다 4~6°C 높음)이 면화의 활착과 생육을 촉진했다.

■ 2025년 5월 4일 ~ 5월 10일

보고 기간 동안 동중국 전역의 날씨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주말로 갈수록 대부분의 농작물에 광범위한 강우가 내리면서 절정에 달했다. 남부 작물 재배 지역에는 강우가 비교적 꾸준히 내렸는데 국지적으로 200mm를 넘어가면서 50mm를 웃도는 강우량을 기록함으로써 생식기에 접어든 조생종 벼의 생장에 도움을 주었다. 주 중반 경에 해당 지역을 통과하여 이동하고 있던 저기압이 화북평야에 5~50mm의 강우를 추가로 내려 최근 수 주 동안 누적된 단기 건조를 완화시켰고 기온을 보다 계절적인 수준으로 낮추었다. 또한 화북평야에서 종실비대기에 접어든 겨울 밀에도 북부의 개

선된 수분 조건이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작물이 익고 수확이 시작되는 향후 몇 주간에는 보다 건조한 날씨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지역에서는, 북동부에 내린 소나기(125mm)가 옥수수와 대두의 활착을 도왔으며, 서부에서는 스트레스를 줄 정도의 열기가 없이 평균보다 최대 6°C 높은 평균 이상의 기온이 관개 목화의 발달을 촉진했다.

■ 2025년 5월 11일 ~ 5월 17일

북중국평야에는 다시 건조한 날씨가 찾아왔으나 남중국의 경작지에는 계속해서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렸다. 여러 곳에서 최고 180mm에 달하는 강우량을 기록했으나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총강우량이 평균 25~100mm 수준이었으며 이는 생식기에 접어든 조생종 벼 재배에 도움이 되었다. 남중국의 기온은 평균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6°C 높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낮 최고기온은 평균 30°C 초중반대 수준이었다.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는 평년보다 1~5°C 높은 따뜻한 날씨가 관개 면화의 발육을 촉진했고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소나기성 날씨가 대부분의 지역에 25~100mm의 비를 내려 벼와 기타 작물의 활착을 도왔다.

■ 2025년 5월 18일 ~ 5월 24일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가 일부 주요 밀 재배 지역(허난성, 안후이성, 장쑤성)의 가뭄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지역에 내린 총 강우량은 평균 10~50mm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mm를 기록했다. 동부 및 남부 중국 대부분 지역에는 10~200mm의 보통에서 매우 많은 강우량이 기록되었고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100~200mm의 더 많은 양이 내렸다. 북동부 일부에도 비가 내려(10~60mm) 옥수수와 대두의 활착을 도왔다. 한편, 화북평원 일부 지역에서는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겨울 밀의 성숙을 뒷받침했다.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는, 북한과 일본 북부 절반에 내린 10~50mm의 강우가 최근에 파종한 벼의 생육에 유리했다. 일본 남부에서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되었다. 화북평원과 그 주변의 기온은 계속해서 평균 이상이었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에서 40°C 초반에 이르렀다. 반면, 중국 북동부의 기온은 평균 아래였고 낮 최고기온은 20°C 초중반을 기록했다. 일본과 한반도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에서 30°C 초반에 이르렀다.

■ 2025년 5월 25일 ~ 5월 31일

건조한 기후 조건이 중국의 몇몇 주요 밀 재배 성들(허난, 산둥, 허베이, 장쑤)에 다시 나타나 겨울 밀의 성숙을 도왔다. 그러나 안후이 성에서는 10~50mm의 중간 정도의 소나기가 계속되었다. 중국 남부 및 중부 일부 지역에는 10~130mm의 중간 내지 많은 강우가 기록되었다. 이 지역 외의 다른 곳에서는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25~200mm의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린 반면, 한반도 전역에서는, 일부에 10~25mm의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기는 했지만, 더 건조한 날씨 조건이 지속되었다. 화북평원과 그 주변 지역의 기온은 지난 몇 주보다 낮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 사이였다. 일본과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중반에서 후반 사이였다.

■ 2025년 6월 1일 ~ 6월 7일

허난, 산둥, 허베이 등 일부 밀 재배 성에서는 더 건조한 기상 조건이 계속되어 겨울 밀의 성숙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안후이 성과 장쑤 성에서는 보통 내지 강한 소나기(10~100mm)가 계속되었다. 중국 남부 및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보통 내지 강한 강우(10~110mm)가 관측되었다.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는 일본 대부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소나기(20~75mm)가 내린 반면, 한국은 더 건조한 기후 조건이 지속되었고, 북한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10~100mm)가 계속되었다. 화북평야 및 그 주변 지역의 기온은 이전 주들보다 더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에서 후반 사이였다. 일본과 한반도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 사이였다.

■ 2025년 6월 8일 ~ 6월 14일

태풍 우티프로 인해 중국 남부 지역에는 100~225mm에 이르는 강하거나 매우 강한 수준의 폭우가 내렸으며 나머지 지역에는 강우량이 100mm 미만에 그쳤다. 화북 평야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기상 조건이 계속되어 야외 농작업과 밀 수확 작업이 지속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우기가 시작되었다. 북한은 강우량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었으나(25mm 미만), 한국은 최대 160mm, 일본은 최대 320mm에 이르는 훨씬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화북평야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렀다. 일본과 한반도의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 사이였다.

7. 러시아

■ 2025년 4월 27일 ~ 5월 3일

이 지역에는 서서히 기온이 내려갔고, 남부 러시아에는 추가적인 소나기가 내린 반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서는 점점 더 건조한 조건이 나타났다. 전주의 이상 고온 이후,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서부 및 중부 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6°C 낮아져, 최근 빠르게 진행되던 겨울 작물의 생육이 둔화되었다. 기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은 여전히 평균보다 1~2주 빠르게 발달하고 있었다. 남부 러시아에서는 2~30mm의 약한 비에서 중간 정도의 소나기가 내려 겨울 밀과 최근에 파종된 여름작물에 대해 양호하거나 매우 우수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러시아 북부의 재배 지역 전역에도 10~60mm의 충분한 비가 내려, 최근에 파종되었거나 발아 중인 봄 곡물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반대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영양기 겨울 밀, 출수기 겨울 보리, 그리고 꽃봉오리에서 개화 단계에 있는 유채를 위한 토양 수분을 더욱 감소시켰다.

■ 2025년 5월 4일 ~ 5월 10일

광범위한 강우가 서부 지역의 건조 우려를 완화시켰고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는 양호~우수한 작황 상태를 지속시켰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절실히 필요했던 중~강 수준의 비(10~45mm)가 내려서 단기적인 건조 상황을 완화했고 출수기 겨울 밀, 출수기~개화기 겨울 보리, 개화기 겨울 유채를 위한 시의적절한 수분을 공급했다. 더 동쪽의 러시아 서부 및 남부 전역에서는 불규칙한 소나기(2~45mm)가 내려서 겨울 작물이 양호~우수한 작황 상태를 유지해주었다; 최근의 위성 기반 식생건강지수는 북카프카즈 지방의 스타프로폴에서 연중 이 시기 기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남부 지방의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월과 5월 초의 이례적인 고온 이후 서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 북서부에는 2주째 평년보다 낮은 기온(평년보다 2~6°C 낮음)이 나타나 겨울 작물과 봄 곡물의 발달을 지연시켰다. 더 동쪽에서는 러시아 중서부와 남부 전역에서 조금 더 따뜻한 날씨(평년보다 1~2°C 높음)가 이어지면서 겨울 밀의 생육 속도가 평년보다 평균 대비 최대 일주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 2025년 5월 11일 ~ 5월 17일

광범위한 강우는 서부 지역의 건조 우려를 더욱 완화해주었고 러시아 남부에서는 작황 상태를 양호하거나 우수한 상태로 유지해주었다. 2주 연속으로 벨로루시, 몰도바,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 걸쳐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소나기(10~35mm)가 내리면서 단기적인 건조 문제를 더욱 완화해주었고 생식기에 접어든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에게 시의적절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남부의 북카프카즈 지방에서는 많은 비(25~75mm)가 내려서 생식기 겨울 밀과 출현 및 영양생장 중인 여름작물들을 위해 수분 저장량을 올려주었다. 그러나 평년보다 3~6°C 낮은 급격한 기온 하강이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러시아의 최서단 지역의 겨울 작물의 발달을 늦추거나 중단시켰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주요 재배지 중 어느 곳에서도 결빙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습한 날씨 패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을 따라 북동쪽으로 뻗은 좁은 지역에서 나타난 건조 현상은 국지적으로 겨울 작물(북부는 영양생장기, 남부는 생식기)을 위한 표토 수분을 감소시켰다.

■ 2025년 5월 18일 ~ 5월 24일

비와 서늘한 기온이 이어지며 이 지역 전반의 겨울 작물 수확량 전망이 양호에서 우수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서 3주 연속으로 간헐적으로 중간에서 강한 비(10-50mm, 일부 지역은 그 이상)가 내리면서 단기적인 건조 상태의 마지막 흔적을 더욱 해소하고, 생식 단계의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다. 이전 몇 주 동안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건조 현상과 달리 소나기들이 동부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러시아 서부 지역의 토양 수분을 개선했다. 마찬가지로 간헐적인 비가 러시아와 중부와 남부 볼가 지역의 생육기 겨울 작물들과 주요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방과 스타브로폴 주 전역에 있는 생식기 겨울 밀에도 양호한 생육 조건이 유지되었다. 평년보다 1~3°C 낮은 기온이 이 지역 남부와 서부에서 나타났지만 결빙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사실 2주 연속 서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겨울 작물들은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했던 3월과 4월의 날씨 덕분에 여전히 장기 평균 속도와 같거나 이를 앞지르며 발육 중이다.

■ 2025년 5월 25일 ~ 5월 31일

서쪽의 쌀쌀하고 습한 날씨는, 더 동쪽의 건조하고 점점 더 따뜻해지는 기후 조건과 나란히 대비되었다. 정체된 전선대가 경계선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5°C 낮은 이 지역 서쪽 3분의 1과 평년보다 최대 5°C 높은 서부 러시아를 구분 지었다. 그 전선은 또한 몰도바에서 북쪽으로 서부 우크라이나를 거쳐 벨라루스에 이르는 지역에 지속적인 소나기와 뇌우(25~100mm)가 집중되는 중심 역할을 하면서 생식기에서 종실비대기에 들어선 겨울작물과 함께 출현기에서 영양기에 접어들고 있는 여름작물을 위한 수분 저장량을 올려주었다. 그러나 계속된 비로 인해 늦은 파종 작업과 기타 계절적인 발일이 차질을 빚었다. 총강우량은 더 동쪽인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중부지구 서부 지역 전반에 걸쳐 빠르게 10mm 미만으로 줄었고, 러시아 중서부 지역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 동부 재배 지역에서는 더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 조건이 야외 농작업과 여름작물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더 먼 남부 러시아에서는 소나기(10~45mm)가 내려서 종실비대 중인 겨울 밀에 대한 수확 전망을 양호에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었다.

■ 2025년 6월 1일 ~ 6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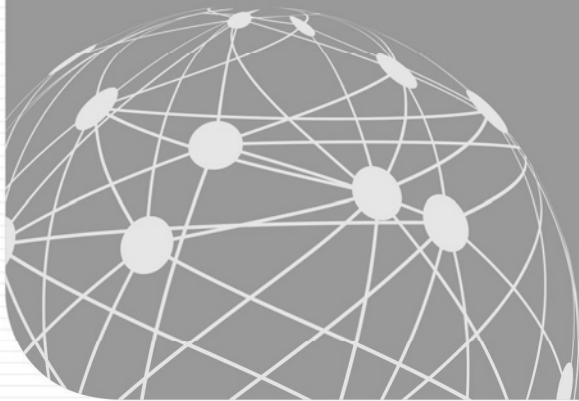
북부 재배 지역은 날씨가 습했던 반면 흑해 연안에 가까운 지역은 건조하고 점점 더 더워지는 기상 조건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이 지역 북부 3분의 1 전역에 걸쳐 활발한 폭풍 경로가 형성되었으며, 벨라루스와 북부 우크라이나에서 동쪽으로 서중부 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10~50mm(일부 지역은 그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이 강우는 개화기에서 종실비대기로 접어든 겨울 밀, 출수기 봄 보리, 출현기에서 생육기로 진행 중인 여름 작물에 필요한 수분 저장량을 증가시켰다. 반대로, 몰도바에서 동쪽으로 남부 우크라이나를 지나 남서부 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다시 나타나 최근 비가 내린 이후 종실비대기에 접어든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평년 대비 3~6°C 상승)이 몰도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서부 전역에 확산되었으나, 낮 최고기온이 섭씨 30도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작물 스트레스를 유발할 임계치에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남부 지역에 뒤늦게 도달한 더위(최고 35°C)는 밀의 성숙 및 건조 과정을 가속시켰지만, 생육기 단계에 있는 여름 작물에 특별한 악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 2025년 6월 8일 ~ 6월 14일

2주 연속으로 북부 경작 지역은 날씨가 습했던 반면 흑해 연안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건조하지만 더 서늘한 기상 조건들이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이 지역 북부 3분의 1 지대를 가로지르는 활발한 폭풍 경로로 인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동쪽으로 러시아 서중부에 이르는 지역에 10~75mm(국지적으로 그 이상)의 추가 강우가 발생했으며, 이는 개화기에서 종실비대기로 접어드는 겨울 밀, 출수기에 이른 봄 보리, 출현 중이거나 영양기에 있는 여름작물들을 위한 수분 비축량을 올려주었다. 반대로, 몰도바에서 동쪽으로 우크라이나 남부를 가로질러 러시아 남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산발적인 소나기(2~20mm)가 내렸지만 토양 수분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남러시아 북카프카즈 지방의 스타프로폴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15~45mm)가 내려서 여름작물에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주 초반의 고온(35~39°C)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서부의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최대 3°C 높였지만 영양기 여름작물들에게는 거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서쪽에서 급격히 차가워진 공기가 유입되었다. 반대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C 낮았다.

Part 5.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177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181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145,280	354,626	16,138	15,837	359,156	118,926	3.62
1994/1995	147,289	364,055	19,380	21,058	363,742	117,561	3.67
1995/1996	148,297	368,655	18,127	19,820	366,462	118,061	3.69
1996/1997	150,165	380,339	16,666	19,110	375,701	120,255	3.75
1997/1998	151,725	387,370	24,232	26,646	377,493	127,718	3.79
1998/1999	153,303	394,960	25,219	25,671	388,174	134,052	3.83
1999/2000	155,850	409,295	20,263	22,843	397,663	143,104	3.91
2000/2001	152,727	399,325	22,073	24,035	393,757	146,710	3.89
2001/2002	151,671	399,518	25,969	27,019	412,115	133,063	3.92
2002/2003	147,634	377,979	26,292	28,696	405,442	103,196	3.81
2003/2004	149,502	392,368	25,014	27,494	410,934	82,150	3.91
2004/2005	151,367	401,016	25,971	28,316	405,889	74,932	3.94
2005/2006	154,161	418,045	26,534	29,775	412,334	77,402	4.04
2006/2007	154,418	420,026	28,585	31,356	418,299	76,358	4.05
2007/2008	154,843	434,115	30,025	31,542	426,644	82,312	4.16
2008/2009	158,540	450,140	27,422	29,071	435,792	95,011	4.23
2009/2010	155,963	440,889	28,256	31,421	435,237	97,498	4.21
2010/2011	158,473	451,393	33,061	35,216	443,941	102,795	4.25
2011/2012	160,063	469,557	35,516	39,956	455,213	112,699	4.38
2012/2013	160,273	476,040	36,738	39,407	462,214	123,856	4.43
2013/2014	163,536	481,266	39,088	43,342	472,129	128,739	4.39
2014/2015	163,114	482,800	41,710	43,867	473,227	136,155	4.42
2015/2016	161,114	476,741	38,690	40,735	467,646	143,205	4.41
2016/2017	164,008	492,076	41,664	47,892	478,339	150,714	4.48
2017/2018	163,714	494,796	47,321	47,885	481,302	163,644	4.51
2018/2019	163,044	498,359	44,311	44,248	485,126	176,940	4.56
2019/2020	161,307	498,705	42,616	43,549	491,870	182,842	4.62
2020/2021	164,911	509,407	47,065	52,173	498,257	188,884	4.61
2021/2022	166,081	514,233	55,630	57,973	516,367	184,407	4.62
2022/2023	166,015	516,928	57,556	55,469	522,608	180,814	4.65
2023/2024	166,596	523,696	53,376	56,804	521,256	179,826	4.70
2024/2025	170,528	541,153	58,126	61,908	529,872	187,325	4.74
2025/2026 (전망치)	170,354	541,575	58,869	61,711	538,230	187,828	4.7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221,030	558,555	98,561	103,717	547,467	182,663	2.53
1994/1995	213,327	523,121	99,877	98,215	543,525	163,921	2.45
1995/1996	216,712	537,498	97,188	99,197	543,624	155,786	2.48
1996/1997	227,070	581,286	98,254	106,943	563,994	164,389	2.56
1997/1998	226,370	610,176	103,533	104,400	575,783	197,915	2.70
1998/1999	219,174	590,495	99,635	101,319	577,432	209,294	2.69
1999/2000	212,633	587,392	106,718	113,435	580,897	209,072	2.76
2000/2001	215,187	582,813	99,344	101,195	583,912	206,122	2.71
2001/2002	214,180	583,791	106,234	105,783	586,787	203,577	2.73
2002/2003	212,688	570,058	103,712	105,341	602,181	169,825	2.68
2003/2004	207,218	556,088	101,107	108,519	581,491	137,010	2.68
2004/2005	215,789	627,061	110,440	111,081	605,692	157,738	2.91
2005/2006	217,445	619,105	111,572	117,394	616,353	154,668	2.85
2006/2007	212,444	596,834	113,934	111,559	619,099	134,778	2.81
2007/2008	217,020	611,710	113,496	116,390	614,378	129,216	2.82
2008/2009	223,433	684,262	137,703	144,121	636,775	170,285	3.06
2009/2010	225,754	687,531	133,605	136,764	650,872	203,785	3.05
2010/2011	216,838	650,300	131,945	133,040	653,373	199,617	3.00
2011/2012	220,910	698,743	150,239	157,644	690,834	200,121	3.16
2012/2013	216,100	660,810	143,166	136,148	687,339	180,610	3.06
2013/2014	219,781	718,132	158,953	165,935	691,037	200,723	3.27
2014/2015	221,403	732,116	159,410	164,253	702,416	225,580	3.31
2015/2016	223,412	739,036	170,106	172,972	713,929	247,821	3.31
2016/2017	222,541	757,269	183,660	186,778	734,193	267,779	3.40
2017/2018	217,945	760,308	184,225	185,449	739,566	287,297	3.49
2018/2019	214,697	729,893	174,108	176,237	731,254	283,807	3.40
2019/2020	215,241	759,308	188,375	194,592	739,042	297,856	3.53
2020/2021	220,216	772,759	194,692	203,538	776,521	285,248	3.51
2021/2022	221,656	780,747	200,444	203,719	787,572	275,148	3.52
2022/2023	219,724	790,403	212,938	221,974	781,748	274,767	3.60
2023/2024	222,870	791,950	222,925	222,277	798,402	268,963	3.55
2024/2025	222,523	799,912	197,907	205,908	796,897	263,977	3.60
2025/2026 (전망치)	222,061	808,589	210,931	214,326	806,407	262,764	3.6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133,065	535,646	60,289	63,263	509,125	162,740	4.03
1994/1995	130,678	475,859	56,973	58,861	507,267	129,444	3.64
1995/1996	135,151	559,592	68,911	66,126	538,473	153,348	4.14
1996/1997	135,001	516,694	65,702	70,422	532,036	133,286	3.83
1997/1998	141,444	592,897	64,846	65,572	559,138	166,319	4.19
1998/1999	136,217	574,161	63,206	63,347	573,137	167,202	4.22
1999/2000	138,905	605,805	66,556	66,938	581,262	191,363	4.36
2000/2001	138,789	608,082	70,859	75,541	600,356	194,407	4.38
2001/2002	136,996	591,538	75,144	76,722	609,231	175,136	4.32
2002/2003	136,883	601,652	71,878	74,579	622,678	151,409	4.40
2003/2004	137,516	604,110	76,240	76,746	628,071	126,942	4.39
2004/2005	141,340	627,532	76,819	77,135	649,457	104,701	4.44
2005/2006	145,151	716,904	76,450	77,659	689,240	131,156	4.94
2006/2007	144,814	699,896	80,624	80,971	707,287	123,418	4.83
2007/2008	149,244	715,299	90,837	93,933	726,865	108,756	4.79
2008/2009	160,615	798,462	98,191	98,917	781,130	125,362	4.97
2009/2010	159,115	806,306	82,581	83,721	794,479	136,049	5.07
2010/2011	158,657	833,716	90,281	96,618	831,943	131,485	5.26
2011/2012	166,338	849,170	93,624	91,557	867,864	114,858	5.11
2012/2013	175,808	910,355	100,631	116,948	886,048	122,848	5.18
2013/2014	184,038	903,265	99,467	95,374	884,676	145,530	4.91
2014/2015	189,059	1,033,821	125,071	131,458	956,924	216,040	5.47
2015/2016	189,364	1,061,041	125,026	142,718	979,452	279,937	5.60
2016/2017	188,721	1,021,192	139,948	120,690	1,007,024	313,363	5.41
2017/2018	197,179	1,129,359	138,443	161,869	1,068,472	350,824	5.73
2018/2019	194,590	1,087,284	152,771	149,488	1,099,155	342,236	5.59
2019/2020	192,948	1,132,822	166,378	182,736	1,131,924	326,776	5.87
2020/2021	195,660	1,128,285	167,564	172,579	1,135,503	314,543	5.77
2021/2022	200,784	1,134,439	185,027	183,103	1,153,724	297,182	5.65
2022/2023	207,709	1,221,050	184,450	206,520	1,181,808	314,354	5.88
2023/2024	202,409	1,165,641	173,472	180,396	1,167,393	305,678	5.76
2024/2025	208,859	1,230,523	198,188	193,570	1,224,922	315,897	5.89
2025/2026 (전망치)	203,528	1,223,325	183,042	189,942	1,247,282	285,040	6.0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60,254	117,565	28,178	27,729	120,785	18,783	1.95
1994/1995	62,143	137,636	32,762	32,052	132,409	24,720	2.22
1995/1996	61,056	124,683	32,462	31,656	131,671	18,538	2.04
1996/1997	62,423	131,932	35,631	36,364	134,238	15,499	2.11
1997/1998	68,522	157,963	38,164	39,320	145,318	26,988	2.31
1998/1999	71,292	159,831	38,550	37,929	158,731	28,709	2.24
1999/2000	71,872	160,298	45,522	45,708	158,761	30,060	2.23
2000/2001	75,573	175,775	53,089	53,704	170,991	34,229	2.33
2001/2002	79,616	184,897	54,357	52,745	183,656	37,082	2.32
2002/2003	81,577	196,827	62,885	61,156	190,784	44,854	2.41
2003/2004	88,509	186,479	54,037	55,936	189,043	40,391	2.11
2004/2005	93,350	215,491	63,564	64,827	204,561	50,058	2.31
2005/2006	93,035	220,777	63,417	63,637	214,999	55,616	2.37
2006/2007	94,975	235,776	69,559	70,912	224,929	65,110	2.48
2007/2008	91,149	219,309	78,573	78,707	229,624	54,661	2.41
2008/2009	96,609	212,295	77,875	76,707	222,484	45,640	2.20
2009/2010	102,764	260,986	87,512	92,105	239,225	62,808	2.54
2010/2011	103,823	265,046	89,743	91,354	252,757	73,496	2.55
2011/2012	103,046	241,166	94,658	91,826	259,436	58,058	2.34
2012/2013	110,367	268,923	97,131	100,405	265,393	58,314	2.44
2013/2014	113,199	283,320	113,282	112,798	278,276	63,842	2.50
2014/2015	119,160	321,444	124,356	126,442	303,891	79,309	2.70
2015/2016	120,877	316,072	134,044	132,837	316,894	79,694	2.62
2016/2017	120,550	350,805	145,002	147,736	332,155	95,632	2.91
2017/2018	125,189	343,632	154,165	153,403	340,282	99,744	2.75
2018/2019	126,050	363,451	145,923	149,222	345,646	114,250	2.88
2019/2020	123,973	341,728	165,296	165,823	360,259	95,192	2.76
2020/2021	130,226	369,626	166,209	165,176	367,177	98,674	2.84
2021/2022	131,578	360,538	154,983	154,428	366,293	93,474	2.74
2022/2023	137,360	378,360	168,597	171,770	366,880	101,781	2.76
2023/2024	140,826	396,930	178,121	177,672	383,851	115,309	2.82
2024/2025	146,709	420,777	178,278	180,928	409,232	124,204	2.87
2025/2026 (전망치)	145,751	426,817	186,864	188,432	424,151	125,302	2.9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 대두박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7,000	0	6,287	245	1,507
1994/1995	6,950	0	6,600	265	1,592
1995/1996	8,200	0	8,277	265	1,250
1996/1997	8,867	0	8,876	270	971
1997/1998	10,357	1	9,235	275	1,819
1998/1999	13,468	0	13,423	325	1,539
1999/2000	13,712	0	13,309	335	1,607
2000/2001	13,718	5	13,730	325	1,275
2001/2002	16,559	0	16,586	325	923
2002/2003	18,663	0	18,468	365	753
2003/2004	19,761	2	19,221	425	870
2004/2005	21,601	0	20,650	500	1,321
2005/2006	25,012	1	24,222	535	1,577
2006/2007	26,061	1	25,625	594	1,420
2007/2008	27,071	3	26,816	640	1,038
2008/2009	24,363	4	24,025	730	650
2009/2010	26,624	2	24,914	830	1,532
2010/2011	29,312	0	27,615	1,000	2,229
2011/2012	27,945	0	26,043	1,450	2,681
2012/2013	26,089	0	23,667	1,850	3,253
2013/2014	27,892	0	24,972	2,100	4,073
2014/2015	30,928	1	28,575	2,402	4,025
2015/2016	33,500	0	30,333	2,672	4,520
2016/2017	33,600	0	31,323	2,867	3,930
2017/2018	28,750	1	26,265	2,996	3,420
2018/2019	31,500	27	28,833	3,125	2,989
2019/2020	30,241	1	27,461	3,200	2,570
2020/2021	31,318	1	28,325	3,275	2,289
2021/2022	30,287	135	26,589	3,325	2,797
2022/2023	23,648	67	20,764	3,450	2,298
2023/2024	28,535	1	24,891	3,500	2,443
2024/2025	33,228	65	29,500	3,500	2,736
2025/2026 (전망치)	33,540	10	30,000	3,600	2,68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14,491	0	10,661	4,122	1,203
1994/1995	15,837	0	10,445	4,927	1,668
1995/1996	17,096	100	12,226	5,364	1,274
1996/1997	15,728	192	10,557	5,365	1,272
1997/1998	15,729	244	9,587	6,360	1,298
1998/1999	16,651	69	9,813	6,665	1,540
1999/2000	16,478	98	9,950	7,086	1,080
2000/2001	17,725	184	10,673	7,063	1,253
2001/2002	19,407	342	11,862	7,580	1,560
2002/2003	21,449	350	13,657	8,055	1,647
2003/2004	22,450	282	14,792	7,750	1,837
2004/2005	22,740	252	14,256	8,960	1,613
2005/2006	21,920	195	12,895	9,328	1,505
2006/2007	24,110	167	12,715	10,718	2,349
2007/2008	24,890	180	12,138	12,257	3,024
2008/2009	24,700	83	13,109	12,700	1,998
2009/2010	26,120	86	12,985	13,200	2,019
2010/2011	28,160	58	13,987	13,700	2,550
2011/2012	29,510	30	14,678	13,900	3,512
2012/2013	27,310	32	13,242	14,500	3,112
2013/2014	28,540	26	13,948	15,300	2,430
2014/2015	31,300	18	14,290	15,700	3,758
2015/2016	30,750	25	15,407	16,450	2,676
2016/2017	31,280	35	13,762	17,000	3,229
2017/2018	34,300	19	16,033	17,311	4,204
2018/2019	32,746	22	16,095	17,500	3,377
2019/2020	35,991	10	17,499	18,000	3,879
2020/2021	35,940	18	16,577	18,800	4,460
2021/2022	39,091	12	20,207	19,700	3,656
2022/2023	41,702	6	21,334	20,000	4,030
2023/2024	41,565	18	22,722	20,000	2,891
2024/2025	43,987	10	23,000	20,500	3,388
2025/2026 (전망치)	44,776	10	23,200	21,500	3,47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27,682	68	4,972	22,828	136
1994/1995	30,182	64	6,205	23,974	203
1995/1996	29,508	91	5,524	24,085	193
1996/1997	31,035	108	6,451	24,694	191
1997/1998	34,633	60	8,722	25,964	198
1998/1999	34,285	101	6,979	27,305	300
1999/2000	34,102	65	6,912	27,289	266
2000/2001	35,730	50	7,335	28,363	348
2001/2002	36,552	134	7,271	29,545	218
2002/2003	34,649	157	5,728	29,096	200
2003/2004	32,953	259	4,690	28,531	191
2004/2005	36,936	134	6,659	30,446	156
2005/2006	37,416	128	7,301	30,114	285
2006/2007	39,037	142	7,987	31,166	311
2007/2008	38,359	128	8,384	30,147	267
2008/2009	35,473	80	7,708	27,899	213
2009/2010	37,836	145	10,125	27,795	274
2010/2011	35,608	163	8,238	27,489	318
2011/2012	37,217	196	8,845	28,614	272
2012/2013	36,174	222	10,111	26,308	249
2013/2014	36,909	347	10,504	26,774	227
2014/2015	40,880	302	11,891	29,282	236
2015/2016	40,525	358	10,843	30,037	239
2016/2017	40,630	313	10,505	30,314	363
2017/2018	44,657	438	12,717	32,237	504
2018/2019	44,283	620	12,141	32,901	365
2019/2020	46,358	580	12,549	34,444	310
2020/2021	45,872	712	12,406	34,179	309
2021/2022	47,005	594	12,303	35,323	282
2022/2023	47,621	575	13,196	34,946	336
2023/2024	49,084	623	14,612	35,020	411
2024/2025	51,979	612	15,785	36,809	408
2025/2026 (전망치)	53,252	590	16,329	37,490	43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2,880	0	2,200	680	0
1994/1995	2,200	0	1,580	620	0
1995/1996	3,200	0	2,600	490	110
1996/1997	2,920	0	2,450	580	0
1997/1998	3,800	0	2,600	1,200	0
1998/1999	4,295	0	2,800	1,325	170
1999/2000	3,520	0	2,571	1,090	29
2000/2001	3,600	7	2,097	1,305	234
2001/2002	3,520	14	2,175	1,260	333
2002/2003	2,720	3	1,295	1,575	186
2003/2004	4,480	2	3,272	1,270	126
2004/2005	4,000	13	2,573	1,290	276
2005/2006	5,680	3	5,035	835	89
2006/2007	5,200	3	4,433	805	54
2007/2008	6,640	5	5,856	810	33
2008/2009	6,480	8	4,217	1,920	384
2009/2010	6,240	7	3,527	2,540	564
2010/2011	7,480	8	5,169	2,775	108
2011/2012	8,240	7	4,877	3,320	158
2012/2013	8,640	7	4,943	3,530	332
2013/2014	6,960	7	3,252	3,640	407
2014/2015	6,160	7	1,521	4,500	553
2015/2016	4,400	46	409	4,460	130
2016/2017	7,200	11	2,019	4,674	648
2017/2018	6,160	11	1,863	4,739	217
2018/2019	7,680	49	2,185	5,530	231
2019/2020	6,890	23	1,166	5,780	198
2020/2021	8,000	236	2,395	5,850	189
2021/2022	6,800	646	940	6,273	422
2022/2023	8,240	29	1,871	6,625	195
2023/2024	9,040	29	1,966	7,075	223
2024/2025	8,800	50	1,800	7,075	198
2025/2026 (전망치)	9,080	50	1,400	7,650	27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11,407	18,012	177	29,419	886
2000/2001	13,310	17,776	253	30,910	809
2001/2002	14,243	20,011	332	33,657	1,074
2002/2003	13,123	20,633	346	33,594	890
2003/2004	11,221	22,128	399	32,982	858
2004/2005	11,408	22,019	533	32,893	859
2005/2006	10,904	22,947	714	33,126	870
2006/2007	11,693	22,362	544	33,525	856
2007/2008	11,808	24,619	422	35,432	1,429
2008/2009	10,223	21,153	464	31,836	505
2009/2010	9,950	20,879	471	30,359	504
2010/2011	9,741	21,877	609	30,842	671
2011/2012	9,164	20,872	884	29,342	481
2012/2013	10,033	16,941	536	26,742	177
2013/2014	10,349	18,140	296	28,042	328
2014/2015	11,416	19,623	362	30,142	863
2015/2016	11,811	19,213	304	30,567	1,016
2016/2017	11,060	17,353	734	27,792	891
2017/2018	11,455	16,992	770	27,742	826
2018/2019	11,850	17,197	753	27,892	1,228
2019/2020	12,324	16,329	874	28,342	665
2020/2021	12,482	16,504	847	28,342	462
2021/2022	12,166	16,536	764	27,742	658
2022/2023	11,297	15,997	737	26,742	473
2023/2024	11,455	16,537	652	26,942	871
2024/2025	11,850	18,800	700	29,542	1,279
2025/2026 (전망치)	12,087	17,100	600	28,842	1,02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대두유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1,539	0	1,395	136	718
1994/1995	1,553	0	1,427	149	695
1995/1996	1,896	0	1,590	175	826
1996/1997	1,966	0	1,993	204	595
1997/1998	2,281	0	1,966	213	697
1998/1999	3,141	0	3,111	224	503
1999/2000	3,121	0	2,843	236	545
2000/2001	3,190	0	3,080	247	408
2001/2002	3,876	0	3,630	327	327
2002/2003	4,394	0	3,920	387	414
2003/2004	4,729	0	4,238	394	511
2004/2005	5,128	0	4,757	396	486
2005/2006	5,998	0	5,597	397	490
2006/2007	6,424	0	5,970	459	485
2007/2008	6,627	0	5,789	1,026	297
2008/2009	5,914	0	4,704	1,420	87
2009/2010	6,476	0	4,453	1,915	195
2010/2011	7,181	0	4,561	2,520	295
2011/2012	6,839	0	3,794	3,020	320
2012/2013	6,364	93	4,244	2,245	288
2013/2014	6,785	9	4,087	2,844	151
2014/2015	7,687	22	5,094	2,401	365
2015/2016	8,433	0	5,698	2,840	260
2016/2017	8,395	0	5,387	3,085	183
2017/2018	7,236	1	4,164	2,981	275
2018/2019	8,044	0	5,268	2,625	426
2019/2020	7,700	0	5,404	2,180	542
2020/2021	7,932	0	6,137	2,045	292
2021/2022	7,664	93	4,873	2,650	526
2022/2023	5,991	0	4,137	1,660	720
2023/2024	7,251	2	5,533	1,770	670
2024/2025	8,499	27	6,550	1,980	666
2025/2026 (전망치)	8,579	5	6,600	1,980	67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3,468	379	1,345	2,418	336
1994/1995	3,776	125	1,460	2,500	277
1995/1996	4,081	149	1,600	2,665	242
1996/1997	3,736	130	1,273	2,646	189
1997/1998	3,728	245	1,184	2,753	225
1998/1999	3,960	228	1,441	2,741	231
1999/2000	3,943	147	1,137	2,931	253
2000/2001	4,333	69	1,533	2,932	190
2001/2002	4,700	146	1,775	2,935	326
2002/2003	5,205	85	2,394	2,895	327
2003/2004	5,560	26	2,718	2,959	236
2004/2005	5,630	3	2,414	3,091	364
2005/2006	5,430	28	2,466	3,091	265
2006/2007	5,970	4	2,462	3,395	382
2007/2008	6,160	67	2,388	3,955	266
2008/2009	6,120	6	1,909	4,275	208
2009/2010	6,470	37	1,449	4,980	286
2010/2011	6,970	0	1,668	5,205	383
2011/2012	7,310	0	1,885	5,390	418
2012/2013	6,760	6	1,251	5,534	399
2013/2014	7,074	0	1,378	5,705	390
2014/2015	7,759	11	1,510	6,215	435
2015/2016	7,627	63	1,550	6,288	287
2016/2017	7,755	60	1,241	6,570	291
2017/2018	8,485	45	1,511	6,940	370
2018/2019	8,505	24	1,085	7,500	314
2019/2020	9,348	66	1,156	7,850	722
2020/2021	9,335	249	1,262	8,150	894
2021/2022	10,153	32	2,409	7,700	970
2022/2023	10,580	29	2,686	8,300	593
2023/2024	11,055	80	1,352	10,200	176
2024/2025	11,582	75	1,425	10,110	298
2025/2026 (전망치)	11,786	40	1,400	10,350	37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6,328	31	695	5,869	500
1994/1995	7,082	8	1,217	5,857	516
1995/1996	6,913	43	450	6,108	914
1996/1997	7,145	24	922	6,471	690
1997/1998	8,229	27	1,397	6,922	627
1998/1999	8,202	38	1,076	7,101	690
1999/2000	8,085	37	624	7,284	904
2000/2001	8,355	33	636	7,401	1,255
2001/2002	8,572	21	1,143	7,635	1,070
2002/2003	8,360	21	1,027	7,748	676
2003/2004	7,748	139	425	7,650	488
2004/2005	8,782	12	600	7,911	771
2005/2006	9,248	16	523	8,147	1,365
2006/2007	9,294	17	851	8,426	1,399
2007/2008	9,335	30	1,320	8,317	1,127
2008/2009	8,503	41	995	7,378	1,298
2009/2010	8,897	47	1,524	7,173	1,545
2010/2011	8,568	72	1,466	7,506	1,213
2011/2012	8,954	68	664	8,396	1,175
2012/2013	8,990	89	981	8,522	751
2013/2014	9,131	75	852	8,577	528
2014/2015	9,706	120	914	8,599	841
2015/2016	9,956	130	1,017	9,145	765
2016/2017	10,035	145	1,159	9,010	776
2017/2018	10,783	152	1,108	9,698	905
2018/2019	10,976	180	880	10,376	805
2019/2020	11,299	145	1,287	10,122	840
2020/2021	11,350	137	786	10,574	967
2021/2022	11,864	137	803	11,262	903
2022/2023	11,897	170	171	12,070	729
2023/2024	12,289	282	280	12,317	703
2024/2025	13,063	227	1,179	12,156	658
2025/2026 (전망치)	13,327	136	771	12,656	69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650	41	0	711	0
1994/1995	495	60	0	555	0
1995/1996	712	60	0	772	0
1996/1997	657	49	0	706	0
1997/1998	859	236	0	1,095	0
1998/1999	972	833	0	1,805	0
1999/2000	792	587	0	1,300	79
2000/2001	810	1,085	19	1,750	205
2001/2002	792	1,215	4	2,000	208
2002/2003	612	1,159	5	1,850	124
2003/2004	1,008	689	5	1,700	116
2004/2005	900	1,554	11	2,400	159
2005/2006	1,278	1,453	13	2,650	227
2006/2007	1,170	1,249	8	2,450	188
2007/2008	1,494	621	16	2,100	187
2008/2009	1,458	892	2	2,300	235
2009/2010	1,404	1,354	1	2,750	242
2010/2011	1,683	817	0	2,550	192
2011/2012	1,854	1,190	10	2,900	326
2012/2013	1,944	1,081	0	3,000	351
2013/2014	1,566	1,804	1	3,350	370
2014/2015	1,386	2,815	3	4,100	468
2015/2016	990	4,269	3	5,250	474
2016/2017	1,620	3,534	1	5,150	477
2017/2018	1,386	2,984	7	4,670	170
2018/2019	1,728	3,000	8	4,750	140
2019/2020	1,550	3,626	16	5,125	175
2020/2021	1,800	3,251	11	4,950	265
2021/2022	1,530	4,231	15	5,825	186
2022/2023	1,854	3,968	11	5,400	597
2023/2024	2,034	3,308	16	5,175	748
2024/2025	1,980	5,100	15	6,615	1,198
2025/2026 (전망치)	2,043	4,600	15	6,550	1,27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2,567	84	954	1,702	227
2000/2001	3,033	29	889	2,186	214
2001/2002	3,245	62	894	2,336	291
2002/2003	2,990	30	711	2,345	255
2003/2004	2,557	67	557	2,142	180
2004/2005	2,599	182	526	2,214	221
2005/2006	2,512	719	273	2,925	254
2006/2007	2,694	978	244	3,412	270
2007/2008	2,720	1,038	335	3,205	488
2008/2009	2,350	795	398	2,797	438
2009/2010	2,290	547	386	2,760	129
2010/2011	2,343	906	463	2,400	515
2011/2012	2,204	386	742	2,050	313
2012/2013	2,413	322	1,011	1,850	187
2013/2014	2,489	329	766	1,990	249
2014/2015	2,746	253	1,010	2,040	198
2015/2016	2,841	325	915	2,285	164
2016/2017	2,660	306	973	1,955	211
2017/2018	2,755	288	1,074	1,935	245
2018/2019	2,850	419	977	2,255	282
2019/2020	2,964	483	910	2,380	439
2020/2021	3,002	493	1,061	2,430	443
2021/2022	2,926	458	970	2,305	552
2022/2023	2,717	623	915	2,405	572
2023/2024	2,755	586	662	2,630	621
2024/2025	2,850	650	900	2,655	566
2025/2026 (전망치)	2,907	650	850	2,705	56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25년 6월 1일

발 행 2025년 6월 1일

발행인 한두봉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빗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프리비

전화 061-332-1492 팩시밀리 061-332-1491

E-mail: pri_be@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